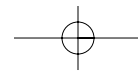




# 학문의 도시 안동

The museum a city of Andong





## 발간사

안동을 일컬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합니다. 서울의 2.5배라는 넓은 면적 속에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를 가진 285점의 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우리 안동에서는 어렵지 않게 고건축 문화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예술·민속·산업·과학 등 고고학 자료·미술품, 기타 인문·자연에 관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진열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이 자료를 조사 연구하는 시설인 박물관은 문화재의 보고(寶庫)입니다. 안동에는 이러한 문화재의 보고인 박물관 및 전시관이 20여개에 이릅니다. 한국의 중소 도시인 안동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 줍니다. 박물관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산업이 가능하다는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박물관 가운데 특히 송원각, 영모각, 옥진각, 운장각은 문중유물전시관으로 오랜 세월 조상의 유품과 유물을 소중히 간직했던 안동 사람들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문중유물전시관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목판과 마주할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박물관의 도시 안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박물관이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유물을 통해 옛 것을 배우고 현재를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박물관이 많다는 것만을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박물관들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통해 현대를 움직이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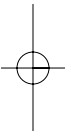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앞으로도 우리 안동의 박물관에 대한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발간사에 가능하며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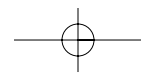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제)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이사장 김휘동 · 이동수

김 휘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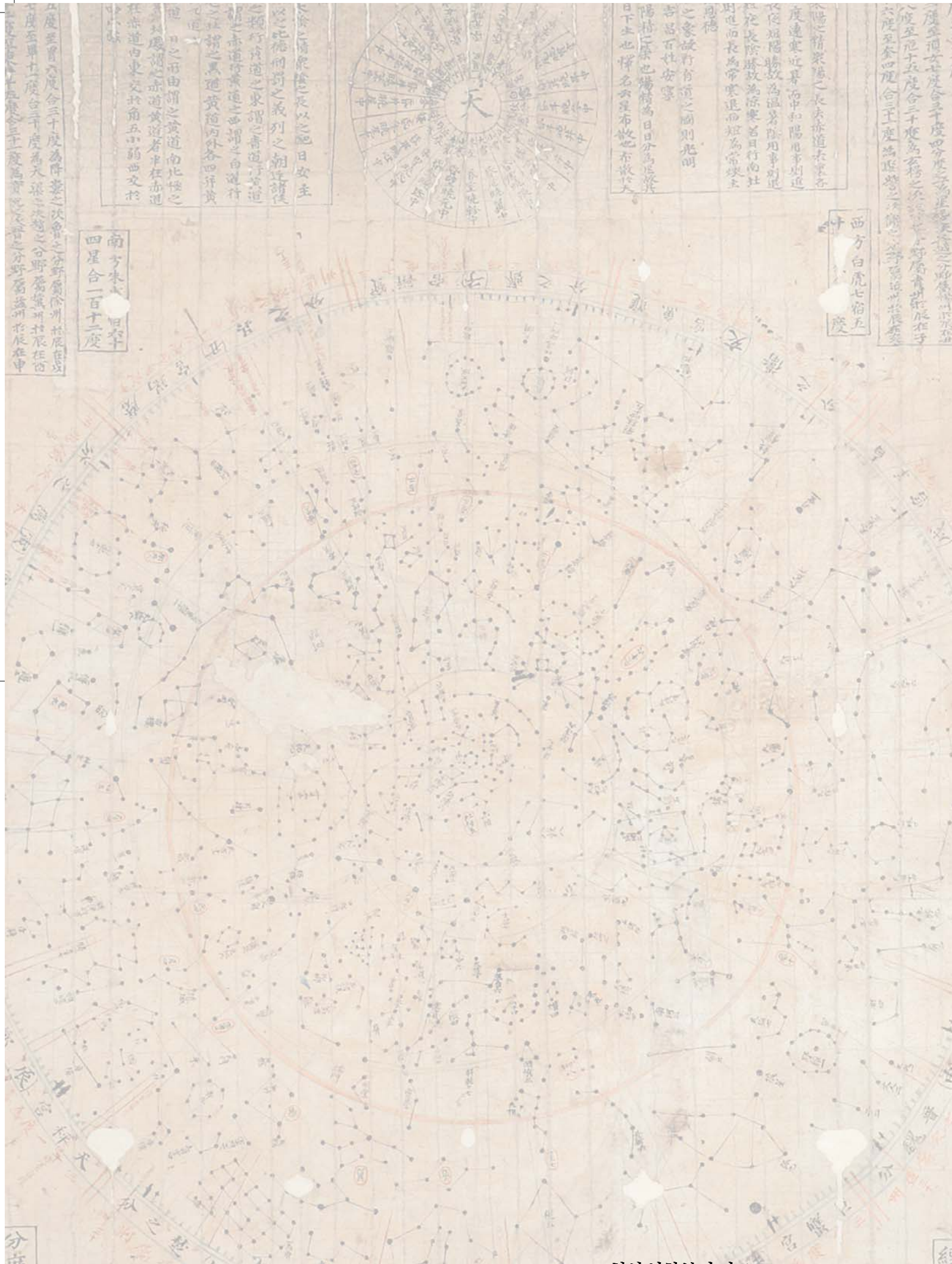


# 도시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 안동 속의 박물관 안내도

## [ C O N T E N T S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9
봉정사 성보관	19
송원각	29
안동공예문화전시관	39
안동대학교박물관	49
안동독립운동기념관	59
안동물문화관	71
안동소주 · 전통음식박물관	81
안동시립민속박물관	93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	103
안동포타운	113
안동한지전시관	125
영모각	135
옥진각	147
운장각	159
유교문화박물관	171
이육사문학관	183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195
태사묘 보물각	207
하회동탈박물관	217
향토교육자료관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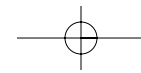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21 개의 박물관의 수록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





#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은 잊혀져가는 산림자료의 영구적 보존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를 창달하고 올바른 산림문화 발전을 위한 이해를 돕고자 건립되었다. 특히 잊혀져가는 자연과 산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 테마박물관으로 산림의 과학적 보존과 활용방법을 제시하는 교육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4개의 상설전시실, 임산물전시실, 숲속체험관, 4D영상실(초록벌의 모험 상영)을 갖추어 산림전문박물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산림을 이루는 토양, 나무, 동물에 관한 자료와 역사 그리고 그 자연물을 활용한 문화적 산물 등에 관한 자료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산림의 파괴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산림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미래도시의 환경계획을 제시하여 생태도시에 관한 메시지도 전달하여 박물관을 찾은 이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향후 이곳에는 산림박물관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을 다양하게 이용하여 야생동물 생태공원,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소득식물 생태숲, 야생동물 구조센터, 천연기념물 교육홍보관 등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 동·식물이 공존·공영하는 다양한 생태의 균형적인 조화의 실현과 소득증대, 연구개발, 관광레저를 종합하는 산림사업의 요람으로 발전하여 도민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야간무료개장 5월~10월 매주 토요일 18:00~21:00

### ▶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1월1일 / 설날 / 중추절

### ▶ 관람료

일반(19세~64세) 1,500원(20인 이상 단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20인 이상 단체 500원)

어린이 500원(20인 이상 단체 3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무수행자,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등

### ▶ 문의

054-855-8681~3 Fax 054-855-8684

<http://www.gbfsm.or.kr>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

### ▶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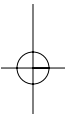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69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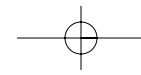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 35번 국도 이용(소요시간 30분)

## 제 1전시실 : 산림의 역사와 자원

제 1 전시실은 경북산림과학박물관의 도입부분으로 숲의 탄생과 생물의 진화,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입체적으로 연출하였다. 또한 산림자원 특히 목재와 속재를 이용한 우리 삶의 모습을 다양한 전시기법으로(패널, 디오라마, 영상물 등) 연출하여 관람객이 숲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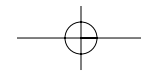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제 1전시실 : 산림의 역사와 자원

### 제 2전시실 : 경북의 산림



제 2 전시실은 경북 산림에 대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역사를 흥미로운 전시매체(모형 영상 패널 디오라마 매직비전 실물전시 등)로 연출하여 경북산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경북 사방사업(砂防事業)의 흐름을 패널 및 디오라마로 연출하여 관람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산림녹화의 중요함을 알 수 있게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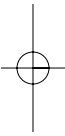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제 2전시실 : 경북의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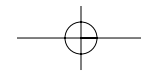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제 3전시실 : 나무의 마당

제 3 전시실은 중앙바닥에 경북의 지형을 입체 그래픽으로 연출하고 원형의 벽부 전시시설에는 사람의 모습과 문화유적, 전통문화(명소, 안동포, 하회탈, 활, 종이, 한지 등)과 목재문화(소반, 함지, 떡살, 다식판, 옷장 등 생활도구류, 생산도구, 농기구류, 연장, 운반도구류 등)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경북의 천연기념수와 특히 생활에 많이 활용되었던 소나무, 참나무의 다양한 쓰임새를 입체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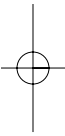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제 3전시실 : 나무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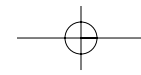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나무의 마당에 에필로그에 해당된 공간에서는 산림자원을 과학적으로 이용해 살았던 주거문화(굴파집, 너와집, 셋집, 토담집, 귀틀집, 통나무집, 초가집 등)와 생활상(물레방아, 언지방아, 디달방아, 통방아, 절구, 물구시, 무자위 등)을 전시면적에 알맞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자연배경에 맞도록 구성·연출하여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엿보게 하고 있다.



### 제 4전시실 : 생명과 문화의 숲

제 4전시실은 문명의 발달이 자연을 오염시킨 것까지 현상(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하천오염, 농축업폐수, 공장폐수 등)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엘니뇨 등과 개발에 의한 생태계파괴, 산불과 병해충, 산림훼손 등으로 동식물과 산림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지구의 허파와 심장이 꺼져가는 모습을 연출하여 우리의 심장이 멎어감을 느끼게 하는 전시를 통해 환경의식을 재고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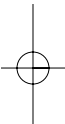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활동 >>>

### 제 4전시실 : 생명과 문화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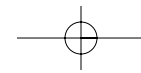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또한 유전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생명과학, 환경협약, 환경선언 등 미래환경의 과학적 관리, 보전과 환경친화력 노력, 생태공존이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인식시키고 있다.



봉정사 정보관 >>>>







## 봉정사 성보관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672)에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이다. 천등산은 원래 대망산이라 불렀는데 능인대사가 젊었을 때 대망산 바위굴에서 도를 닦고 있던 중 스님의 도력에 감복한 천상의 선녀가 하늘에서 등불을 내려 굴안을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천등산'이라 이름하고 그 굴을 '천등굴'이라 하였다. 그 뒤 더욱 수행을 하던 능인스님이 도력으로 종이 봉황을 접어서 날리니 이곳에 와서 머물러 산문을 개산하고, 봉황이 머물렀다 하여 봉황새 봉(鳳)자에 머무를 정(亭)자를 따서 봉정사라 명명하였다.

그 뒤 6차례에 걸쳐 중수하였으며, 국보 제15호인 극락전, 보물 제55인 대웅전, 보물 제 448호인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인 고금당, 덕취루, 무량해회, 삼성각 및 삼층석탑과 부속암자로 영산암과 지조암 중암이 있다. 특히, 고려태조와 공민왕께서 다녀가기도 한 아름다운 사찰이다.

봉정사 내에 위치한 유물전시관인 성보관(聖寶館)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한식기와 건물로 면적 362.88㎡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유물전시관은 일반유물 수장고와 후불벽화 수장고 및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봉정사 소유유물 25종 174점과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전 해체 보수 시 보존 가치가 높아 보관해 온 포벽화와 대웅전 보수 시 발견된 후불 벽화 등이 수장고에 보관되며, 이중 일부 유물과 포벽화 및 후불벽화가 전시관의 개관으로 전시된다.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휴관일 연중무휴

▶관람료 봉정사 관람료에 포함

▶문의 054-853-4181 / <http://www.bongjeongsa.org>

▶위치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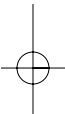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예천방면 34번 국도 이용, 송야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924번 지방도 이용(소요시간 30분, 봉정사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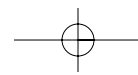


### 봉정사 후불탱화

### 봉정사 대왕탱화

봉정사 후불탱화가 발견되어 한때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고려시대의 후불탱화가 남아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후불탱화 이외에 공민왕의 초상화라고 여겨지는 탱화 5점이 봉정사에 전해온다. 소위 "대왕탱화"가 그것이다. 탱화를 보면 모두 5점이 비슷한 인물상으로 나타나 있다. 옷을 입은 것이 다르고, 손에 쥐는 방향이 다르다. 이 탱화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공민왕을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대왕탱화라고 부른다고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괘불탱화**

탱화의 일종으로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걸어놓고 예배하는 의식용 불화이다.



**봉정사 감로(甘露)탱화**

감로탱화는 다른 말로 고히탱화라고도 한다. 지옥에서 벗어나 극락에 왕생할 것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려진 그림으로,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영혼, 그러니까 무주고혼에게 감로와 같은 법문을 베풀어 해탈시킨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생들이 갖가지 업장으로 온갖 과보를 받고 무주고혼이 되어 고히 속을 윤회하므로,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훈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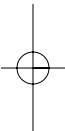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공민왕 어필 - 진여문(眞如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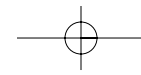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공민왕 어필이라 전해지는 현판이다. 진여문은 중생을 진여 법성의 이치로 끌어주는 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칭하는 말로 일컬어진다.



**선조어필 - 독포도덕(獨抱道德)**

선조의 어필이라 전해지는 현판으로 '독포도덕(獨抱道德)'이란 홀로 도(道)와 덕(德)을 품는다는 뜻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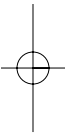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8폭 병풍(혁필)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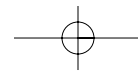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동경(銅鏡)  
구리로 만들 거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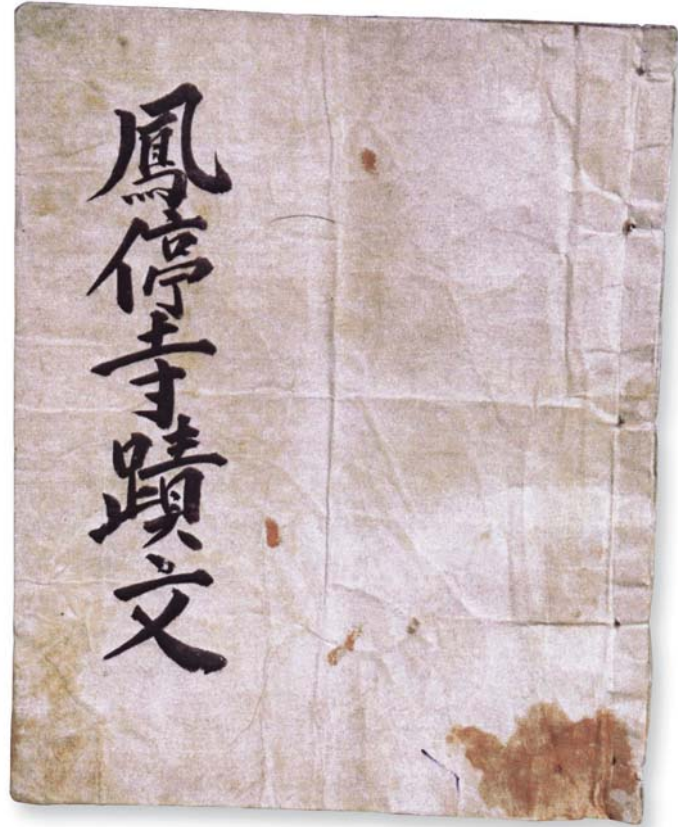
바라 1쌍  
조선시대 때 사용하던 것으로 전해지는 바라이다. 바라는 불교의 의식무용이나 무악 등에도 사용되는 악기이다.



원패(願牌)  
불교의식에 쓰는 용구의 하나로 불교신도들이 축원할 내용을 적어 만든 패(牌) 중 하나이다. 축원패라고도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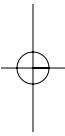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봉정사 사적문(事蹟文)

승원각 崇遠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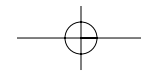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권책 4권(화엄경(華嚴經) 3권, 중례문(中禮文) 1권)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송원각 崇遠閣

송원각은 광산김씨 문중의 유물전시관이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이 문중의 유형문화재를 현 위치에 집단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천 점의 문헌(文獻), 고문서(古文書), 전적(典籍)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은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이 600여 년간 소장하여 왔던 보물급 문화재들이다. 이에 1983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재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유물관인 송원각을 건립하고 이곳에 유물 모두를 보관 전시하고 있으며 그 중 490점이 국가보물 제 1018호, 101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현재 유물이 보관되고 있는 송원각은 2004년에 신축된 건물이다.

보물 제 1018호로 일괄지정된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고문서(光山金氏禮安派宗家所藏古文書)는 7종 429점이다. 교지, 분재기, 호구단자, 소지, 노비문서, 명지, 명문, 완문, 교서, 서간문 등은 총 82점, 임금과 관에서 보내는 각종 사령서와 김씨가 역대의 문서들이다. 호적단자는 총 43점으로, 원본이 아니라 후에 베껴 쓴 것으로,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여러 시대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외에도 입양문서 4점, 소지 9점, 분재기 45점, 명문(明文) 154점, 훈례에 관련된 문서인 예장지가 100점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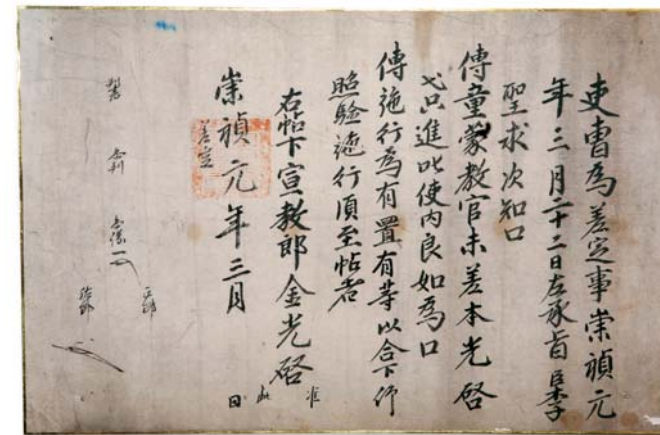
또한 보물 제 1019호로 지정된 광산김씨예안파종가소장전적(光山金氏禮安派宗家所藏典籍)은 13종 61점으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택의 문중에는 고문서 이외에도 전적 약 3천여 권이 보관되어 있다.

-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 **휴관일** 1월 1일 / 설날 / 중추절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59-0825(안동문화원) / <http://www.gunjari.net>
- ▶ **위치** 경북 안동시 와룡면 385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 35번 국도 이용(소요시간 20분, 오천군 자마을 내 소재)



## 호적 戶籍

- 1261년에 만들어진 장적을 준거로 하여 1301년 발급된 김연(광산김씨 14세손으로 고려 충렬왕시 형부상서를 지냄)의 준호구와 1333년의 김진(광산김씨 16세손, 고려 충혜왕시 광정대부 정당문학, 예문관대제학을 지냄)의 호구단자를 전사한 문서
- 가로 177, 세로 38
- 1759년 김지원이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와 1702년 안동부에서 김순의에게 호내 인구현황을 기록하여 발급한 준호구
- 가로 36, 세로 28
- 1732년 김지원이 호내 인구 현황 파악 후 관에 올린 문서
- 가로 35, 세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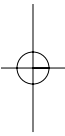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차첩 差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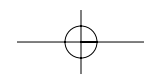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 1628년(인조6) 김광계(근시재의 아들, 한강정구의 문인이며 병자호란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에게 내리는 차첩
- 가로 64.5, 세로 43



## 교령, 교첩 敎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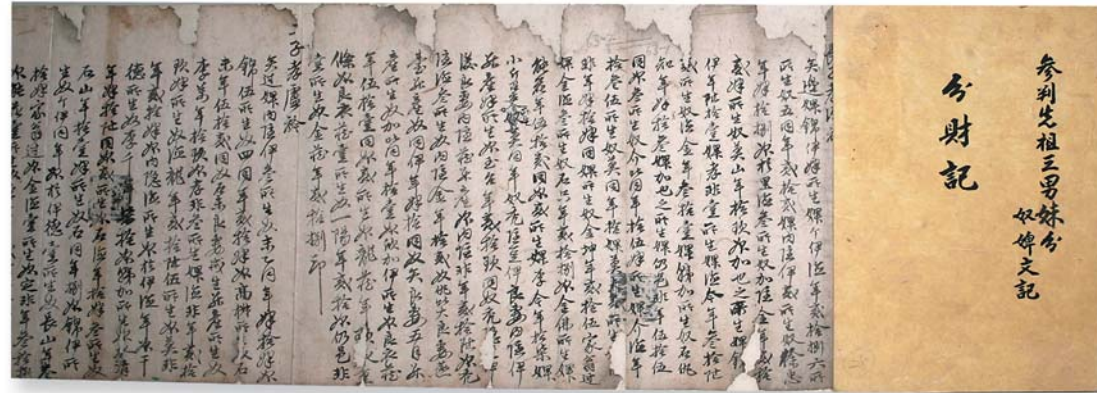
- 1690년(숙종 16) 8월 김대(자는 사종, 호는 부, 갈암 이현일의 사위)에게 내리는 교첩
- 가로 73, 세로 54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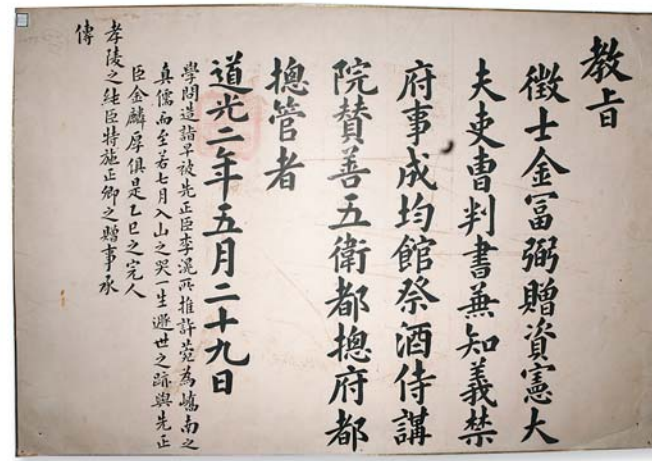
**분재기 分財記**

1417년 김무(고려말 중앙귀족으로 광산김씨 18세손)가 자손들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는 분재기  
• 길이 340, 높이 46



**사군자 벼루**

• 22.5 3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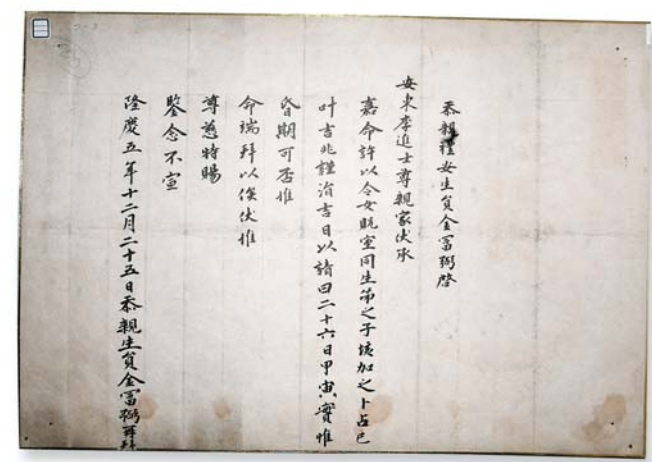
**추증 교지 追贈教旨**

1893년(고종3), 1593년(선조27) 승의랑에 추증되었던 김해를 자헌대부 이조판서에 추증하는 교지  
• 세로 24, 가로 39



**풍잠 風簪**

갓이 넘어지지 않도록 망진 앞쪽에 꾸미는 반달 모양의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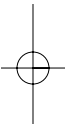
**혼서 婚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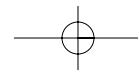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1571년(선조 4) 12월 15일에 생원 김부필이 동생 김부의의 아들이며 본인의 수양자인 김해의 혼사 문제로 사돈댁에 혼기를 26일로 정할 것을 제의한 혼서  
• 가로 74, 세로 51



**호패 戶牌**

6개, 성인남자가 16세가 되면 가지고 다니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 성명, 출생간지일, 관아의 낙인이 적혀 있음  
• 가로 3, 세로 8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철궁화살 鐵弓矢**

- 크 기 : 축길이 3.5cm, 살길이 40cm, 직경0.8cm
- 재 료 : 철·대나무
- 시 대 : 조선조 선조

화살의 깃은 떨어져 없고 그 자리에 U자 홈이 있다. 임란시 의병대장 광산인(光山人) 김해(金垓)가 사용한 조선시대 철궁화살



**광산김씨 예안파 인장 印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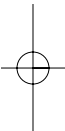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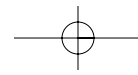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광산김씨 예안파 가문의 인장 印章**



**은타구**

- 높이 8 지름 8.5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행연 行硯**

먹을 갈아서 넣어 놓는 통  
•가로 6.7 세로 4



**운통 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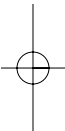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선비들이 시를 지을 때 운을 뽑는 것  
•높이 5.9 지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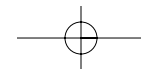
**금관자**

•전체 2 구멍지름 1

안동공예문화전시관  
>>>>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와 안동의 공예가들이 만든 공예품의 전시, 판매, 체험을 통해 공예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 공간이다.

1층에는 전시, 판매장, 체험장이 있어 다양한 공예품을 무료관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단체(개인)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2층에는 5개의 공방이 있어 작업과정을 보실 수 있으며 도자기·염색·목공예·금속(칠보)·칼라믹스·한지공예 예약체험이 언제나 가능하다.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 1층: 생활 공예품 전시·판매장, 공예 체험장
- 2층: 공방(5개), 휴게실

### □안동공예문화전시관 별관

- 1층 : 공방(4개)
- 2층 :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 1월1일 / 설날 / 중추절

▶관람료 무료(체험비 별도)

▶문의 054-843-5531 / <http://www.acehall.co.kr>

▶위치 안동시 상아동 477-4번지

▶찾아가는 길 안동댐 가는 길로 월영교 지나 300m 전방 왼쪽 입간판에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이라고 보임.



### 호룡

김기택 | 금속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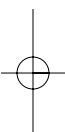
### 황토와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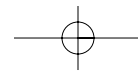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이종철 | 금속공예



### 합

임방호 | 금속공예





집

김강현 | 도자기공예



아리랑

장은정 | 도자기공예



진사호

김창호 | 도자기공예



구름문을 이용한 탁상용품

임충현 | 도자기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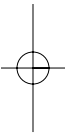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온고07 (溫古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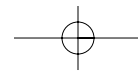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이희복 | 도자기공예



한국의 탈퓌리와 취발이

김완배 | 목공예





박물관의 도시 안동



**하회탈 프로필**  
김동표 | 목공예



**4단 민화 서랍장**  
김순화 | 천연염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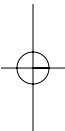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사방탁자**  
남창환 | 목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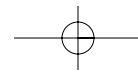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감염색 가방**  
김미숙 | 천연염색



**선비 정신 매, 란, 국, 죽**  
나창교 | 천연염색







흥  
최윤희 | 칼라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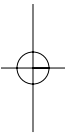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안동대학교박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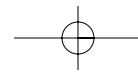
사각문살 스탠드  
배늬이 | 한지공예



전통문양과 우리 일상용품  
변현숙 | 한지공예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안동대학교 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은 1979년 3월 안동대학교 개교와 더불어 개관하였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유일의 종합박물관으로 역사, 고고, 민속자료 등을 발굴·수집·전시하여 학생과 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유물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1만 2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유물로는 홍극가 묘 출토복식(洪克家 墓 出土服飾, 중요민속자료 제40호), 안동 석사자(安東 石獅子, 문화재자료 제19호), 역동서원(易東書院, 기념물 제146호), 임하사 전탑지 사리구(臨河寺 塔塔址 舍利具), '원이엄마 편지' 등이 있다. 특히 원이엄마 편지와 병든 남편의 쾌유를 기원하며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는 1998년 출토 이후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나 소설, 연극, 회화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 『엔티쿼티』, 중국 국영 CCTV-4 등을 통해 외국에도 알려져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전시 공간으로는 상설전시실, 특별전시실, 야외전시장이 있다. 상설전시실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는데, '원이엄마 영상실'과 실내에서 실외 유적을 볼 수 있는 '역동서원 조망실'은 안동대학교 박물관만의 자랑거리이다. 특별전시실은 매년 1회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주제로 전시회를 가지며, 전시기간 외에는 대학 구성원이나 지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안동 석사자를 비롯해 범씨동 석불, 석등, 연화문 좌대 등 40여 점의 석조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 관람시간 10:00~17:00
- ▶ 휴관일 토·일 공휴일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20-5247 <http://museum.andong.ac.kr>
- ▶ 위치 안동대학교 내(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영덕방면 34번 국도 이용(15분 소요)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임하사전탑지 사리구 臨河寺塔塔址舍利具

- 시대 : 통일신라
- 규모 : 외함-길이 5.5cm, 너비 3.0cm, 높이 4.4cm  
내함-길이 3.0cm, 너비 2.8cm, 높이 2.5cm  
사리병- 지름 1.7cm, 높이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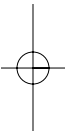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사리는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Sarira를 음역(音譯)한 것으로 석가모니의 신골(身骨)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승려들의 화장유골까지 통칭한다. 임하사전탑지 사리구는 집모양의 외함(家形外函), 직육면체 모양의 내함(方形內函), 사리병(舍利瓶)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모양의 외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맞배지붕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리병은 은으로 만든 병에 유리를 씌운 칠보병(七寶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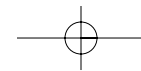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 금동귀고리

- 시대 : 신라
- 규모 : 길이 6.3cm, 태환지름 2.5cm

안동 태화동 9호분에서 출토된 신라 때의 금동귀고리이다. 귓볼에 직접 다는 고리와 그 아래쪽을 꾸미는 중간식(中間飾), 제일 아래쪽을 장식하는 수하식(垂下飾)을 모두 갖추고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안동석사자(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9호)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 : 길이 1m

안동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 쌍의 돌사자상이다. 안동향교 옛 터에 있던 것을 옮겨온 것으로, 원래의 자리는 알 수 없으며, 그 용도도 확실하지 않다. 『영가지』에 “안동향교의 대문 좌우에 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옮겨올 당시 사자상 주변에 연꽃무늬의 받침대 등이 쌓여 있어 사찰에서 쓰였던 것으로 짐작하기도 한다.



### 정하동 출토 고려청자

- 시대 : 고려(12세기 후반)

안동시 정하동에서 출토된 청자류이다. 모두 무늬가 없는 녹청자류로 무덤 벽면과 인접한 바닥에서 수습되었다. 종류는 과형주전자(瓜形酒煎子), 정병(淨瓶), 퇴주기(退酒器), 탁잔(托盞), 항(缸)이다. 색조나 형태는 투박한 편이나 잔 받침의 일부가 결실된 탁잔을 제외한 나머지는 완형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원이엄마 편지와 미투리

- 시대 : 조선(1586)
- 규모 : 편지-가로 58.5cm, 세로 34.0cm  
미투리-길이 23cm, 너비 9cm

이 편지와 미투리는 안동시 정하동 이응태(李應台, 1556~1586)의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이응태는 31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부인이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를 남편과 함께 묻었다.

편지에 담겨있는

“둘이 머리 희도록 살자다가 어찌 당신 먼저 가십니까?”

“뱃속의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는 거지요?”

“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세요”

등의 애절한 내용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미투리는 “...이 신 신어 보지도 못하고...” 라는 글씨가 있는 한지에 싸여 있었다. 이로 보아 이 미투리는 이응태의 부인이 병든 남편의 쾌유를 기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끝내 숨지자 남편의 무덤에 함께 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편지와 미투리는 1998년 출토 이후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나 소설, 연극, 회화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셔널지오그래픽』, 『엔티퀴티』, 중국 국영 CCTV-4 등을 통해 외국에도 알려져 한국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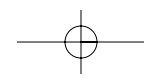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고고학잡지 『엔티퀴티(ANTIQUITY)』 2009년 3월호 표지에 실린 원이엄마 편지



### 사랑의 미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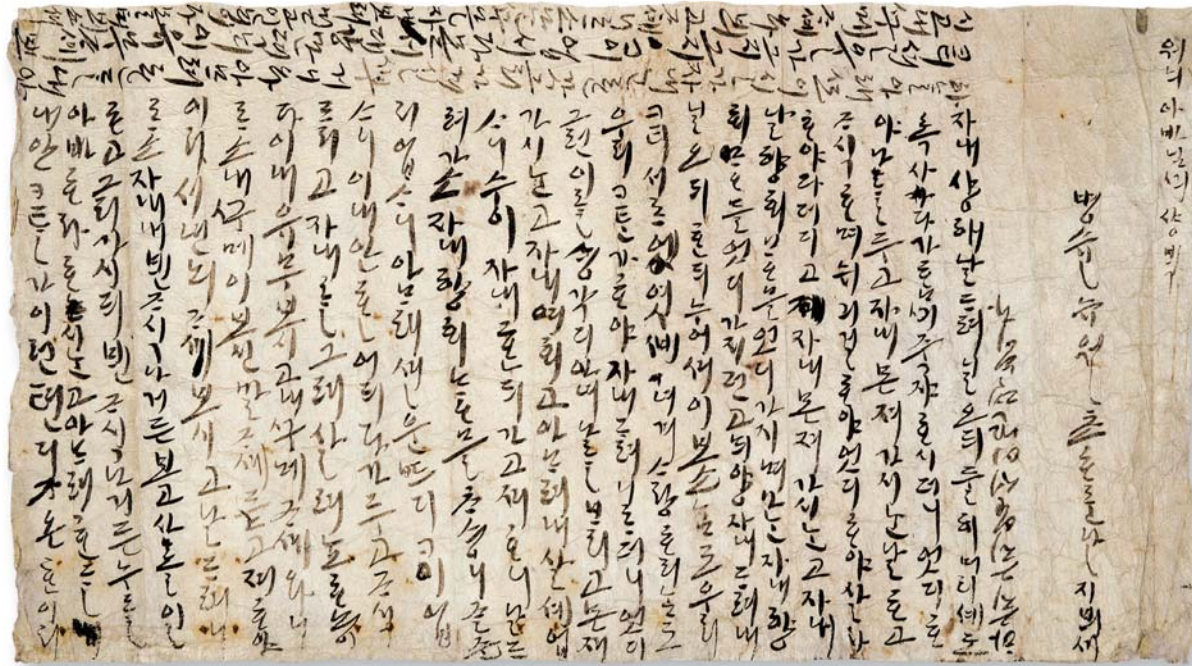
- 길이 23cm 너비 9cm

젊은 여인이 병든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 수백 년 동안 묻혀 있다가 지금은 국립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원이 엄마가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1586년)

•가로 58cm 세로 3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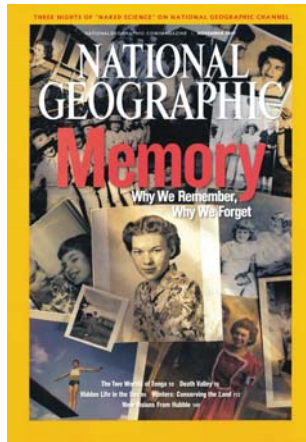
「 원이 아버지에게

병술년 유월 초하룻날 아내가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주세요. 나는 꿈에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세계적 다큐멘터리 잡지인 **네셔널지오그래픽** 오그레픽(NATIONAL GEOGRAPHIC)이 2007년 11월호에 소개된 원이엄마의 미투리



### 김여온 무덤 출토 단령

- 시대 : 조선(1665)
- 규모 : 뒷길이 133cm, 화장 133cm, 56.3cm

단령(團纓)은 옷깃이 둥근 데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령(원령)이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관리들의 관복으로 사용되었는데, 평민들도 혼례(婚禮) 때는 입었다.

이 단령은 조선시대 종2품 관직을 지낸 김여온(金汝溫, 1596~1665)의 무덤에서 출토된 겹단령으로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가슴과 등에는 흉배(胸背)가 달려있다. 흉배에는 연금사(燃金絲)와 색사(色絲)로 사자(獅子)를 수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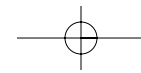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은입사 담배합

- 시대 : 조선 후기
- 규모 : 길이 10.4cm, 너비 8.8cm, 높이 6.5cm

권력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집안에서 잎담배를 썰어 담아놓기 위해 사용했던 함의 일종이다. 몸체에 뚜껑이 밀폐되는 함의 특성이 담배 향의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함의 형태가 아니라 함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였다.

잎담배를 담는 용기(容器)로 한자로는 연함(煙盒)이라 하며, 담배서랍, 초함(草盒) 등으로도 불린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청화백자 용문호** 靑華白磁龍文壺

- 시대 : 조선후기
- 규모 : 높이 22.7cm, 지름 17.0cm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백자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가리와 인접한 어깨선 위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돌렸고, 몸체에는 구름 속에서 조화를 부리는 용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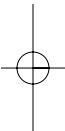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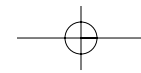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역동서원** 易東書院 (경상북도 기념물 제146호)

- 시대 : 조선(1570)

역동서원(易東書院)은 안동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이 중심이 되어 1570년(선조 3)에 건립하였다. 서원은 조선시대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자치운영기구였는데, 역동서원은 우탁(禹倬, 1263~1342) 선생을 제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안동지방에서 대학교 내에 서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과거의 교육기관이 공존한다'는 데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한국 근대 최초의 의병인 갑오(1894. 7월)의병이 일어난 안동”, “전국 최다의 독립운동유공자·자정순국자를 배출한 안동”, “한국독립운동사의 핵심인물을 배출한 안동”이라는 역사성은 안동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5년 간의 노력으로 안동독립운동기념관(安東獨立運動紀念館)이 건립되었다.

기념관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여의 준비 끝에 지하/지상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실·연수교육시설·자료실과 수장고를 갖추고 있다. 전시시설을 통한 연수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을 갖춘 것이 기념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실은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관은 안동인의 국내 독립활동을 국외관은 만주로 망명하여 안동인이 펼친 국외활동을 담고 있다. 영상추모관은 안동의 독립운동가 1000인을 영상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실에 전시된 유물 중에는 을미의병기의 「안동의소파록」, 류인식의 『대동사』, 「안동조선출산장려회취지서」 등 안동인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5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권오설이 소장하고 있던 「신간화국내외정세보고」는 1927년 민족유일당운동과 관련한 자료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귀중한 자료이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은 1894년 갑오의병에서 1945년 안동농림학교 학생항일운동에 이르기까지 51년 간 씩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한 안동인의 활동을 기념하기 위한 교육장이다.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고 안동만이 가진 가치이자 특수성이다. 또한 안동의 독립운동은 유교문화의 학문적·정신적 맥락에서 전개되었고, 대다수 지도자들은 퇴계학맥을 잇는 유교적 지식인이었다. 이는 보수적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혁신적 변화를 통해 나라를 잃은 힘든 시대에 책임있는 행동을 선도했다는 측면에서 “유교의 긍정적 부분”을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념관은 독립운동유적해설사 양성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역사교사 및 독립운동가 후손을 위한 만주유적지 탐방 등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기념관은 전시실운영과 한국근대사·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한 연수교육사업, 독립운동사 발간, 자료수집 및 독립운동가 발굴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관람시간 연중 09:00~18:00
-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 / 추석
- ▶ 관람료  
 일반(19세~64세) 1,000(15인 이상 단체 800원)  
 청소년 700원(15인 이상 단체 500원)  
 어린이 500원(15인 이상 단체 3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군인
- ▶ 문의 054-823-1555 / http://www.815andong.or.kr
- ▶ 위치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40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영덕 방면 34번 국도 이용(25분 소요)



## 안동인의 국내항일운동

국내에서 펼쳐진 안동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일어난 1894년 갑오의병항쟁부터 1907년 설립된 협동학교(協東學校), 그리고 자정순국(自靖殉國)과 1910년대 광복회(光復會) 및 3·1운동, 마지막으로 1920~40년대 대중·학생운동 등 안동지역과 안동인의 국내독립운동 51년을 살펴볼 수가 있다. 또 안동 각 면의 독립운동 유적지, 1896년 3월 29일 태봉 전투, 김흥락(金興洛) 사촌동생인 의병장 김희락(金熙洛)의 순국, 민족의 딸이면서 아내 그리고 어머니인 김락(金洛) 등의 영상물을 통해 보다 쉽게 안동의 독립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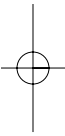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안동의 의병항쟁은 1894년 갑오의병에 이어 1895년 을미의병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안동의진은 1896년 3월 말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상주 태봉의 일본군 병참부대를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의 방화로 안동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 1948년 9월 건립한 향산 이만도의 순국유허비

앞면은 백범 김구의 글씨이며, 뒷면 비문을 위당 정인보가 지었다. 1905~1910년대 전국적으로 자정순국자가 70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안동출신이 10명이나 된다. 이는 의를 소중하게 여긴 안동유림들의 결연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 협동학교는 안동지역 최초의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으로 1907년 봄 내앞(임하 천전) 현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자리에 설립되었다. 학교를 설립한 주역은 류인식·김동삼이고, 가산서당과 백하구려가 교사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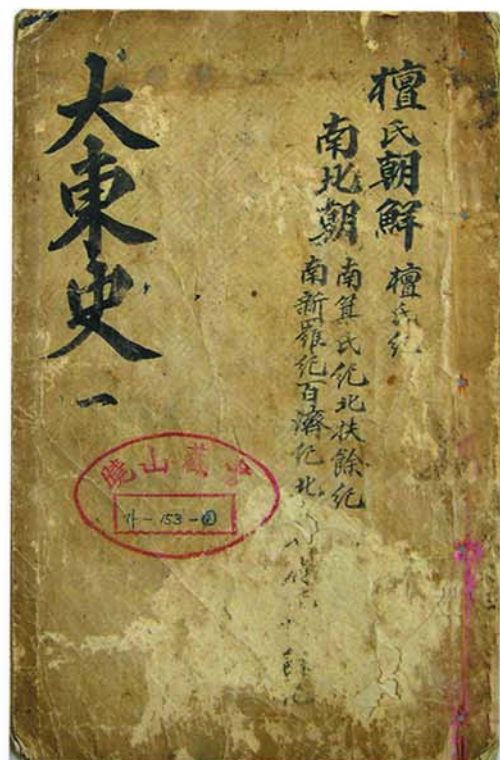


### 협동학교 교직원 모습

맨 뒷줄 양복 입은 사람이 김동삼이고, 중간줄 왼쪽 끝이 류인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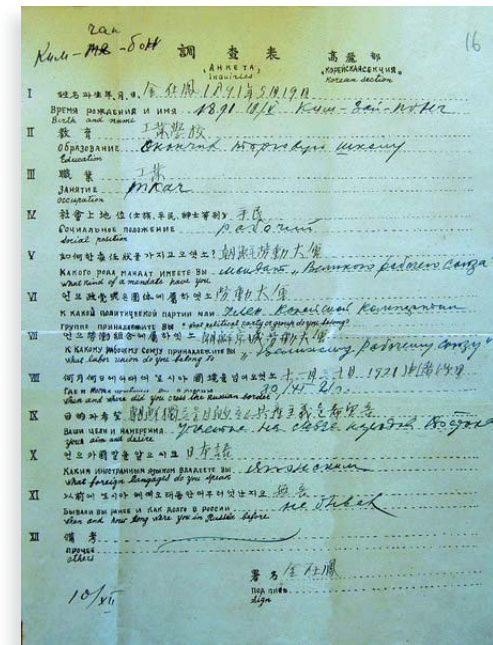
● 안동지역 사회운동의 효시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안동지회이다. 또 농민운동도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1923년에 조직된 풍산소작인회(豊山小作人會)이다. 이들과 연계된 조직으로 화요회(火曜會) 안동지회 성격을 가진 화성회(火星會), 1925년 조직된 조선공산당 및 노우회(勞友會)·정광단(正光團) 등이 있었다. 한편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독립운동단체 사이에 분화가 일어나자, 이를 통합하려는 활동이 나타났다. 그 결과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고, 1927년 8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신간회안동지회가 설립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 조선공산당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운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안동에서는 1931년 안동콤(코뮤니스트)그룹이 조직되어 농민·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 대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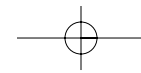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1910년대 류인식(柳寅植)이 민족교육을 위해 편찬한 역사서. 협동학교 교재로 사용되었다.

### 협동학교 제1회 졸업생인 김성로(金聲魯) (임하 천전)의 졸업장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조선노동대회 대표로 참가한 김재봉(金在鳳)의 조사표(調査表). 조사표의 목적과 희망 항목에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고 공산주의를 희망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재봉(金在鳳)이 사용한 비루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1929년 안동 청년동맹(安東靑年同盟) 제2회 정기대회 모습. 건물 기둥에 안동 청년동맹안동지부·안동 노우회(安東勞友會)·조선일보안동지국·안동○○유학생회 등의 현판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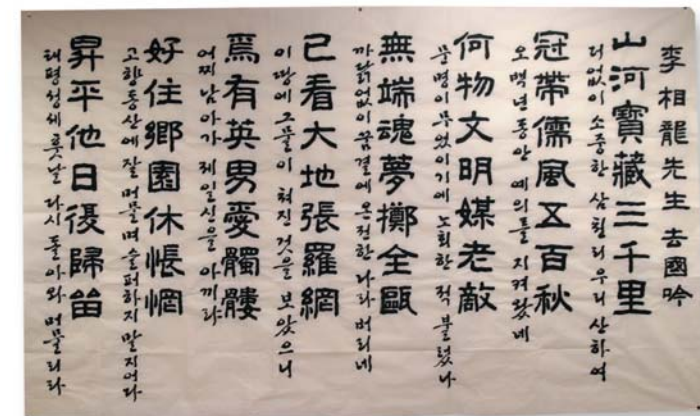


1945년 8월 18일 안동농림학교 학생들의 해방 후 출옥기념 모습.



### 안동인의 해외항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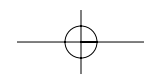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국외에서 활동한 안동출신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다.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많은 안동인은 만주로 망명하여 경학사(耕學社)·한족회(韓族會)·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등을 통해 동포사회를 형성하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나아가 1920~3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에서 핵심역할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열투쟁(義烈鬪爭)·한국광복군(韓國光復軍) 등에서도 많은 안동인이 활약하였다. 특히 안동인이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한 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전시하고 있다. 또 김동삼(金東三)이 1923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 의장에 취임하는 장면을 매직비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 거국음 去國吟

1911년 이상룡이 나라를 떠나면서 지은 것으로 온 몸을 다 바쳐 나라를 다시 찾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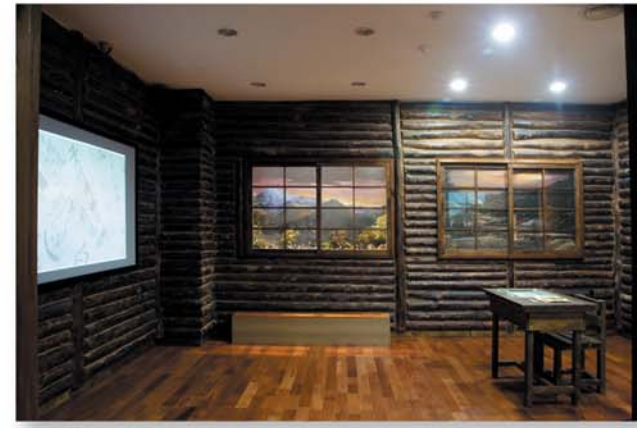


“이주하는 글”  
(김대락金大洛, 『백하일기白下日記』, 1911년 1월 9일)

“九日 晴 留置裝束尙不付來 臥無褥食 無門之房 夜不堪處 捐資買具而釜鼎器皿諸件略備新處經過之計 自此稍免寒涼之慮 而不多資產幾入於浪費之中 可歎”

“두고 온 짐꾸러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누워도 요이불이 없고, 문 없는 방이라 밤을 지내기 어렵다. 가져온 돈을 털어 가재도구와 가마솥, 그릇 약간을 사서 새로운 거처에서 지낼 계획을 대략이나마 갖추었다. 이제부터 주위 걱정은 조금 면하겠으나 많지 않은 자금을 낭비하기 시작했으니 가히 한탄스럽다.”

서간도로 망명한 김대락(金大洛)이 1911년부터 1913년까지 쓴 망명일기이다.



● 1911년 5월 설립된 신흥강습소에서 시작해 무관학교로 발전한 신흥무관학교에는 많은 청년들이 입교해 군사훈련을 받았다. 1914년 설립되어 1918년까지 운영된 백서농장 또한 수많은 독립군을 양성한 무관학교였다. 통화현(通化縣) 첩첩산중에 설립된 백서농장의 최고 지휘자는 안동출신의 김동삼(金東三)이었다.



신흥무관학교 지리교과서

안동출신 이원태(李源台)가 저술한 배달족강역형세도(倍達族疆域形勢圖)(좌)와 채색강역형세도(彩色疆域形勢圖)(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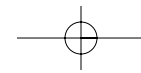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석주유고 石洲遺稿』에 실려 있는 경학사취지서 耕學社趣旨書

안동인들은 1911년 4월 길림성 유하현 삼원포에서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권기일權奇鎰이 만주에서 사용하던 도장

권기일은 1912년 만주로 망명하여 부민단과 한족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20년 8월 15일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김지섭 재판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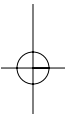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김시현 재판모습

- 의열투쟁이란 한 개인이나 소수 인력이 침략자 일제에 맞서 무력투쟁을 벌인 것을 말한다. 그 목표는 일반인이 아니라 침략의 원흉인 기관과 주요 인물만을 응징하는 것이다. 의열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는 의열단(義烈團)이었다. 안동출신으로 의열단원인 김시현(金始顯)은 1923년 2월 국내에 대량의 폭탄을 들여오다가 피체되었으며, 김지섭(金祉燮)은 1924년 1월 일본왕궁을 폭파하고자 이중교(二重橋)에 2개의 폭탄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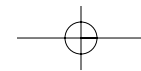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안동물문화관 >>>>



- 이육사는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조선은행 대구지점에 폭탄을 투척한 장진홍의거(張鎭弘義擧)에 연이어 체포되었고, 1931년 1월에는 대구에 격문을 붙였다가 2개월 동안 구속되었다. 또 1932년 중국으로 간 그는 남경에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 1기생으로 입교해 1933년 4월 졸업하였다. 1930년대 중·후반 신문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던 육사는 1943년 7월 또다시 검거되어 북경주재 일본총영사관 감옥에서 1944년 1월 16일 새벽 순국하였다.







## 안동물문화관

안동물문화관은 2층 지상 건물로 전시규모가 160평에 이른다. 1층에서는 안동지역 댐의 건설과정 및 댐주변 생태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으며, 2층은 물과 관련된 역사를 주요 테마로 하여 3D입체동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실 및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D입체동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실에서 상영되는 '방울이의 모험'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캐릭터인 방울이의 모험을 통해 살펴보는 안동댐의 생태계와 환경보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안동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는 아름다운 안동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안동물문화관과 함께 조성된 강변공원은 다종의 수목을 식재하고 전통정자 및 바닥분수 등을 설치해 놓아 물문화관과 연계한 새로운 시민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 관람시간 09:00~18:00
-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 / 추석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59-1257 / <http://andong.kwater.or.kr>
- ▶ 위치 경북 안동시 상아동 486-2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안동댐 방면(5분 소요)



## 제 1 전시실 : 댐과 생태

제 1 전시실은 안동지역 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으며, 댐 주변에 살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곳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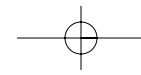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안동지역 댐 건설과 발자취

물이 흐르는 수로를 연상하는 파이프 형태의 터널을 지나면 안동지역 댐이 건설되었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낙동강 유역 댐보기

낙동강 유역에는 5개의 다목적댐이 운영중이며, 3개의 댐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제 1전시실 : 댐과 생태



#### 안동댐 발전소

핸들발전기로 안동시에 전기를 공급해보세요! 하나둘씩 켜지는 불빛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잊기 쉬운 전기의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 안동호 생태계

여기에서는 안동호 주변 생태계를 모두 감상하실 수 있어요. 안동호 주변에는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쉬리, 우아한 목을 가진 왜가리, 귀여운 멧토끼들이 뛰어 논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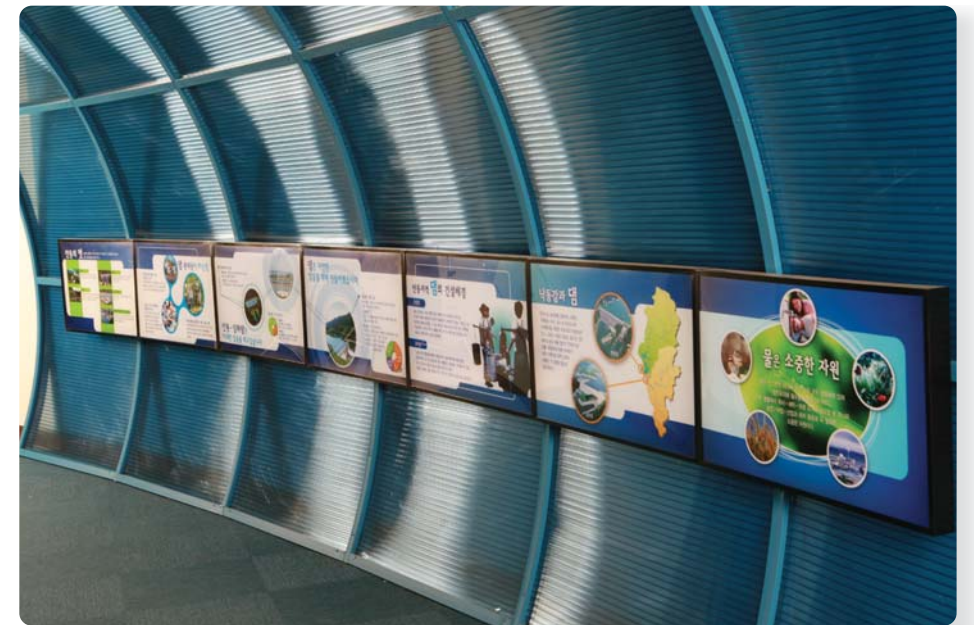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제 1전시실 : 댐과 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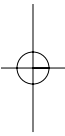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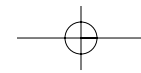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자연과 만나기

스크린 앞에서 팔을 펼쳐보세요! 나비가 손끝에 내려앉는 것이 보이죠. 급하게 몸을 움직이면 다시 놀라 달아난답니다.



#### 전시실 내부





### 제 2전시실 : 물 문화와 역사

제 2 전시실은 물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멋과 풍류를 살펴보고, 수물 이주민들의 추억과 애환을 공감할 수 있는 곳입니다.



#### 물과 안동의 유래

영남산에 위치한 성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래전부터 마을사람들에게 신성시되어 왔습니다.



#### 홍수와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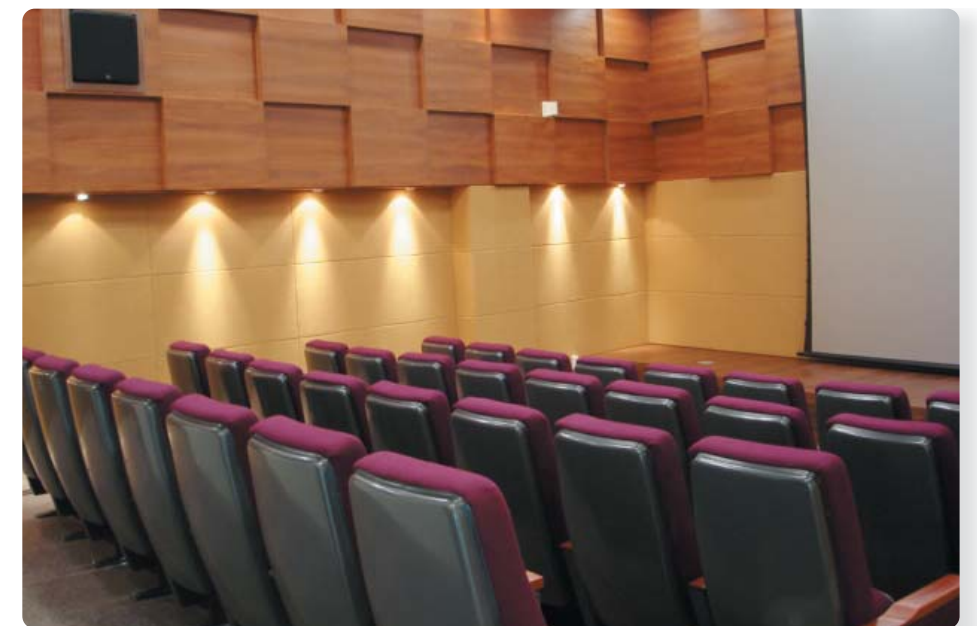
영호루는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피난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공민왕이 극진히 아꼈던 이곳은 3번의 대홍수를 겪고, 지금은 정하동에 중건되어 있습니다.

### 제 2전시실 : 물 문화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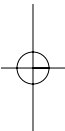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내가 살던 고향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을 떠난 수물 이주민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가슴 아픈 기억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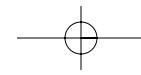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영상실

스릴 넘치는 3D입체영상애니메이션을 통해 안동호 속 세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 상영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영상실 입구에서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제 2전시실 : 물 문화와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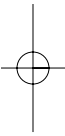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전망대

가슴이 탁 트이는 옥외 전망대와 실내 전망대에서 전경을 감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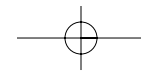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 전시실 내부

안동소주 · 전통음식박물관  
>>>>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안동소주 · 전통음식박물관

안동소주 · 전통음식박물관은 경북 무형문화재 12호 · 전통식품 20호로 지정되어 있는 안동소주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조사 · 연구함과 동시에 전통 음식을 홍보 · 전수 · 전시하여 국민의 전통문화 보존의식 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안동소주는 알코올 도수 45도로서 신라시대 때부터 마셔온 증류식 소주이다.

박물관에는 안동소주의 유래와 제조과정, 민속주의 종류, 술의 계보, 시대별 술병 · 술잔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199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안동을 방문했을 때 조옥화 여사가 차렸던 여왕 생신상, 안동의 향토 음식, 평생의례 음식, 수라상 등 한국 전통음식의 다채로움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해마다 안동소주 제조 시연회 및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과 문화유산의 전승 · 보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시음장도 갖추고 있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안동소주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 ▶ 관람시간 10:00~17:00
- ▶ 휴관일 연중무휴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58-4541 / <http://www.andongsoju.net>
- ▶ 위치 경북 안동시 수상동 280번지
- ▶ 찾아가는 길 영호대교 건너서 우회전, 대구방면 1km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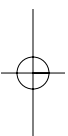
**누룩 麴** 10×7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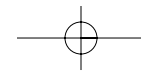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민속주를 만들 때 필요한 한국 고유의 발효제이다. 술을 만드는 효소를 갖는 곰팡이를 번식시킨 것으로 둥근 모양 외에도 네모난 모양이 있다.



**누룩틀 麴環** 10×25×25

누룩을 성형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써 누룩틀, 누룩고리라고도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시루 甑** 23×29.5×41

쌀이나 떡 등을 찌 때 쓰는 고유의 찜기. 안동소주를 제조할 때에는 누룩과 함께 멥쌀이 필요한데, 이 멥쌀을 찌 때 쓴다.



**소주고리 甕瓶** 65.8×45.3×24.2

소주를 내리는 데 쓰이는 그릇. 구리나 오지로 두 짝을 겹쳐 놓게 만들었는데, 위쪽은 아래가 좁고 위가 넓으며, 아래쪽은 아래가 넓고 위가 좁게 되었다.



**소주반이 燒酒** 19×8.7×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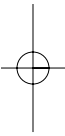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전술을 증류시켜 소주를 받을 때 쓰는 물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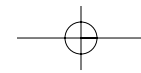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신라토기방울잔 新羅土器鈴盞**

19×8.7×10.3

전술을 증류시켜 소주를 받을 때 쓰는 물건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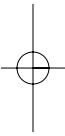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조대비 회갑상

회갑(回甲)은 화갑(華甲/花甲) 주갑(周甲), 환갑(還甲)이라고도 한다.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쳐서 60갑자(甲子)가 되므로 태어난 간지(干支)의 해가 다시 돌아왔음을 뜻하는 61세가 되는 생일이다. 일생에 있어서 회갑을 맞이하는 것은 큰 행사이고 축제였다. 궁중의 상차림은 행사의 목적, 경사의 뜻에 따라 달라졌는데, 이것은 조선 후기 고종을 왕위에 세우고 흥선대원군과 함께 수렴청정한 조대비의 회갑상으로 여러가지 진귀한 음식들로 차려졌다.



### 안동의 향토음식

안동은 곡류를 주식으로 삼았지만 쌀이 귀하여 잡곡밥을 많이 먹었다. 이밥이라고도 하는 쌀밥은 집안의 어른들이나 손님상에만 올렸으므로, 제사나 명절 또는 잔치 때만 온 가족이 모두 먹을 수 있었다. 별식으로 유명한 것은 안동식혜와 안동소주, 건진국수 등을 들 수 있다. 시절식으로는 설날의 떡국, 정월 보름의 찰밥과 오곡밥, 단오절의 쫄떡, 북날의 닭개장, 중국의 송편, 동지의 팔죽을 들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배추전을 제사 때나 잔치 때 절식으로 쓰는 것이 안동 지역의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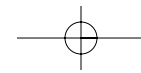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여왕상

1999년 4월 21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곳 '안동'을 방문하였다. 이때 마침 여왕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2호인 안동소주 기능보유자 조옥화 여사가 직접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문어오름과 매화나무로 만든 꽃떡 등 47가지 음식으로 생일상을 차려 여왕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 폐백음식

혼례가 끝난 후에 신부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폐백이라고 한다. 이때 상에 올리는 음식이다. 폐백음식은 지방이나 가문에 따라 다르다. 서울 지방은 편포나 육포와 대추를 마련하고 술을 올리는데 안동에서는 편포 대신에 닭을 통째로 찌서 걸을 달걀지단이나 색지로 장식하여 올린다. 폐백은 청홍보로 싸고 보는 매듭을 짓지 않고 근봉이라고 쓴 글씨로 고리를 만들어서 끼운다. 보는 청홍을 안팎 겹으로 만들어 네귀에 술을 단다. 보에 쌀 때에 닭은 파란 색이, 대추는 붉은 색이 곁에 오도록 싣는다. 요즈음은 따로 구절판에 안주되는 음식을 마련하기도 한다. 폐백에는 대추나 밤을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다과상

찾아온 손님에게 후식 등으로 대접하기 위한 다과상이다. 다과상에는 약과, 한과, 다식, 정과류 등과 함께 차를 대접한다.



### 헛제사밥

우리 민족은 옛부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다. 제사의 마지막에는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둘러앉아 제상에 올랐던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이것을 음복이라 한다. 음복을 할 때 제상에 올랐던 나물 등을 밥에 비벼, 제사밥을 먹는데, 이 제사밥이 너무 맛있어 제사가 없는 날에도 제사 음식처럼 차려 먹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밥을 해 먹는 것을 헛제사밥이라고 한다.(구성: 흰밥, 헛제사밥나물, 제사모듬반찬, 탕)



### 추석 손님상

상어파산적, 사과-배-밤, 청포, 박정과, 오이김장, 육전골, 안동식혜, 수정과, 떡잡채, 삼색전, 삼색북어보푸라기, 백김치, 강정, 사태편육, 꼬리떡, 약과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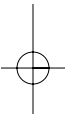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 건구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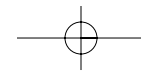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마른안주를 담아놓은 구절판이다.



### 신선로

신선로는 갖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 만든 귀한 음식이니 열구자탕(悅口子湯)이라고 한다. 산해진미를 모두 담아 끓여 한 그릇으로 여러 가지 맛과 영양소가 함께 섭취될 수 있도록 만든 음식으로 전골의 하나이다. 신선로는 조선시대 중기 정치적 혼란기에 한 선비가 세속을 떠나 산중으로 은거하여 살던 때에 한 그릇에 여러 가지를 모아 만든데서 시작하였는데, 그 선비의 생활풍습이 마치 신선과 같아 신선로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의 확실한 논거는 미상이지만 한 그릇 음식으로서 합리적인 요리의 하나이며 회식석상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요리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안동소주상

마른안주, 족편, 나박김치, 모듬구이, 육회, 밀전병



### 다식

다식은 깨(흰깨, 검은 깨), 콩(백태, 청태), 찹쌀, 송화, 녹두, 녹말 등을 가루내어 꿀로 반죽한 다음 모양틀에 찍어 낸 과자로 녹차와 곁들여 먹으면 차 맛을 한층 더 높여 준다. 다식 반죽을 하여 꼭꼭 눌러 찍어 내어 색색으로 돌려 담으면 화려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다양하게 각각의 맛을 낸다. 분홍, 검정, 갈색, 노랑, 흰색의 다섯 가지 색을 만들어 팔각진 목기나 둥근 목기에 돌려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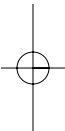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한과

한과류는 곡물가루에 꿀,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모양, 물고기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한국 고유의 과자류이다. 주로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먹는 한과는 차나 화재를 곁들이는 수가 많다. 한과는 만드는 법이나 쓰는 재료에 따라 크게 강정류, 유밀과류, 속실과류, 과편류, 다식류, 정과류, 옛강정류 들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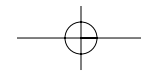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









##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은 총 171,630㎡의 부지에 옥내박물관과 야외박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옥내박물관에는 안동지방 문화의 특징인 유교문화, 특히 관혼상제를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이 지방 특유의 민속놀이를 모형전시하고 있으며 영상 관람을 위하여 시청각실과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야외박물관에는 보물인 석빙고를 비롯하여 안동댐 건설시 수몰지역에 산재하던 전통 고가옥 등 20여점의 중요 생활문화 자료들을 이전·전시하고 있다.

안동의 유교문화와 독특한 생활문화의 주제로 나뉜 옥내박물관은 평생의례를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제1 전시실에는 아기점지부터 어린이 성장까지 전시되어 있고, 제2 전시실에는 관례부터 제례까지 전시되어 있다. 평생의례는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가지 의례를 일컫는 말이다.

생활문화 측면에서 보면 제1 전시실에는 서민들의 생활문화가 전시되어 있고 제2 전시실에는 양반들의 생활문화가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동문화권의 민속놀이는 제3 전시실에 모형으로 연출·전시되어 있다.

특히 안동문화권 내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평생의례와 상·장례(喪·葬禮)와 의·식·주 등의 생활문화, 각종 민속놀이를 재현·전시하고 있으며 야외박물관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빙고를 비롯하여 전통 고가옥 등 17점의 건축자료들을 이전·전시하고 있다.

또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주변에는 KBS드라마촬영장, 월영교, 안동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안동의 주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 **관람시간** 09:00~18:00

▶ **휴관일** 연중 무휴

▶ **관람료**

일반(19세~64세) 1,000(30인 이상 단체 800원)

어린이, 청소년, 군인 300원(30인 이상 단체 2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문의** 054-821-0649 / <http://adfm.or.kr/>

▶ **위치** 경북 안동시 성곡동 784-1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월영교를 지나 500m 이동 후 영락교를 건넌(7분 소요)

### 평생의례



### 기자의례 祈子儀禮

우리 조상들은 생명을 점지해 주는 신령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가지기 위해 생명을 점지해 준다고 믿는 신령한 존재를 찾아가 음식을 차려 놓고 기도를 드리며 정성껏 비는 일을 한다. 이를 자식 낳기를 빈다고 하는 뜻에서 한자말로 '기자석(祈子)' 의례라고 한다. 전시물은 '기자석(祈子石)'에 자식 낳기를 비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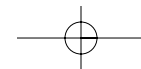
### 산속 産俗

어머니가 아기를 배게 되면 이 때부터는 기르는 일을 한다. 뱃속에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며 행동도 조심스럽게 한다. 해산방은 부모의 가족 내 서열에 따라 결정된다. 산실은 산모가 평소에 거처하던 방이나 시어머니가 거처하고 있는 큰방으로 정해서 그 방을 따뜻하게 해놓고 방바닥에 짚을 깔다. 산모의 머리 위에는 지양상을 차려놓는데, 그 옆에는 출산시 태를 끊을 때 필요한 가위와 실, 아이에게 입힐 옷 등을 준비해 둔다.



### 관례 冠禮

아이가 자라서 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는 의례를 한다. 사내아이는 상투를 틀어 주고 갓을 쓰게 하며 자(字)를 지어 주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도록 하는데 갓을 씌워주는 의례라 하여 이를 관례라 한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머리를 쪽지어 처녀로 인정해 주는 이를 계례(笄禮)라 한다.



### 혼례 婚禮

남녀가 성숙하게 자라서 관례와 계례를 마치면 성인으로 인정받아 혼인하게 된다. 전통 혼례에 있어서 배우자의 선택은 혼인 당사자의 의견 보다는 집안 어른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된다. 혼인은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자, 연길, 물목단자 등 공식적인 문서를 주고받으며 결정되고 혼례식은 신부의 집에 가서 올린다.



### 회갑 回甲

사람이 태어나서 만으로 60회가 되는 생일을 회갑, 환갑(還甲)이라 한다. 태어난 해의 간지(干支)가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뜻이다. 회갑 때에는 회갑잔치라 하여 자손들이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한다.



### 상례 喪禮

상례는 사람이 숨을 거둔 후 장사 지낼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를 말한다. 효를 예(禮)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유교적 관념에서는 부모의 상을 당한 것을 큰 불효의 하나로 여기고 장례를 잘 지내려 하였다.



### 제례 祭禮

제사는 사람이 죽어도 혼백은 남아 있으므로 살아 있을 때처럼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조상숭배사상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발전해왔다. <예서 禮書>에 따른 한국의 보편적인 제례는 사당제(祠堂祭)·사시제(四時祭)·이제(爾祭)·기일제(忌日祭)·묘제(墓祭)의 5가지가 있다.

**주생활** | 안동지역은 고건 축박물관이라 일컬어질 만큼 옛건축물이 고스란히 잘 남아 있는 곳이다. 이름난 반촌의 종가와 재실, 그리고 훌륭한 정자와 서원 등 규모 있는 전통 와가(瓦家)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물론 예사 사람들의 살림집이 초가 삼 칸에서 여섯 칸 겹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남아 있다.



### 인궤 印櫃

도장을 넣어 두는 궤  
•가로 : 19.5cm, 세로 : 19.5cm, 높이 : 24.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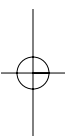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 문서반닫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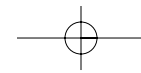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문서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 반닫이이다.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반닫이와 달리 천판이 경상과 같이 두루마리개 판의 형태를 띤 것으로 예천지방에서 주로 생산되어 예천 반닫이라고도 부른다.  
•가로 : 99.0cm, 세로 : 40.0cm, 높이 : 87.0cm



### 사방탁자

사방탁자는 사랑방 가구의 대표적인 한 형태로 사랑에 판재를 대지 않아 딱혀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서책을 쌓아두는 것 외에 한두 층에 도자기 등의 소품을 놓기도 한다.  
•가로 : 54.8cm, 세로 : 37.4cm, 높이 : 116.3cm





**식생활** | 안동은 지리적으로 내륙에 속하는 지역이므로 곡채식을 주로 하였다. 자연히 음식상이 소박하고 향토색이 짙다. 내륙에 속하므로 해산물이 귀한 대신에 콩이 많이 나므로 산과 들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을 콩가루로 문혀 조리하는 음식이 많다. 일반적으로 안동 음식은 맵고 짜다. 전통의 고장이어서 여러 가지 의례가 많고 그에 따른 손님맞이가 잦으므로 한번 장만하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의생활** | 안동지역에서는 유난히 두루막 차림의 갓 쓴 할아버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안동은 삼베의 고향으로 안동포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삼베는 통풍성과 흡습성이 강하고 질긴 자연섬유로서 여름 옷감으로 최상일 뿐 아니라 상복과 수의 등의 의례복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채독**

싸리나무나 버드나무를 엮어 모양을 만들고 독의 안과 밖은 한지를 바른 다음 바깥에 들기름을 발라서 만든다. 주로 옥수수, 콩, 감자 등을 저장한다.

- 입지름 : 36.3cm, 29.0cm,
- 밑지름 : 51.0cm, 36.5cm,
- 높이 : 87.5cm, 67.0cm



**기름틀**

콩, 깨 같은 식물의 기름을 짜는데 쓰는 기구

- 길이 : 58.8cm, 높이 : 20.5cm



**소주고리**

소주를 고아내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술을 끓일 때는 술지게미를 가마에 붓고 그 가마 위에 소주고리를 올려놓고 열을 가하면 열에 의하여 증발된 수증기가 소주고리 안면에 붙었다가 냉각되면서 술이 되어 대롱을 통해 흘러내린다.

- 입지름 : 35.0cm, 밑지름 : 42.5cm,
- 높이 : 62.0cm



**갈모**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비를 막는데 사용하였다. 종이에 기름을 입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였고 주름을 잡아 펼치기도 하고 접기도 하여 휴대하기가 간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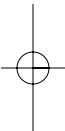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높이 : 3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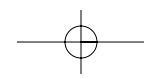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빗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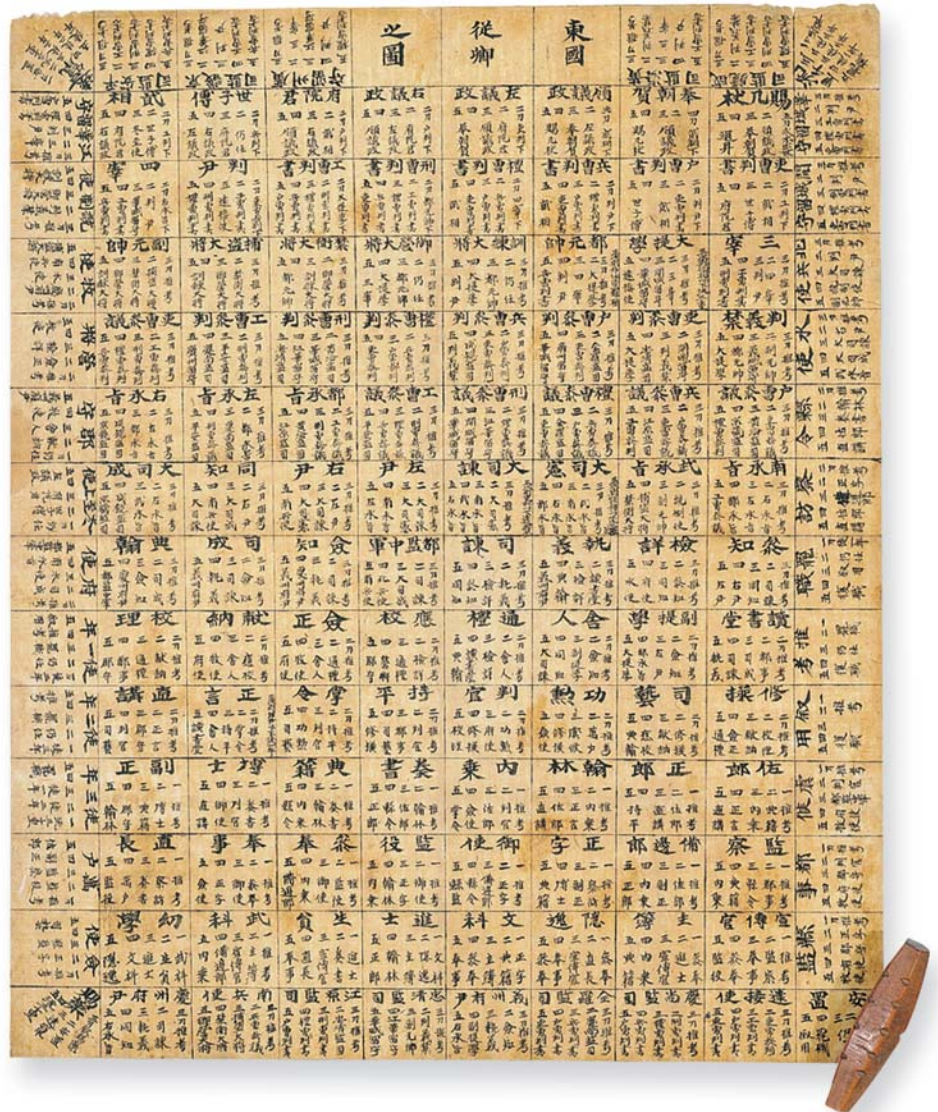
머리를 손질하는 데 필요한 빗·빗술·빗치개·뒤꽂이 등을 넣어두는 화장용 그릇

- 가로 : 19.3cm, 세로 : 28.8cm, 높이 : 2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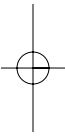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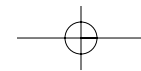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 >>>>

## 宗敬道

宗敬도는 '벼슬살이하는 도표' 라는 뜻으로 승경도, 승정도, 종정도라고도 한다. 이 놀이는 주로 양반집의 아이들이 즐겨서 하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어릴때부터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참살이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안동지역에 산재한 '한(韓)' 브랜드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마련한 안동자연색 문화체험관은 전통의상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2008년 7월 개관하였다. 주로 체험과 전시, 판매와 교육공간으로 구성된 안동자연색 문화체험관에서는 천연염색, 규방공예, 민화, 누비, 전통자수, 전통매듭 등의 강의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천연염색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규방공예체험의 일종인 책갈피, 핸드폰줄, 향주머니, 버전본집 만들기, 민화그리기와 함께 자연염색체험의 일종인 손수건, 스카프 만들기 및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실과 체험실을 갖추어 두고 있다.

###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1월1일 / 설날 / 중추절

### ▶ 관람료 무료(체험비 별도)

### ▶ 문의 054-840-5301

### ▶ 위치 경북 안동시 상아동 477-4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월영교를 지나 300m 전방(5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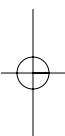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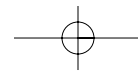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국모란 삼베발  
김춘화



여의주 운보 벽걸이  
김연호





박물관의 도시 안동 >>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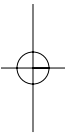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매듭  
김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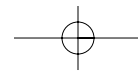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안동포가방  
박국화



웃놀이판  
김순화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수저집과 고아맹기  
유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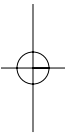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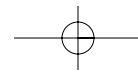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조각보  
조순희



바람과 별  
박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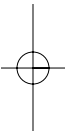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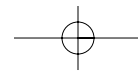


삼배화접도6폭병풍  
임영숙

안동포타운  
>>>>







## 안동포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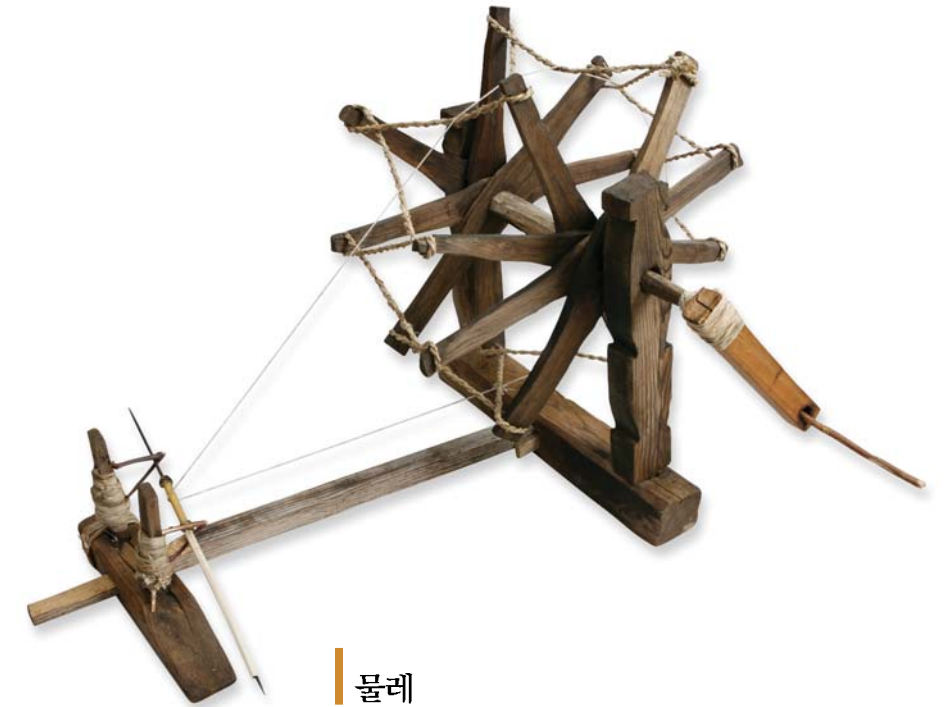
안동포는 영포(嶺布)라 불리는 영남지역에서 생산하는 삼베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져 왔다. 일찍이 신라 선덕여왕 때 베짜기 대회에서 이름을 날려 진상품이 되었으며 화랑들도 이를 즐겨 입었다고 하는데 경주 고분에서 발굴된 유품에도 뛰어난 기술로 직조된 마직물이 있다. 조선시대에도 궁중 진상품이었으며 지방특산물로 지정되어 널리 알려졌다. 삼베 길쌈은 삼의 품질에 따라 크게 생냉이 길쌈, 익냉이 길쌈, 무삼 길쌈으로 나뉜다. 가장 부드럽고 고운 것으로 생냉이를 짜는데 이것이 안동포이다.

생냉이의 경우 1폭당 보통 10새나 11새, 익냉이의 경우 7새, 무삼은 5새로 짠다. 새[升]는 옷감의 곱기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경사 80올이 1새에 해당한다. 올수가 많으면 그만큼 옷감의 곁이 고와진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값싸고 질이 뛰어난 섬유가 대량생산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안동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따라 직조기능 보유자의 숫자도 감소하였다. 현재 안동포 직조기능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천년의 맥을 이어온 안동포를 체험할 수 있는 안동포타운이 개관하여 눈길을 끌고 있는데 안동포 타운의 전시실에는 우리나라의 문헌 속에 나타나 있는 안동포의 우수성과 안동포의 생산과정, 그리고 안동포로 만들 수 있는 생활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 ▶ **관람시간** 09:00 ~ 18:00(월요일 휴관)
- ▶ **휴관일** 월요일
- ▶ **관람료** 무료(체험비 별도) 체험비 5,000원
  - 안동포마을 농촌체험(계절별), 안동포 복주머니 만들기
  - 안동한지체험 및 하회탈 만들기
- ▶ **문의** 054-840-5314
- ▶ **위치**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028-14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영덕방면 34번 국도이용 후 안동대학교 앞에서 포진교로 우회전하고 길안방면으로 좌회전하여 7km지점(3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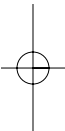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물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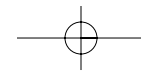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솜이나 털 따위의 섬유를 자아서 실을 만드는 수공업적인 도구



### 삼바구니

삼뿔으로 짰고 훤은 가닥실을 담아 놓는 바구니





박물관의 도시 안동



### 북

베틀에서, 낱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도구. 베를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 모양으로 생겼다.



### 바디

베틀, 가마니틀, 방직기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 가늘고 얇은 대오리를 참빗살같이 세워, 두 끝을 앞뒤로 대오리를 대고 단단하게 실로 엮어 만든다. 살의 틈마다 낱실을 꿰어서 베의 날을 고르며 북의 통로를 만들어 주고 씨실을 쳐서 베를 짜는 구실을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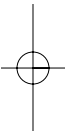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삼두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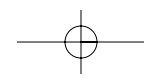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말려둔 삼겹질(皮麻)을 물로 축여 왼손에 피마를 잡고, 오른손으로 삼톱을 잡고 끝에서 끝으로 훑어서 최외피를 벗겨내고 난 후 그리고 손톱으로 일일이 켜 다음 손톱으로 짚고 훑어내려 가닥을 낸 후 쪼개진 삼은 상. 하품으로 등급을 매겨 같은 등급끼리 묶어서 '삼두가치'에 건다. (이 과정에서 포의 섬세도가 가름됨)



### 삼톱

말린 삼겹질을 물로 적셔서 손과 삼톱으로 짚고 훑어내려 가닥(실)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





# 안동포 제작과정



- 1 **삼의 절삭과 수확**  
파종과 수확
- 2 **삼 찌기**  
삼을 찌 때 쓰는 가마인 '삼곳'에서 삼을 찌낸다.
- 3 **짜낸 삼 말리기**  
삼곳에서 찌 낸 삼은 단을 틀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말린다.
- 4 **겉껍질 벗기기**  
햇볕에 바짝 말려 놓은 삼을 물에 담구어 불린 뒤에 겉껍질을 벗겨 낸다.
- 5 **겉껍질 훑어 내기**  
벗겨 낸 겉껍질에서 다시 겉껍질을 훑어 내는 안동포 길쌈만의 독특한 과정을 거치는데, 겉껍질을 훑어낸 속껍질을 '계(계)추리'라고 한다. 겉껍질을 삼으로 훑어내고, 남은 속껍질만 찌고 삼아서 익히지 않고 날로 미서 쥘다. 익히지 않은 날로 쥘다고 하여 선낭이라고 한다.
- 6 **계추리 바래기**  
계추리의 머리 쪽, 즉 삼 뿌리 쪽을 위로 모아 조금씩 묶은 뒤에 햇볕에 널어 바린다. 벌여 오려 잘 버릴 수독식이 곱고 더 질기다.
- 7 **삼 찌기**  
벌여 바린 삼 껍질을 물에 적셔 마른 수건으로 다독인 다음 손톱으로 가늘게 찌낸다. (찌고자 하는 비의 시숙에 맞춰 굵기를 조절)
- 8 **삼 삼기**  
삼 울의 골과 골을 일일이 손으로 연결한다. 이것을 '삼 삼는다'고 한다. 삼 울을 빼니 이틀 이용하여 두 길리로 가르고, 다른 울살의 골을 사이에 끼어 비벼서 이은 뒤 끝까지 '드터서' 침을 문헌후, 오른쪽 무릎에 대고 오른손 바닥으로 4~5번 비빈 다음에 삼는다.
- 9 **비 날기**  
새살은 꾸리로 감지만 날살은 날아야 한다. '날다'는 것은 한 필이든 두 필이든 정해진 길이를 맞춰 시수에 따라 울 수를 정해 날살을 가추는 것을 말한다.

**10 비 매기**  
비틀 찌 때 날살이 끊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날살에 풀을 먹여서 도투마리에 감는 것을 '비매기'라 한다. 이때 풀에는 원장을 섞으며 날살에 바른 원장 섞은 풀이 잘 마르도록 불을 지핀다. 이렇게 살이 매고럽게 되도록 불을 지피는 것을 '벧불'이라 한다. 풀칠-건조-도투마리감기-날살틀기-풀칠 등의 과정을 반복한다.

**11 비 짜기**  
비틀을 이용해서 비틀 쥘다.

## 안동포를 세는 단위

**필 :** 폭이 35~36cm, 길이가 40자(22m)인 안동포를 1필이라고 부른다. 보통 1자라고 하면 30.3cm이지만 삼베를 찌 때 쓰는 자는 55cm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다른 지방의 삼베의 경우 폭이 35~36cm, 길이가 20자(10m)를 1필이라고 하여 단위를 맞추지만 안동포와 남해포의 경우에는 40자를 1필로 친다. 울의 가늘고 굵음을 뜻하며 1새는 80가닥의 울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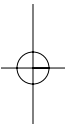
**새 :** 쉽게 말해서 같은 폭에 들어가는 울의 개수를 의미한다. 면적이 같은 곳에 한 새(80울)를 더 넣으려면 그만큼 울이 곱고 가늘어야 한다. 예를 들어 7새인 안동포의 경우 폭 36cm안에 560울(7새×80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가 클수록 그만큼 더 촘촘해 옷감은 더욱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지며 베를 짜는 시간도 많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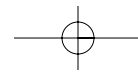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안동포 8새 (상괴 내기 전)



안동포 8새 (상괴 내기 후)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안동포 여자 저고리



안동포 남자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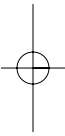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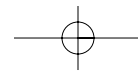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귀주머니 남·여 한세트 (옥사玉絲)



귀주머니 (옥사玉絲)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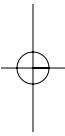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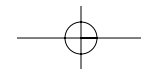
안동포로 만든 한복  
감무늬 천연염색

안동한지전시관  
>>>>









## 안동한지전시관

우리조상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하회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한지전시관은 우리 고유의 멋과 일이 간직된 전통한지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안동한지의 특징은 풍산의 풍부한 물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닥나무를 원료로 하여 노련한 기술자의 투철한 장인정신이 결부되어 순한지를 전통의 방법으로 생산하여 우수한 지질과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안동한지 공장내 「한지체험장」에서 직접 한지를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의 전통계승과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으며, 「상설전시관」에서는 닥종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전통한지공예품, 닥종이 인형, 한지패션, 서예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생활속에 한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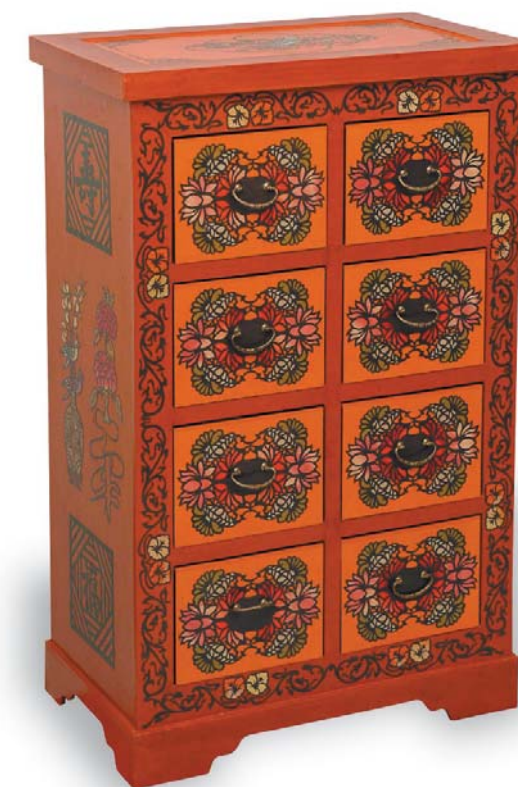
2008년 10월 10일 새롭게 개관한 전시관에서는 전통화와 한지섬유로 만든 한지직물, 새로운 한지조명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살아숨쉬고, 학생들은 학습의 장으로 이용 할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안동한지전시관은 안동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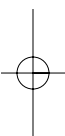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 ▶ 관람시간 09:00 ~ 18:00
- ▶ 휴관일 연중무휴
- ▶ 관람료 무료(체험비 별도)
- ▶ 문의 054-858-7007 / <http://www.andonghanji.com>
- ▶ 위치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산리 36-1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예천방면 34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풍산읍 방면으로 우회전, 안교사거리에서 하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된다.(소요시간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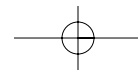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고비  
양귀속



8단 서랍장  
양귀속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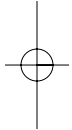


동백  
마진식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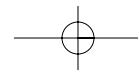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신선 부르는 호랑이  
호암 김태암



사람의 나무(목련)  
마진식 / 높이 3m 너비 4m



용호상박 龍虎相搏  
호암 김태암



박물관의 도시 안동



야생화 만남 속  
又田 마진식



책과  
양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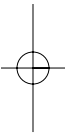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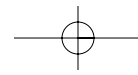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어룡등천 魚龍騰天  
호암 김태암



기억 속의 순수  
김숙희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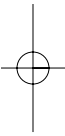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기다림  
김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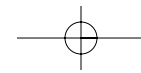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스펙트럼  
전은진

영모각 永慕閣  
>>>>







## 영모각 永慕閣

하회마을 충효당 사랑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영모각은 임진왜란시 영의정을 지내며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한 서애 류성룡 선생의 유물을 보존, 전시하고 있는 곳이다.

영모각은 서애 선생이 쓴 영모록(永慕錄)이라는 문구에서 따온 것으로 영모록은 서애 선생이 풍산 류씨의 세계(世系)를 집록(集錄)한 것이다.

‘영모’는 오래도록 그리워하고 기린다는 뜻이며 영모각 입구에 있는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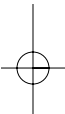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영모각 내에 전시된 유물은 국보 132호 징비록(懲禁錄)을 비롯하여 보물160호 류성룡종손가문적(柳成龍宗孫家文籍) 11종 22점과 보물 460호 류성룡종손가유물(柳成龍宗孫家遺物) 가운데 일부로 보물 160호는 임진왜란 때 도체찰사로 임금을 호종하면서 군무를 총괄하던 류성룡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쓴 기록과 임진왜란과 관련되는 문건, 자료 등이 일괄 지정된 것이고 보물 460호는 류성룡 선생이 직접 쓰던 것, 둘째, 선생의 어머니에 관한 곤문기, 그리고 선생에게 조정에서 내린 여러 문서들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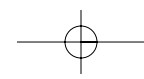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 ▶ 관람시간 09:00~18:00
- ▶ 휴관일 연중무휴
- ▶ 관람료 무료(하회마을 관람료에 포함)
- ▶ 문의 054-854-3669 / <http://www.hahoe.or.kr>
- ▶ 위치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844-3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예천방면 34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풍산읍 방면으로 우회전, 안교사거리에서 하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중리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소요시간 40분, 하회마을 내 소재)



### 갑자사마방목 甲子司馬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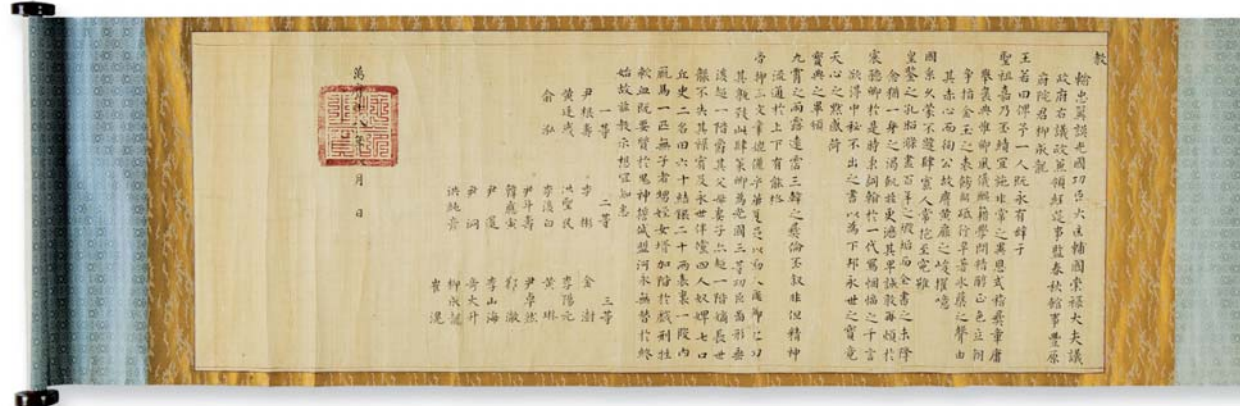
1564년 | 34.0×22.0cm | 풍산류씨 충효당  
1564년 소과입격자 명부. 류성룡은 3등을 차지하였다.  
1등은 이이(李珥), 2등은 서익(徐益)이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광국공신교서 光國功臣教書

1592년 | 46.5×174.0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류성룡을 광국공신 3등에 봉하는 교서.

병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이성계의 혈통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사신으로 파견된 윤근수 등이 수정하였다. 이와 관련해 공을 세운 신하들을 광국공신에 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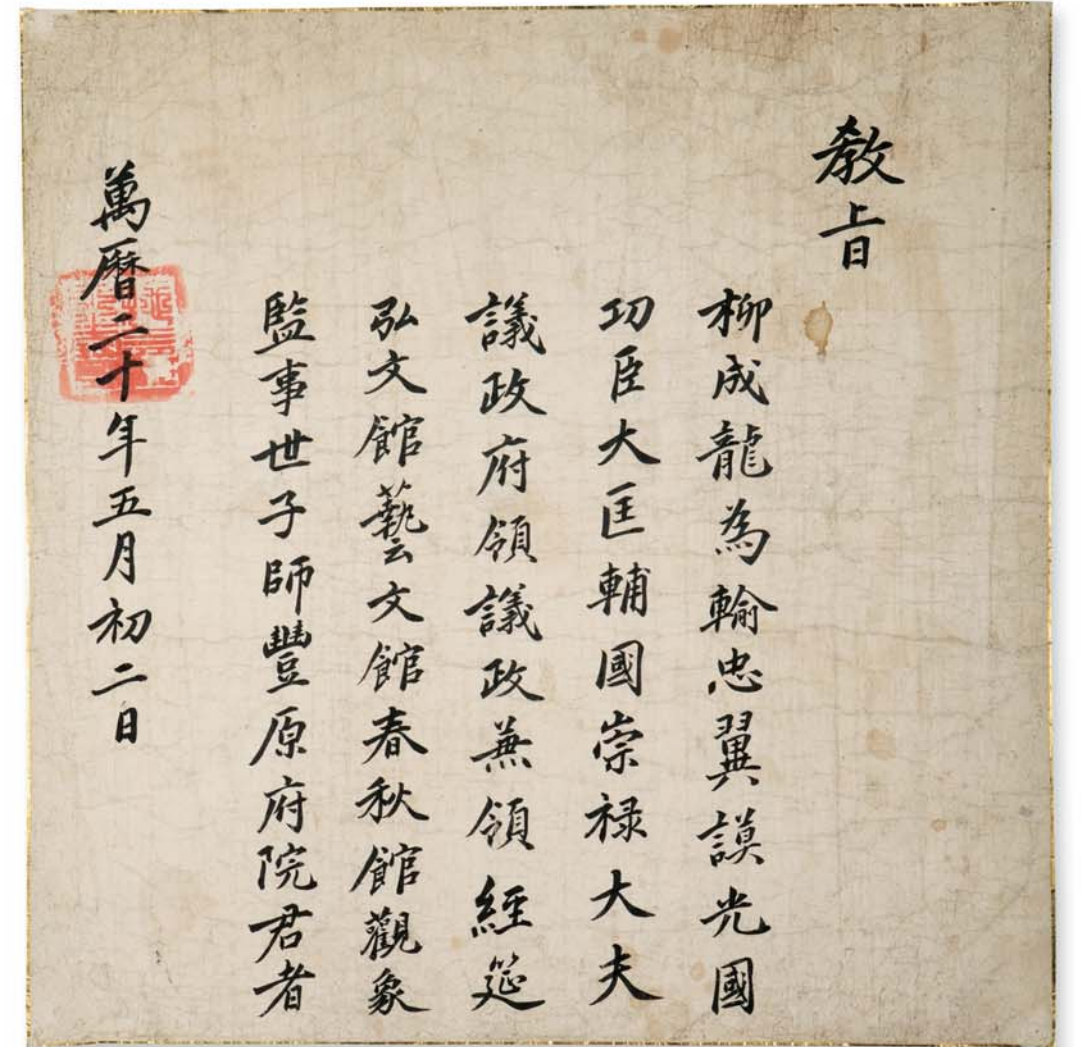
진관관병용모책 鎭管官兵容貌冊

1596년 | 39.5×27.0 | 풍산류씨 충효당

평안도 안주에 배속된 군인들의 신상명세서. 현재 550여 명의 명세 사항이 남아있다.

병사의 직역, 이름, 나이, 소속, 군현, 거주지, 키, 얼굴 모습, 수염, 근력(힘),

얼굴의 흉터, 주특기 등이 기록되어 있다. 『고문기성책』의 이면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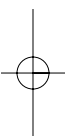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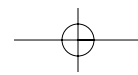
영의정교지 領議政教旨

1592년 | 76.0×76.0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류성룡이 영의정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의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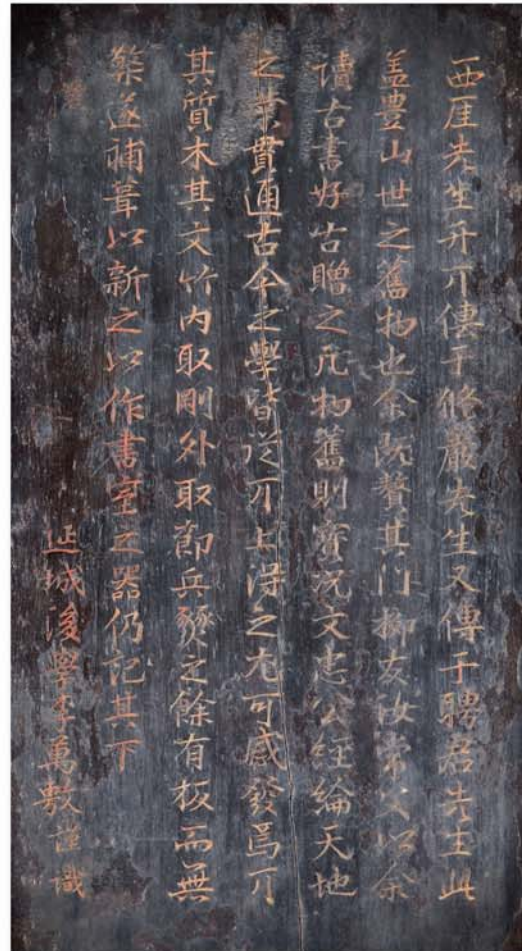
그러나 좌의정으로서 전란을 방비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어 하루 만에 파직되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경상 經床

16세기 | 56.5×30.0×25.5cm | 풍산류씨 충효당 류성룡이 사용하던 경상. 판 밑면에 숙종 때의 학자 이만부(李滿敷)가 경상의 전승 과정과 자기가 취득한 경위 그리고 수리 내역 등을 기록한 명문(銘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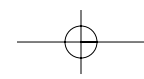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 동국지도 東國地圖

16세기 | 47.0×68.0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함경도와 평안도의 국경지대를 그린 군사지도. 북방 4도의 도체찰사에 임명된 류성룡은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북방군사 지도를 가지고 병력의 배치와 같은 현안을 고민 하였다.

「서애 선생의 대나무 서궤는 수암 선생에게 전해졌고 또 빙군 선생에게 전해졌으니, 이는 대개 풍산류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온 구물(舊物)이다. 내가 이 집 안에 장가든 뒤에는 벗 류려상 군이 내가 고서를 읽고 옛 것을 좋아한다 하여, 그것을 나에게 증여하였다. 무릇 물건이 오래되면 보배가 된다. 하물며 류문충공께서 천지(天地)의 사업을 경영하고 고금의 학문을 관통한 바탕을 모두 이 서궤 위에서 얻으셨으니 이 서궤에 대해서는 더욱 감격할 만하고 분발할 만하다. 이 서궤는 그 바탕이 나무이고 외장이 대나무이니, 속은 강건함을 취하였고 겉은 절제함을 취하였다. 그런데 병화(兵火)를 겪은 뒤 상판만 남고 받침대가 없어졌으므로, 마침내 없어진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 내 서실의 기물로 삼았으며, 이어서 그 밑 부분에 이 기문(記文)을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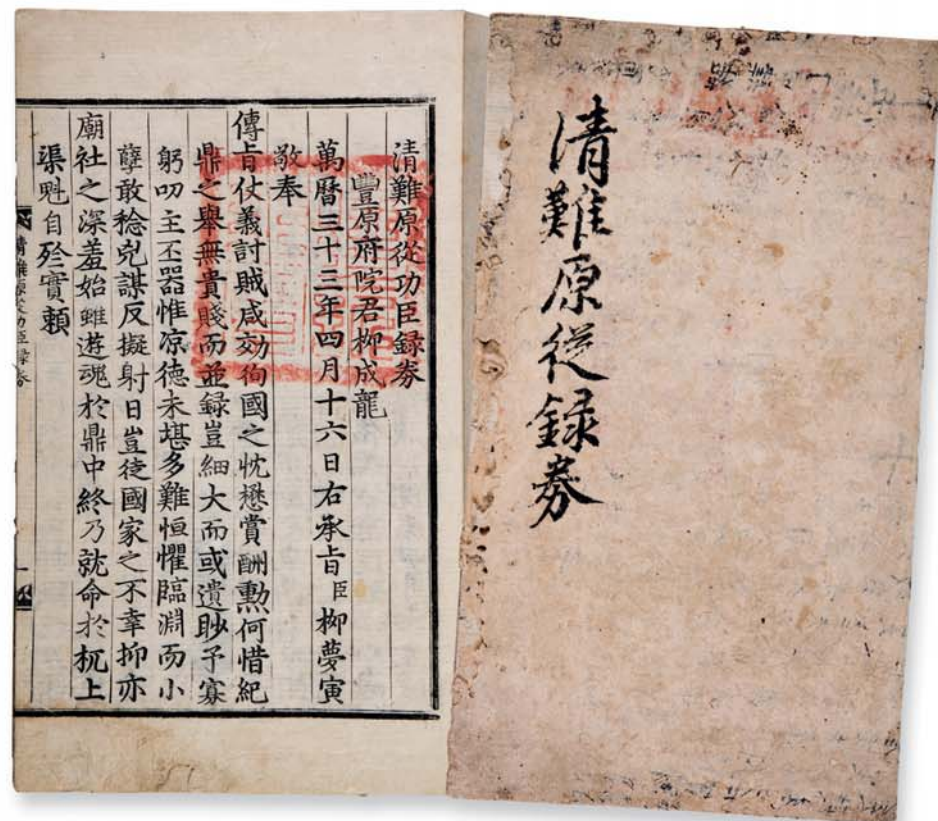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호성공신교서 扈聖功臣教書

1592년 | 76.0×76.0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임진왜란이 일어난 직후 류성룡이 영의정에 처음 임명되었을 때의 교서.  
그러나 좌의정으로서 전란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어 하루 만에 파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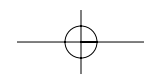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녹패 祿牌

1605년 | 92.0×65.0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광국공신(光國功臣)이면서 호성공신(扈聖功臣)이고 정1품 대방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류성룡에게 발급된 녹봉 지급 명령서. 녹봉수량은 그 문서에 의거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쳐 4번 할 수 있었다.



유서통 論書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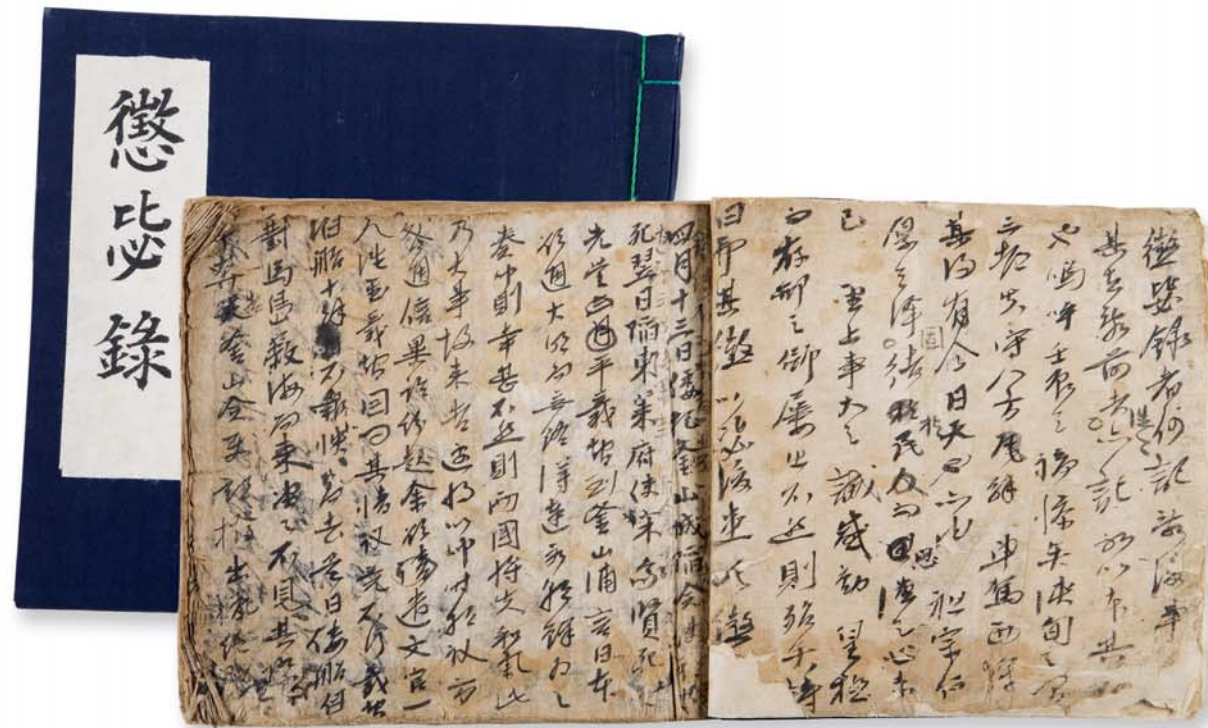
16세기 | 길이 48.5cm | 보물 제 460호 | 풍산류씨 충효당  
류성룡이 사용했던 유서통.  
류성룡은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기시를 받는 문서를 넣고 다녔던 통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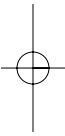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옥진각 玉振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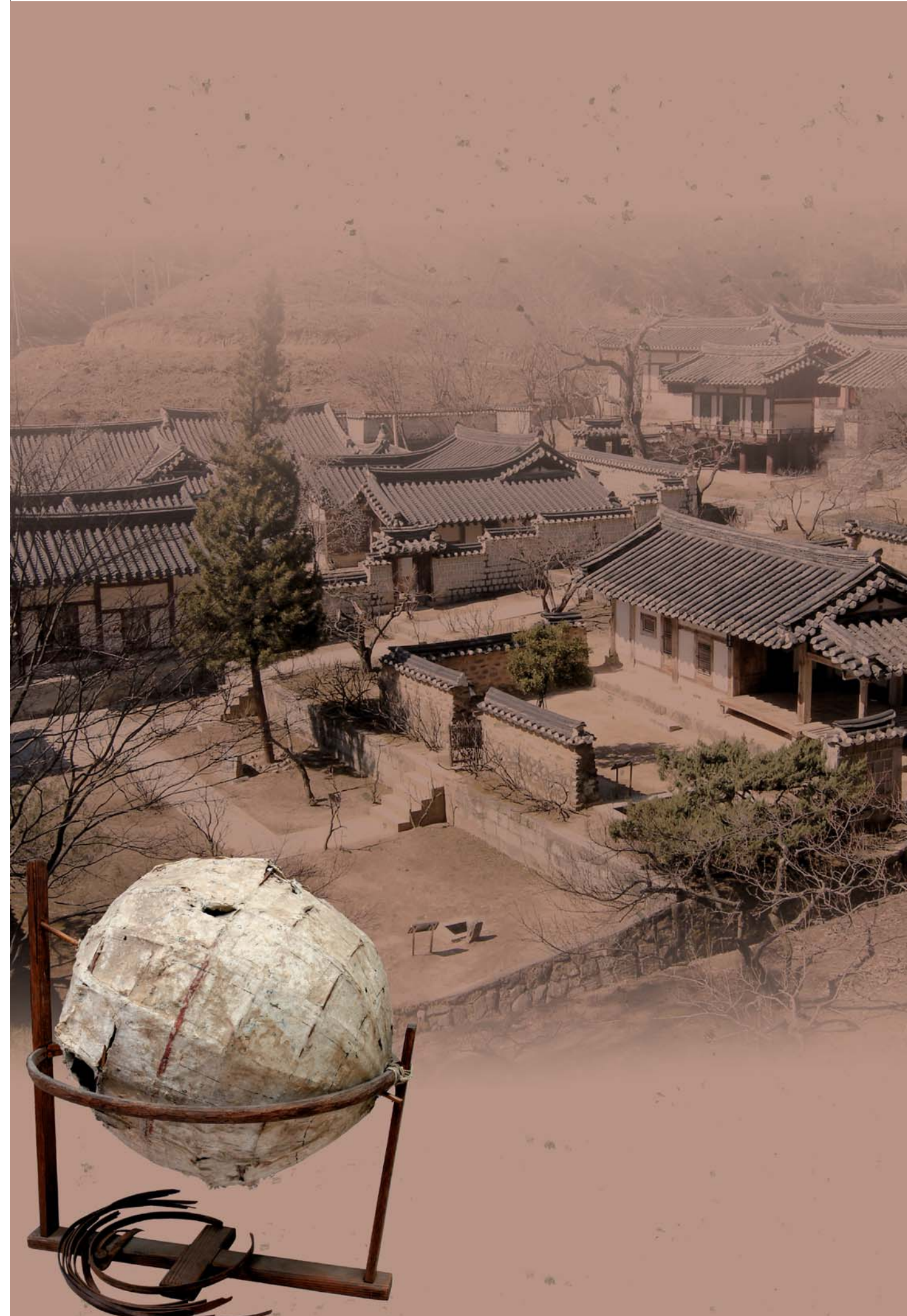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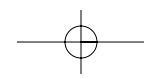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 징미록 懲必錄

17세기 초 | 27.8×25.3cm | 국보 제 132호 | 풍산류씨 충효당  
류성룡이 임진왜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정리한 책. 류성룡이 이 책을 저술한 이유는 임진왜란의 잘못을 반성하여 앞으로 닥쳐올 일을 대비하라는 데 있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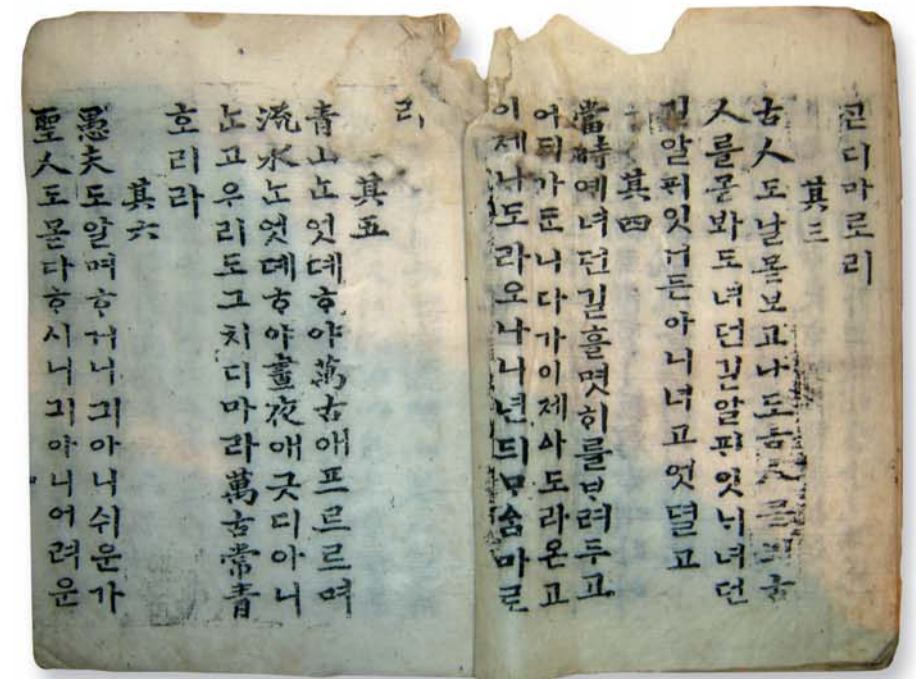
# 옥진각 玉振閣

도산서원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옥진각은 퇴계 이황 선생의 유물전시관이다.

옥진각은 '집대성 금성옥진(集大成 金聲玉振)'을 줄인 말로 '집대성했다는 것은 금소리에 옥소리를 떨친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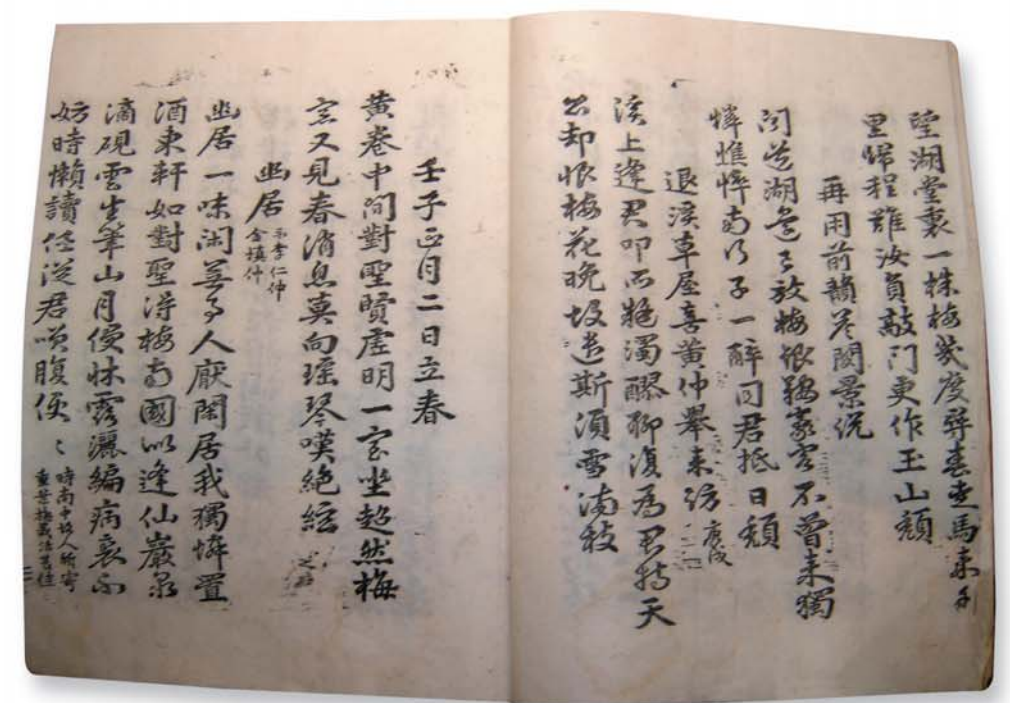
유물전시관은 1970년에 보수를 할 때 지은 건물로서 퇴계 이황 선생의 유품인 자리·베개 등의 실내비품과, 매화연, 옥서진 등의 문방구, 청려장·매화등·투호·훈천의 등이 소장되어 있다.

- ▶ 관람시간 09:00~18:00
- ▶ 휴관일 연중무휴
- ▶ 관람료 무료(도산서원 관람료에 포함)
- ▶ 문의 054-856-1073 / <http://www.dosanseowon.com>
- ▶ 위치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680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 35번 국도 이용, 도산서원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1.7km이동(소요시간 35분, 도산서원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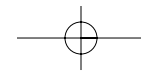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퇴계 선생이 도산의 산수를 소요하며 읊은 시조로서 친필 목판본이다. 언지(言志)편인 전(前) 6곡과 언학(言學)편인 후(後) 6곡을 합하여 도산십이곡이라 부른다.



## 매화시 梅花詩

1542년(중종37)~1570년(선조3)까지 28년 동안 매화에 관하여 지은 시를 모아 엮은 책이다.



**등경 燈檠**

• 크기: 세로 13cm 가로 16.5cm 높이 54.5cm  
등잔을 얹어 놓던 등잔거리로서 선생께서 사용하시던 유품이다.



**매화연 梅花硯**

• 크기: 높이 2.2cm 세로 29.5cm 가로 16cm  
단계산 자색의 돌로 만든 벼루로서 퇴계 선생의 문인 김북애(金北垓)의 봉증품(奉贈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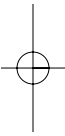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매화등 梅花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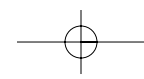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 크기: 높이 47.5cm 상경 30cm 하경 28cm  
매화 무늬가 놓인 청자기로 만든 걸상으로 선생께서 사용하시던 유품이다.



**백자타호 白磁唾壺**

선생께서 침을 뱉으실 때 사용하던 그릇으로 받침 접시 밑에는 '산(山)'자가 묵서(墨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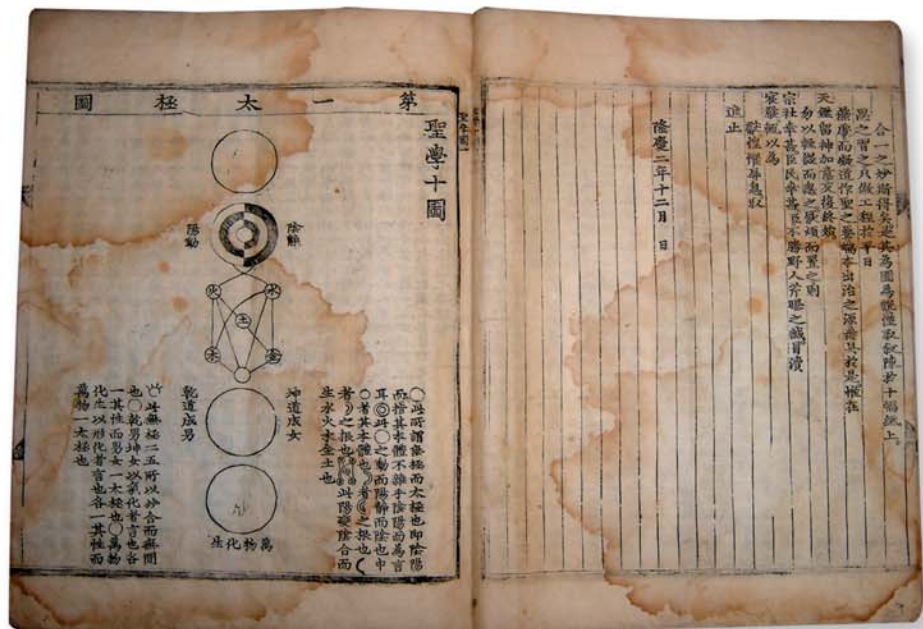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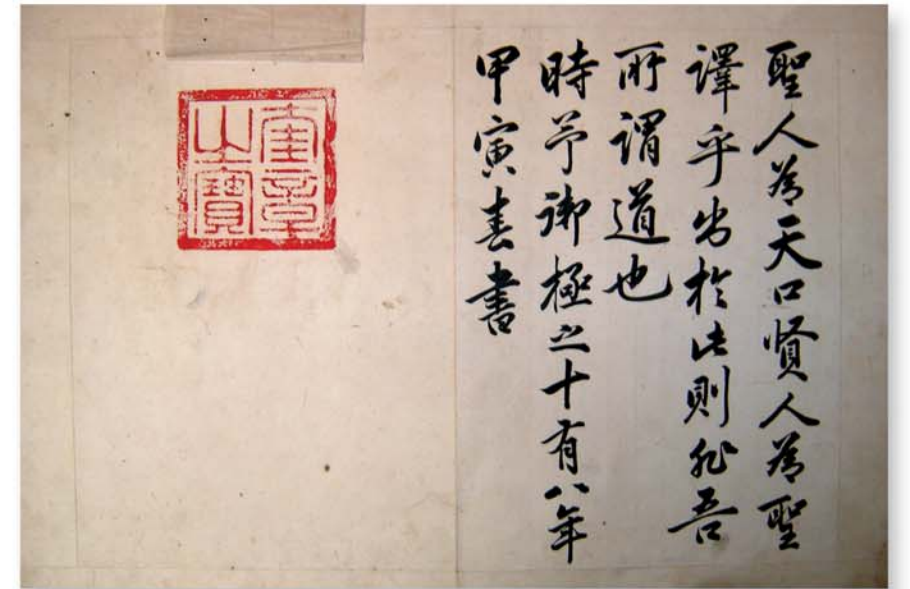
사문수간 師門手簡

제자 월천 조목이 평소 선생으로부터 받은 서간 106통, 시16편, 잡서 7편을 손수 작첩한 것으로 모두 8권이다.



성학십도 聖學十圖

유교 철학의 주요 체계 10가지를 도식(圖式)으로 나타낸 것으로 선생 68세(1568) 때 작성하여 선조대왕께 올렸다. 선조께서는 성학십도를 병풍(屏風)으로 만들어 좌우에 두고 보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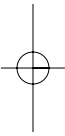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어제발문 御製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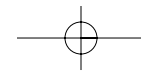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평소 퇴계 선생을 흠모하던 정조 임금이 1794년에 사문수간(師門手簡)을 열람하고서 그 소감을 지어 하사한 것이다. 선생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송재시집 松齋詩集

숙부 송재공(松齋公) 이우 시문집이다. 송재 사후에 조카인 퇴계 선생이 그의 저술 가운데 남아 있던 관동행록(關東行錄)과 귀전록(歸田錄) 등 시를 모아 선생 친필의 필사본으로 전하던 것을 선생의 제자이며 저자의 외종손인 오운이 1584년 충주목사로 있을 때 간행하였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완석 莞席**

• 크기: 길이 170cm 넓이 90cm  
왕골로 짠 자리 3개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 중 한 개의 배면에는 '이첨지택 퇴계(李僉知宅 退溪)'라는 자필 글씨가 있다.



**장추 長帚**

• 크기: 길이 80cm  
의미(薏苡尾)라고 하는 일년초로 만든 빗자루로서 선생께서 사용하시던 유품이다.



**청려장 靑藜杖**

• 크기: 길이 140cm  
푸른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로서 선생께서 사용하시던 유품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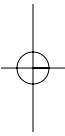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혼천의 渾天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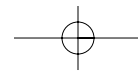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기구이다.  
구면(球面)에는 성좌의 위치가 그려져 있다.



**퇴계선생언행록 退溪先生言行錄**

조목(趙穆), 권두경(權斗經) 등 20여인이 차기(筆記)해 둔 선생의 평소 언행의 기록을 분류  
편집한 것으로 1613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목판본 6권 3책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투호 投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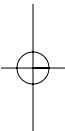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병(壺)을 놓고 일정한 거리에서 청·홍의 죽시(竹矢)를 병 가운데 구멍이나 귀구멍에 던져 넣는 기구이다. 일명 '정심투호(正心投壺)' 라고도 한다.



**서기 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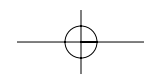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크기: 높이 27.5cm 세로 68cm 가로 38.6cm  
오색(烏色)의 목조 책상으로 선생께서 사용하시던 유품이다.

운장각 雲章閣  
>>>>









# 운장각 雲章閣

학봉종택 내에 위치한 운장각(雲章閣)은 학봉선생의 유물을 보관·전시한 유물관이다. 운장이란 말은 “저 넓디 넓은 은하수(倬彼雲漢), 하늘에서 빛나고 있네(爲章于天).” 라는 시경의 한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운장각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보물 905호와 906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보물 제 905호는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전적(鶴峰金誠—宗孫家所藏典籍)으로 56종 261책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전적을 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국조오례의』, 『삼강행실도』 등 28종 156책이 지정되었고, 필사본 중에서는 『퇴계사전초』, 『북정일기』 등 27종 85책이 지정되었다.

이 전적류들은 임진왜란 이전의 활자체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고문서 중에서 보물 제 906호로 지정된 학봉김성일종손가소장 고문서(鶴峰金誠—宗家所藏古文書)는 17종 242점이 일괄 지정되어 있다.

종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교지, 교서, 유서, 재산분배 기록인 분재기 등 10,000여 점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서간문(편지글)과 제사에 쓰인 제문은 제외되었다. 지정된 문서를 보면 교서 1점, 교지 및 첩지 59점, 첩 4점, 시권 7점 등이다.

이는 김성일 선생 개인의 전기를 파악함은 물론이거니와 의성김씨 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 ▶ 관람시간 10:00~17:00
- ▶ 휴관일 1월1일 / 설날 / 추석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52-2087
- ▶ 위치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856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예천방면 34번 국도 이용, 송야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924번 지방도 이용(소요시간 20분, 학봉종택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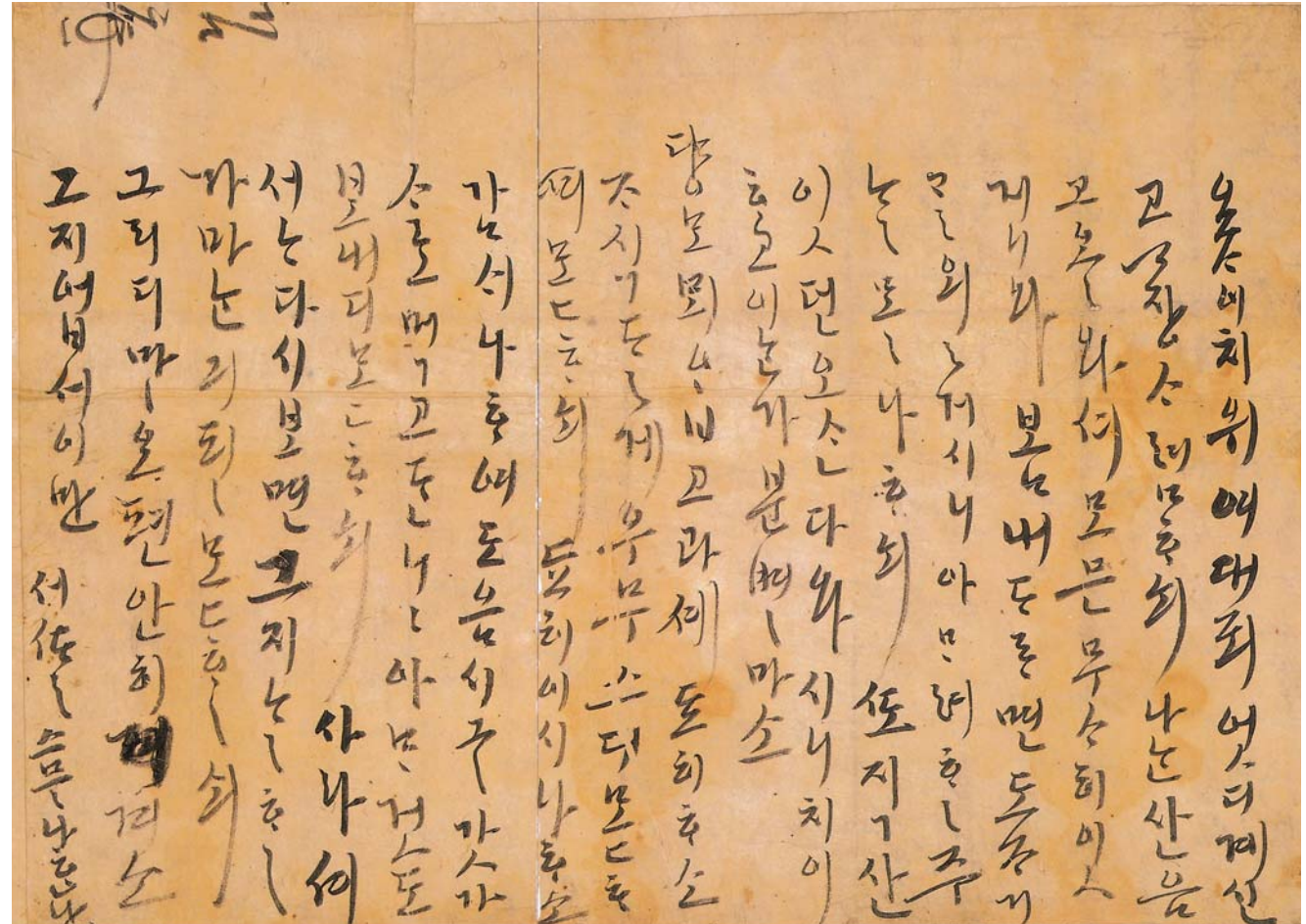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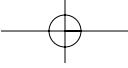
## 학봉선생의 한글 편지와 곁봉

선조 25년(1592) 임진년 12월 24일 학봉선생이 경상우도감사로 경남 산음현(산청)에서 안동 본가에 있는 부인 정부인 권씨에게 보낸 한글편지로서 학봉 선생이 진중에서 부인에게 최후로 보낸 비장한 영결의 편지이다. 편지 곁봉에는 내간(內簡)이라고 쓰고, 『우감사(右監司)덕, 안동 납실』이라 써 있다. 아울러 선생께서는 4개월 후의 죽음을 짐작이라도 하셨던지 석이(버섯의 일종) 2근, 석류 20개, 석어(조기) 2마리를 편지와 함께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 적혀 있다. 이때 본가에서는 납실(현 안동시 임동면)이라는 곳에 피란하고 있었으며 그 후 4개월이 지나서 선생은 진주공관에서 돌아가셨다. 이 한글 편지는 귀중한 국문학적 자료이다.(32×38cm)

## 편지글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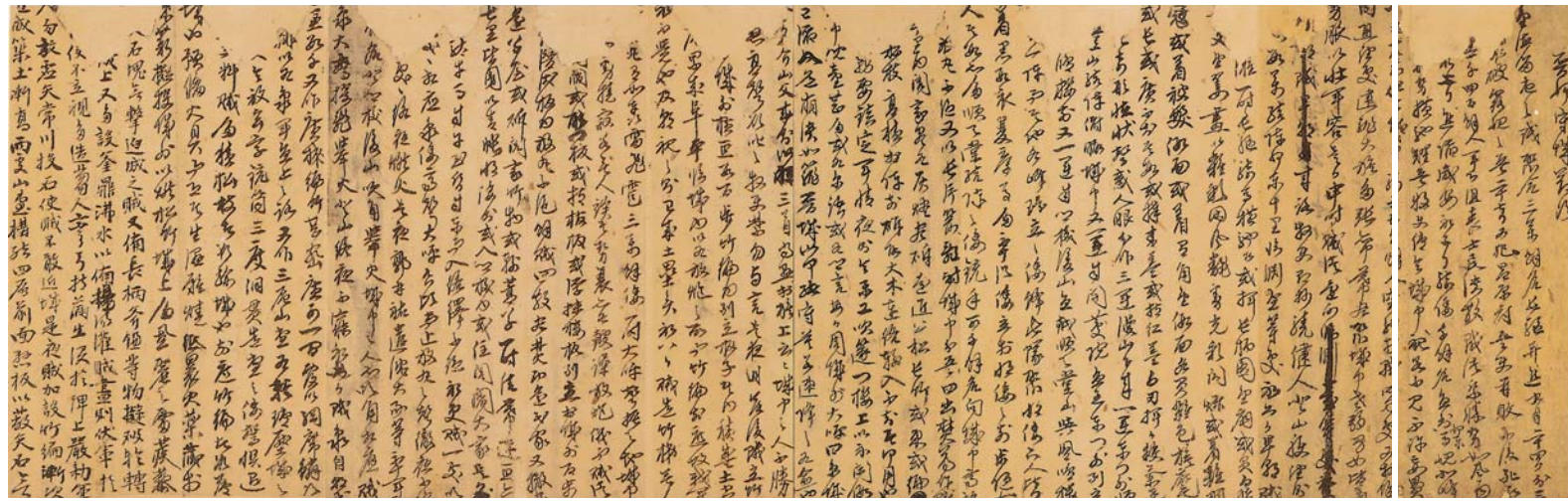
요사이 추위에 모두들 어찌 계신지 가장 思念하네. 나는 山陰 고을에 와서 몸은 무사히 있으나 봄이 이르르면 도적이 대항할 것이니 어찌할 줄 모르겠네. 또 糶山 있던 옷은 다 왔으니 추워하고 있는가 염려마오. 장모 뵈시옵고 설 잘 쇠시오. 자식들에게 편지 쓰지 못하였네. 잘 들 있으라 하오. 監司라 하여도 음식을 가깝스로 먹고 다니니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오. 살아서 서로 다시 보면 그때나 나올까 모르지만 기필 못하네. 그리워하지 말고 편안히 계시오. 끝없이 이만. 설날 스무나흔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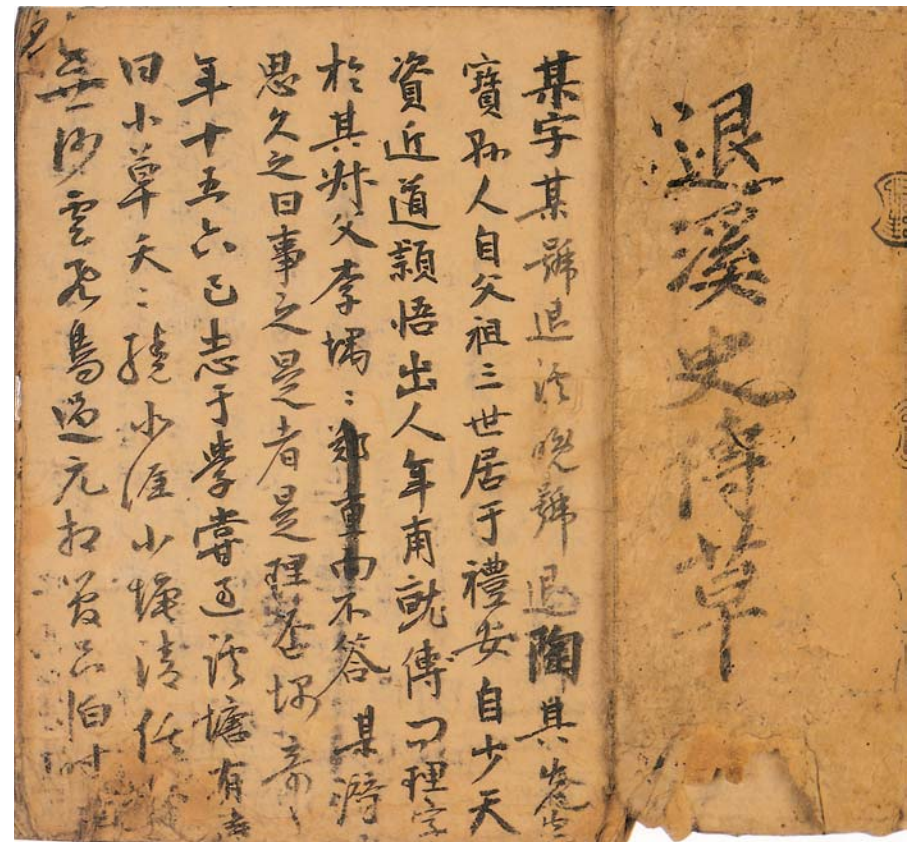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진주수성승첩장 晋州守城勝捷狀

선조 25년(1592)10월 학봉선생이 경상 유도감사 재직시 진주성을 수비한 전말을 적어 왕에게 치계(馳啓)한 진주수성 승첩장 초고(27.2×12.1cm)



퇴계사전초 退溪史傳草

선조초 학봉선생이 스승인 퇴계 이황의 전기를 기술한 퇴계사전초(23×1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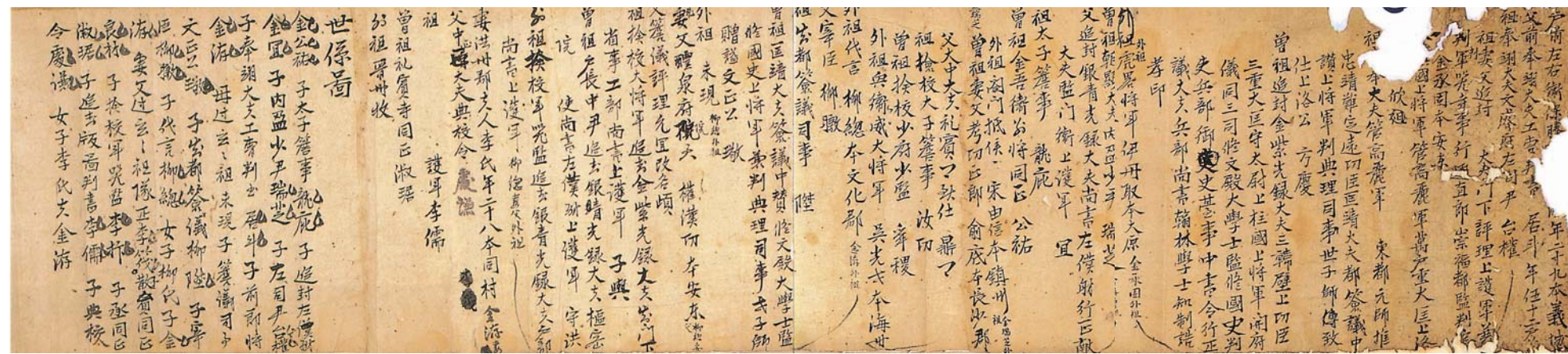
증시교지 贈識教旨

숙종 5년(1679) 8월 6일 학봉 선생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리는 증시교지(贈識教旨)(58×112cm)



목판본이륜행실도 木版本二倫行實圖

선조 12년(1579) 5월, 학봉선생에게 내린 내사본(內輝本). 같은 해에 간행한 목판본이륜행실도(25.8×16.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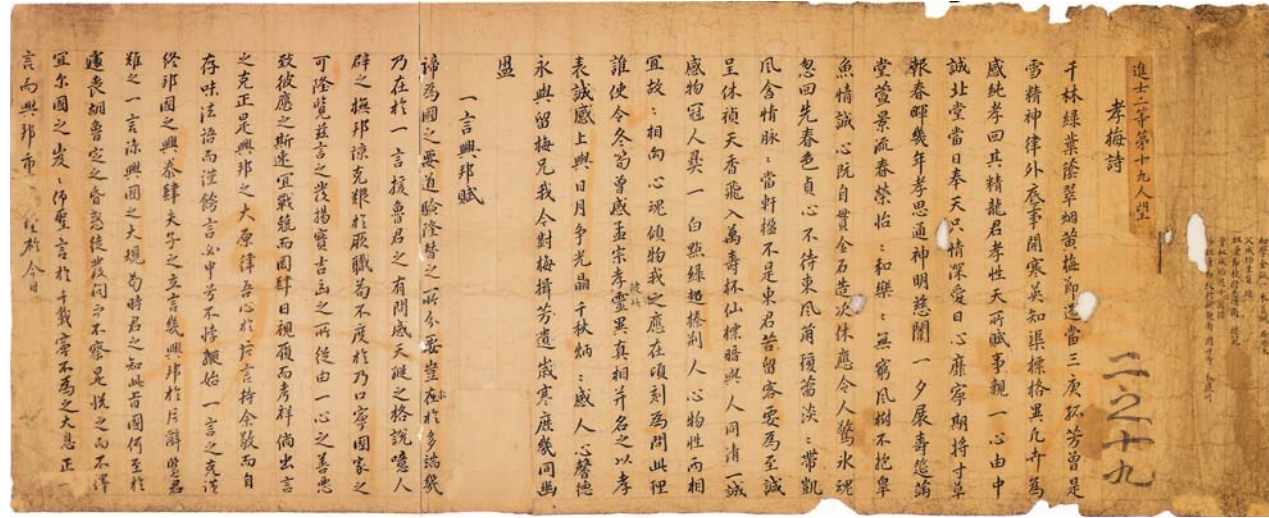


호구단자 戶籍單子

고려 공양왕 2년(1390) 김천(金海)의 호적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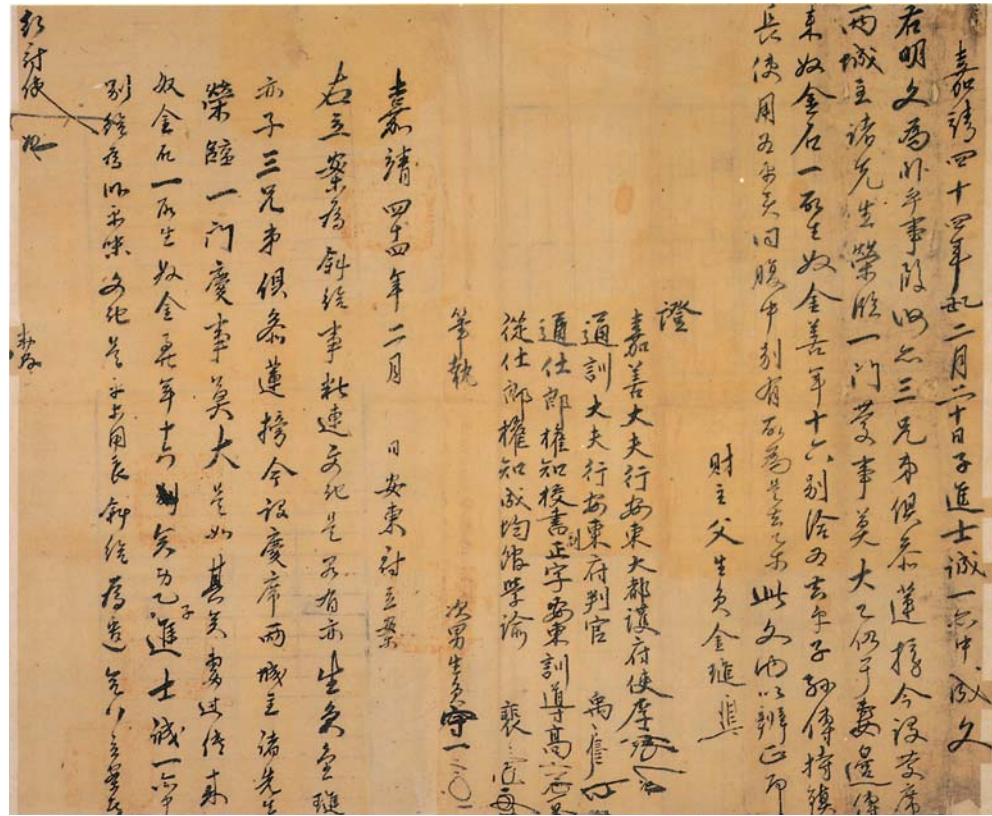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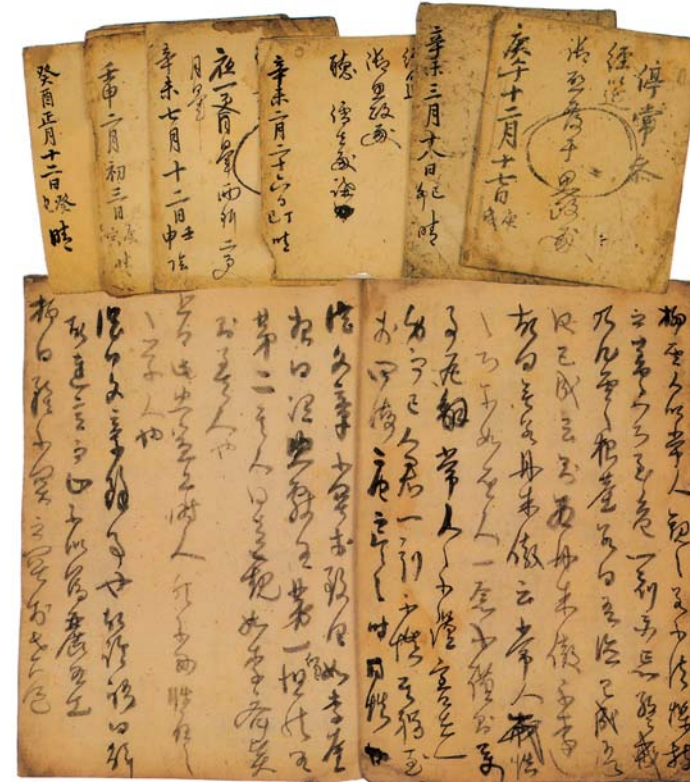
교지 試紙

명종 19년(1564) 학봉선생이 진사 2등 제19인으로 합격한 교지(87×216.5cm)



분재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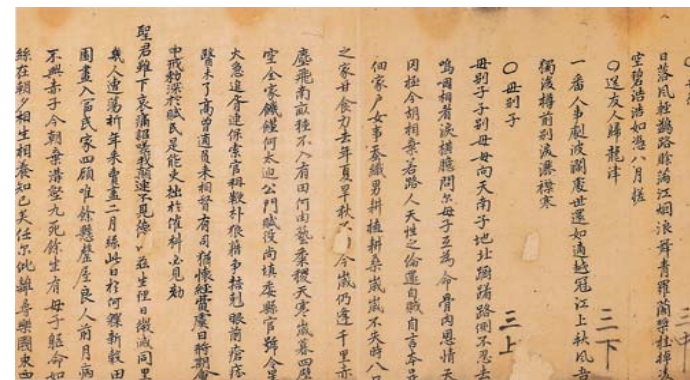
명종 20년(1565) 2월 20일 청계 김진(金鎭)이 넷째 아들인 학봉선생의 진사 합격에 대한 상으로 남자 노비 한명을 특별히 주는 분재문서(65.4×72.5cm)



경연일기 초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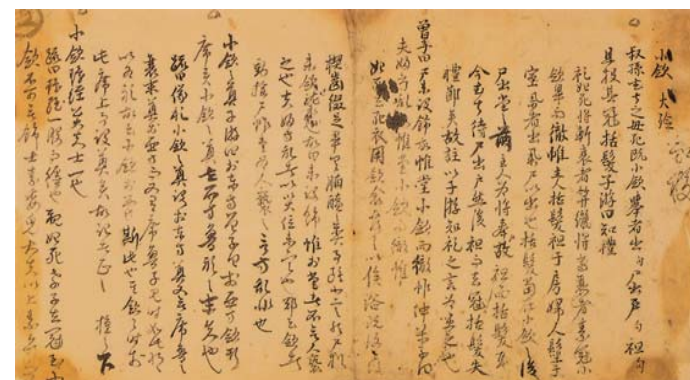
經筵日記 草稿本

선조 3년(1570)에서 선조 7년(1574)까지 학봉선생이 사관 재직시 경연에서 군신간에 행한 경서나 정사 등의 강론 및 정전에서 행한 승지 및 조신의 입계 또는 관사임면 등 제사실을 기록한 경연일기 초고본(21.4×19cm~25.4×18cm,不分卷 54綴)



제술시첩 製述試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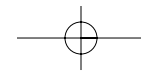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선조 9년(1576) 학봉선생이 호당(讀書堂)에서 사가독서(緝畧讀書)할 때의 제술시첩(49.2×41.8cm)



상례고증초고본

喪禮考證草稿本

선조 14년(1581)에 학봉선생이 예기에서 상례에 관한 자료를 모아 편찬한 상례고증초고본(30.7×25.8cm)



박물관의 도시 안동



**무이구곡도 武夷九曲圖**

학봉선생이 선조 10년(1577) 중국 사진으로 갔을 때 중국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주자가 살고 노래 했던 무이산을 그린 그림



**부채**

크기 : 55cm



**거문고**

길이 150cm, 넓이 19cm



**고려사절요 高麗使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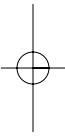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가첩 家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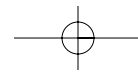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집안의 혈통을 적은 족보



**혁화 革靴**

학봉선생이 착용하던 혁화  
길이 20cm, 높이 28cm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패도 佩刀**

학봉 선생이 임란 때 사용하던 패도  
길이 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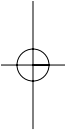
**휴대용 벼루**

길이 1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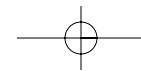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화로**

유교문화박물관  
>>>>







## 유교문화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의 부속기관인 유교문화박물관은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또 이를 토대로 국학자료의 기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유교' 전문박물관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개별 문중이나 서원 등 민간으로부터 기탁받아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들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엄선하여 전시하고 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유교문화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과 풍부한 볼거리를 꾸준히 발굴하여 전시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7:3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1월1일 / 설날 / 추석

### ▶관람료

일반(19세~64세) 1,500(20인 이상 단체 1,000원)

청소년 및 군인 1,000원(20인 이상 단체 700원)

어린이 700원(20인 이상 단체 5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국국학진흥원 자료 기탁자

### ▶문의

054-851-0800 / <http://www.confuseum.org/>

###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33



### 장량수 급제 패지 張良守及第牌旨

•크기 : 88.0×44.3

•기탁 : 울진장씨 대종회

1205년(희종 원년) 진사시에 급제한 장량수에게 내린 급제 패지. 지금까지 전해지는 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유교의 제도적인 정착과정과 과거제도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장량수는 추밀원부사와 전리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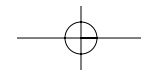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 활인심방 活人心方

•크기 : 29.0×45.0

•기탁 : 도산서원 운영위원회

퇴계 이황이 심신의 건강을 위하여 『구선활인심법 舊仙活人心法』이라는 중국 수련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책, 이황의 친필 글씨와 그림이다.





**애일당구경첩 愛日堂具慶帖**

•크기 : 27.7×37.0      •기탁 : 영천이씨 농암종택  
 농암(農巖)의 종손가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자료들은 교지(教旨) 등 고문서류(古文書類)를 비롯하여 전적류(典籍類)·회화류(繪畫類) 등 다양한 문화재가 많다. 그 중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은 모두 2책인데 1책은 무진추한강음전도(戊辰秋漢江飲饌圖)·기묘계추화산양로연도(己卯季秋花山養老宴圖)·병술중양일분천현연도(丙戌重陽日汾川獻燕圖)가 있고 그에 해당되는 당시 명사들의 시(詩)를 써서 첩장(帖裝)한 것이며, 나머지 1책은 농암의 화산양로연시(花山養老宴詩)를 중심으로 김안국(金安國) 등(40인) 당시 명사들의 친필차운시(親筆次韻詩)를 모아 작첩(作帖)한 것이다. 애일당(愛日堂)이란 농암(農巖)의 당호(堂號)이고 '구경(具慶)'이란 '부모(父母)가 함께 생존하고 경사스럽다'는 뜻이다. 곧 애일당(愛日堂)이 부모(父母)를 위한 관계 자료를 모은 시첩(詩帖)이란 뜻이다.



**세전서화첩 世傳書畫帖**

•크기 : 26.6×36.0  
 •기탁 : 풍산김씨 참봉택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은 풍산 김씨 미동파 후손인 김중휴(金重休, 1797~1865)가 가문을 선양할 목적으로 만든 서화첩. 조상의 행적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본으로 하여 모두 19명의 조상에 얽힌 31가지 이야기를 골라 글과 그림으로 묶었다. 이러한 화첩은 문벌(門閥)을 중시하던 조선 후기의 사대부가의 문중의식과 조상관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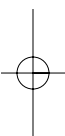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양양금 襄陽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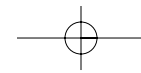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크기 : 165.0×21.0  
 •기탁 : 전주류씨 수곡파  
 이 거문고는 172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앞판은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앞판의 뒷면에 명문이 있어, 재료의 출처와 만든시기를 알 수 있다. 밤나무로 만든 뒷판은 옆 귀퉁이가 약간 갈라져 있으나 류홍원 문집의 시를 적어 놓아 이 거문고의 오랜 내력을 증명하고 있다. 전체 길이 160cm로 안축 2개와 꺾 16개가 원형대로 남아 있고, 돌래 1개가 있다. 부속품이 일부 떨어져 나갔으나, 몸체인 오동나무 함판과 밤나무 뒤판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창랑보 滄浪譜**

•크기 : 42.0×52.0  
 •기탁 : 전주류씨 수곡파  
 강포 류홍원이 (1716~1781) 필사한 거문고 악보 영산화상과 여민락 등 조선 후기 양반들이 즐겨 타던 악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만도 장원급제 홍패** 李晚燾仕元及第紅牌

- 크기 : 68.5×92.5
- 기탁자 : 진성이씨 향산고택

합일합방에 항거하여 순국한 이만도(李晚燾, 1842~1910)의 장원급제 교지이다. 대과 합격증은 통상 붉은 색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홍패(紅牌)라고 한다. 이 홍패에 '유생 이만도는 문과 갑과에 1등으로 급제한 자' 라고 적혀 있다.

이만도의 본관은 진성(眞城)이고, 자는 관필(觀必), 호는 향산(響山)이다. 25세였던 1866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한 후 성균관 전적을 비롯하여 병조좌랑, 사간원 정언, 양산군수(梁山郡守), 공조참의(工曹參議), 장악정(掌樂正)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이 일어나자 예안에서 의병장으로 활약하였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乙巳五賊)의 처형을 상소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자 단식으로 항거하며 순국하였다. 이러한 의병활동으로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에 추서되었다.



**침경요결** 鍼經要訣

- 크 기 : 24.3×34.7
- 기탁자 : 하회마을 화경당북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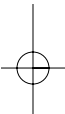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서에 류성룡(1542~1607)이 중국의 의학서적을 참고하여 만든 침구서(鍼灸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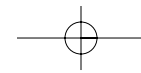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경서통** 經書筒

- 크기 : 8.5×8.5×19
- 기탁자 : 고성이씨 팔회당종택

유학 경전의 문구를 써넣은 대가지와 그것을 담아두던 통이다. 통에서 죽간을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죽침(竹籤) 경서통이라고도 한다. 주로 경전을 암기하고 이를 시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먼저, 경서(經書)의 머리 글귀 부분을 가는 대가지에 적어서 경서통에 무작위로 담는다. 그 중 하나를 뽑아 그 글귀에 해당하는 내용을 암송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생들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임계 계획지도 壬癸契會之圖

- 크 기 : 77.5×155.5
- 기탁자 : 진주하씨 충렬공파

안동에 거주하는 11명의 선비들이 1613년 학가산(鶴駕山)에 있는 광흥사라는 절에서 계모임을 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계획도이다. 임계 계획지도(壬癸契會之圖)의 '壬癸(임계)'는 임자壬子(1552년)와 계축癸丑(1553년)에 태어난 계원을 의미한다. 시문과 좌목에서도 계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듯이 모두 60세를 넘긴 사람들이다.

계획도는 문인들의 계모임을 하는 모습을 그린 기록화로, 대개는 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 만 그린다. 이 계획도는 상단에 전서체로 계획 명칭을 적었고, 바로 아래에 산수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배치하였다. 계획법(界畫法) 건축물을 자로 대고 정밀하게 그리는 화법)과 채색 인물화법 등의 기법으로 볼 때 계획도 자체는 궁중기록화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단은 다시 두 단으로 나누어 상단에 참석자들의 시문을 적었고, 아랫부분의 좌목(座目)에는 권위(權緯, 1552~1630)를 비롯한 계원의 이름과 관직, 본관,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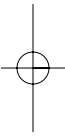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혼천의 渾天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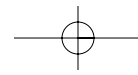
- 크 기 : 51.5×70.5
- 기탁자 : 흥해배씨 괴담종택

고대 동양의 우주관인 혼천설(渾天說)에 근거하여 만든 천문관측기이다. 계란 껍질이 노른자를 감싸듯이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는 천체관을 혼천설이다. 혼천설에 따라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혼천의(渾天儀)는 선기옥형(璇璣玉衡), 혹은 혼의(渾儀)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에 전국의 서원에서 많이 제작하였는데, 관측용이라기보다는 천문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더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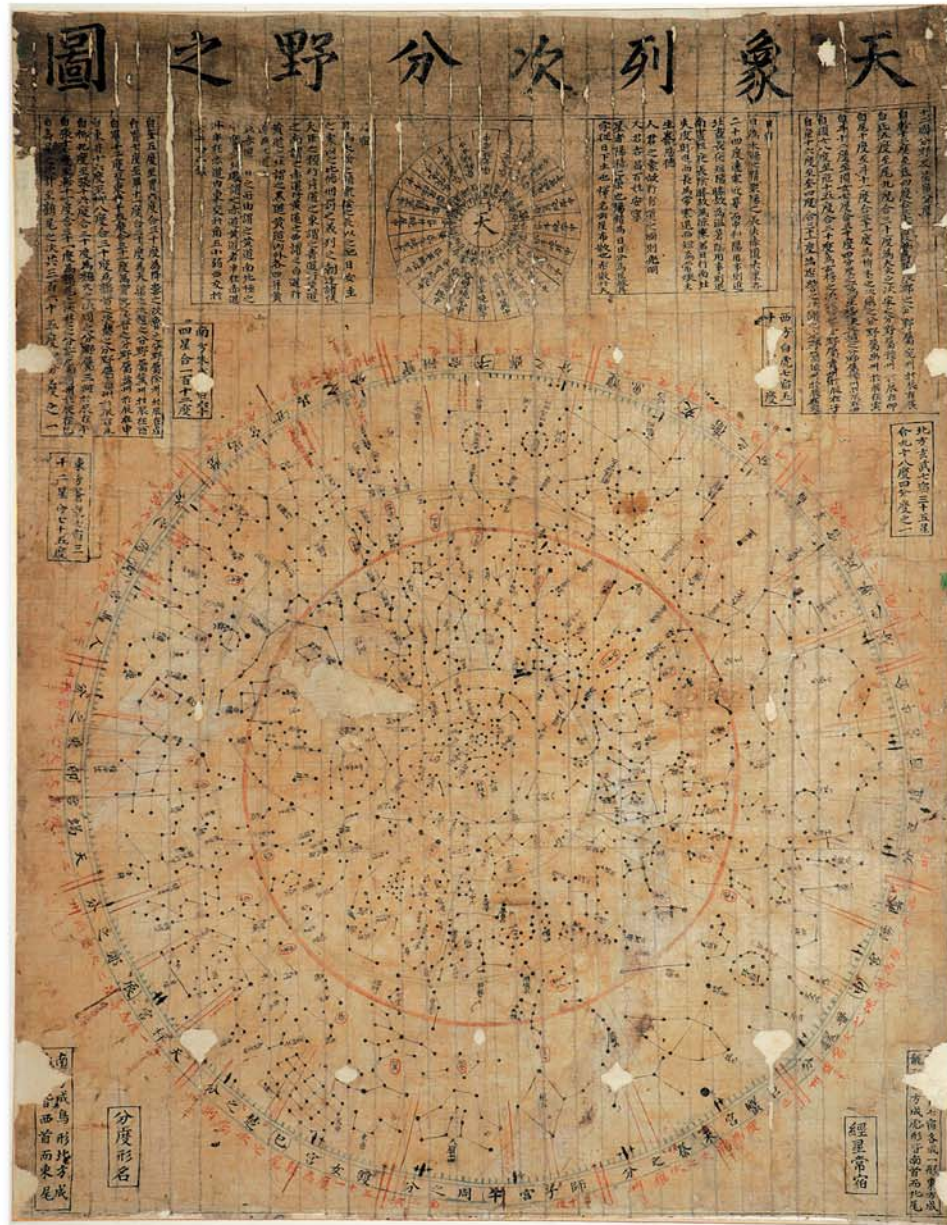
이 혼천의는 조선 후기의 학자 배상열(裴相說, 1759~1789)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서진 부분을 실로 엮어 놓아서 원형을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천위환(天圍環)에 종이를 감싸고 그 위에 28수를 도상과 함께 표시하였던 듯하다.

배상열의 본관은 흥해(興海)이며, 자는 군필(君弼), 호는 괴담(槐潭)이다. 1780년 이후에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공부한 그는 상수학(象數學) 뿐만 아니라, 산천을 측량하고 혼천의를 만들어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운행을 측정할 만큼 천문, 지리, 주수(籌數) 등에 능통하였다. 『성리찬요(性理纂要)』, 『계몽도해(啓蒙圖解)』 등을 저술한 그는 31세의 나이에 요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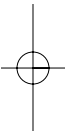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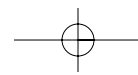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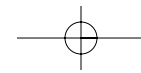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이육사박물관  
>>>>

천상열차분야지도 天象列次分野之圖

- 크 기 : 76.5×102.0
- 기탁자 : 전주류씨 호고와종택







# 이육사문학관

2004년 7월 육사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이육사문학관이 개관하였다. 이 곳 육사문학관은 일제 강점기에 17번이나 옥살이를 하며 민족의 슬픔과 조국 광복의 염원을 노래한 항일민족시인 이육사(李陸史, 1904~1944, 본명 : 이원록)선생과 관련, 흩어져 있는 자료와 기록을 한 곳에 모아 지은 곳이다. 이 곳에는 육사의 혼, 독립정신과 업적을 학문적으로 정리했으며 장소는 그의 생가터인 원천리에 들어섰다.

1층에는 선생의 흉상과 육필 원고, 독립운동자료, 시집,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고 조선혁명 군사학교 훈련과 베이징 감옥 생활 모습 등도 재현해 놓았으며, 헤드폰을 착용하고 버튼을 누르면 청포도, 절정, 광야 등 육사의 주옥 같은 시를 눈과 귀로 접할 수 있는 첨단장치도 갖춰져 있다.

2층은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는 원천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영상실과 세미나실, 시상 전망대 등이 갖춰져 있고 육사의 이미지 그림과 시등을 탁본하는 체험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건물 주변으로는 절정시비와 육사동상, 청포도샘과 선생이 형제들과 함께 생활한 육우당이 복원되어 있다. 육사문학관에서 2.8km 오솔길을 따라 가면 육사묘소가 있다.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09:00~18:00

동절기(11월~2월) 09:00~17:00

### ▶휴관일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1월1일 / 설날 / 추석

### ▶관람료

일반(19세~64세) 2,000(30인 이상 단체 1,500원)

청소년 및 군인 1,500원(30인 이상 단체 1,000원)

어린이 1,000원(30인 이상 단체 5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문의

054-840-6593 / <http://www.264.or.kr>

###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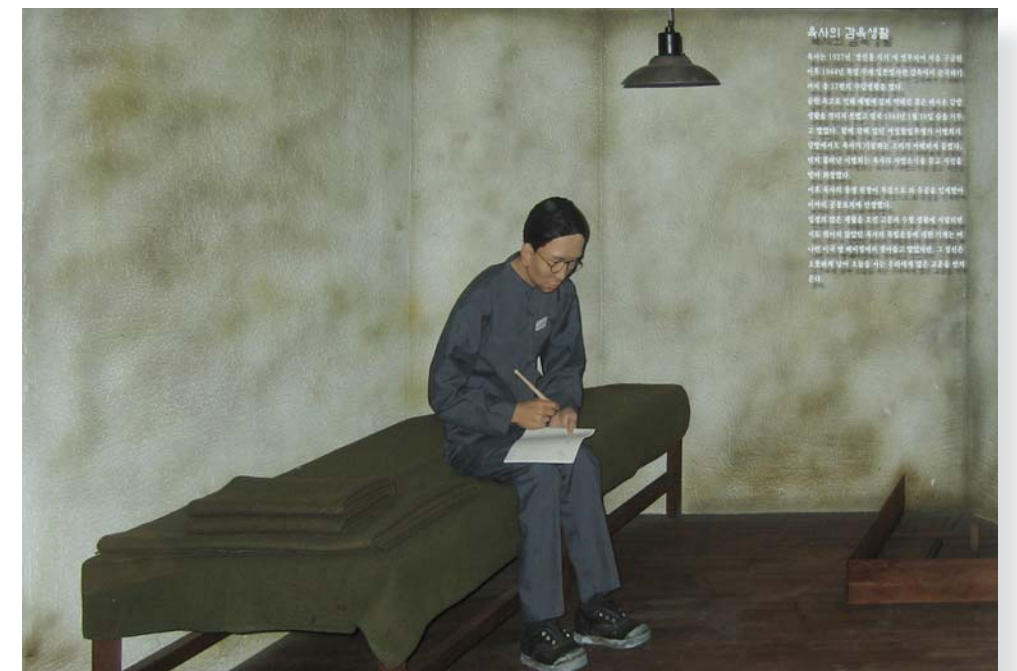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봉화방면 35번 국도 이용, 도산면 사무소 앞에서 우회전하여 5km 지점(소요시간 4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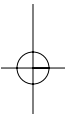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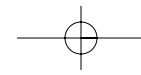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이육사의 독립운동

이육사 선생의 독립운동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홍보하고 있다.



## 수감생활 재현 모형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이육사의 문학세계

이육사 선생의 문학세계와 대표적인 시, 문학작품 및 사진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이육사의 문학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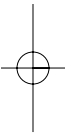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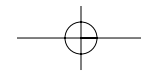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육사 선생 관련 사진 자료



### 이육사 선생 시 청포도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탁본체험 코너

이육사 선생의 시 광야, 청포도 등을 탁본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 탁본체험 코너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영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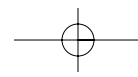
영상실에서는 육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에 관한 영상물을 관람객에게 상영하고 있다.



### 육우당

육사 선생의 생가를 본뜬 모형 집으로 이 집에서 애국지사 이원기 선생을 비롯하여 육사, 원일, 원조, 원창, 원홍 6형제 분이 태어나셨다하여 당호를 육우당(六友堂)이라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연못**

이육사 문학관 뒷편에 마련된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



**묘소**

이육사 문학관에서 2km 떨어진 원촌마을 뒷산에 위치하고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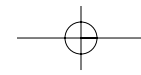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웃판대**

'광야'의 시상을 떠올린 곳이다.



**퇴계 오솔길**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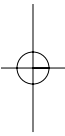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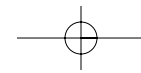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갈선대

육사 선생의 시 '절정'의 무대가 된 갈선대이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







##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유물없이 디지털 콘텐츠(디지털 유물)로만 채워진 국내 최초의 박물관이다. 디지털 유물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과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차세대 성장동력인 CT기술을 통해 과거의 전통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되어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 설명 문안, 그림 등에서 볼 수 없었던 그 내면의 가치관, 생활양식, 원리를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유형의 유물 관람을 넘어 전통문화와 정신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박물관, 이야기가 있고,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박물관으로서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물관 내에는 전통민요와 상여소리, 구수한 안동사투리를 들을 수 있는 클릭 옛소리, 도산서원, 태사묘, 하회마을 영모각에 있는 유물들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유물체험전, 안동지역의 신화, 전설, 민담을 들려주는 주니어 옛이야기 특유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 승경도 놀이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사서삼경 등의 교육적 내용을 온 가족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장원급제 놀이가 있다. 또한 도산서원의 장판각과 태사묘 유물 등에서 추출된 문양 등 130종의 목판 탁본을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는 유교장판각, 하회탈춤을 배우고 직접 탈춤을 체험하며 콘텐츠를 만드는 하회탈춤 UCC 코너, 후삼국시대 고창전투의 현장 속에 직접 들어간 듯한 체험을 제공하는 4D 디지털 영상 등 다양한 쌍방향 체험을 통해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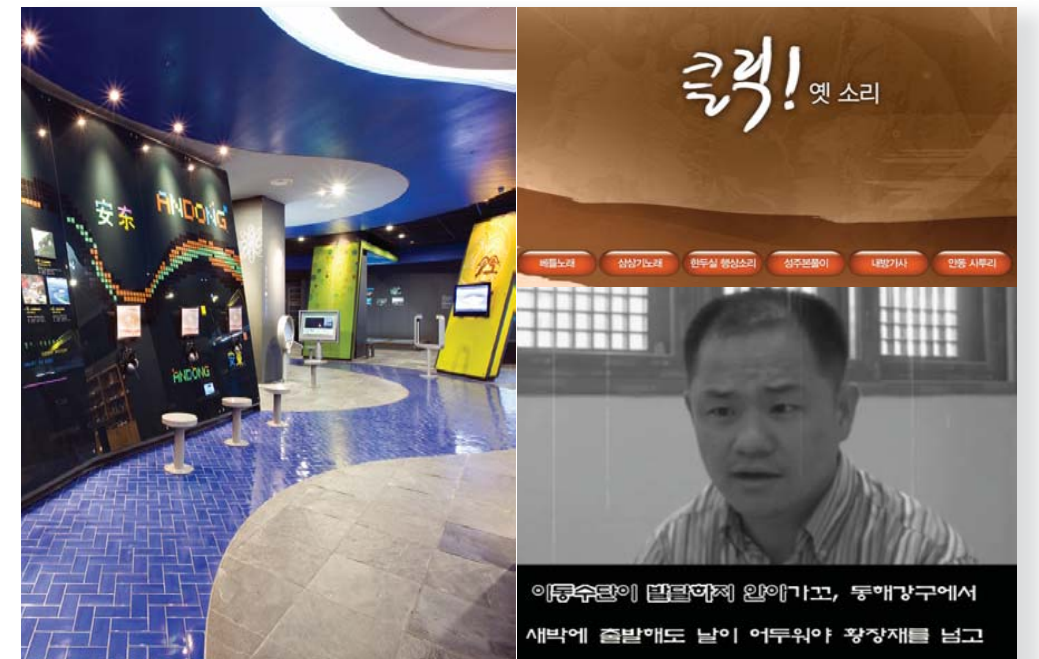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앞으로 유·무형의 문화재를 2,000여종의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박물관 전시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개발, 에듀테인먼트,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 전통문화의 원천 자료를 제공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 ▶ **관람시간** 09:00~18:00(단 입장은 17:30까지)
- ▶ **휴관일** 매주 월요일 / 1월1일 / 설날 / 추석날
- ▶ **관람료** \*안동시민은 50% 감면  
 일반(19세~64세) 3,000원(15인 이상 단체 2,500원)  
 청소년 및 군인 2,000원(15인 이상 단체 1,500원)  
 어린이 1,000원(15인 이상 단체 500원)  
 무료관람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문의** 054-843-7901(친구공원) / <http://www.tcc-museum.go.kr/>
- ▶ **위치** 경북 안동시 동문로 74(동부동 447-8)
- ▶ **찾아가는 길** 안동역에서 응부공원방면으로 직진  
 (도보 5분 소요, 안동 시내 문화공원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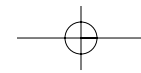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RFID 입력기

무선인식 카드에 이름, 성별, 이메일, 언어권을 입력한다. 관람객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 클릭 옛소리

안동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련한 소리를 동영상과 함께 보고, 들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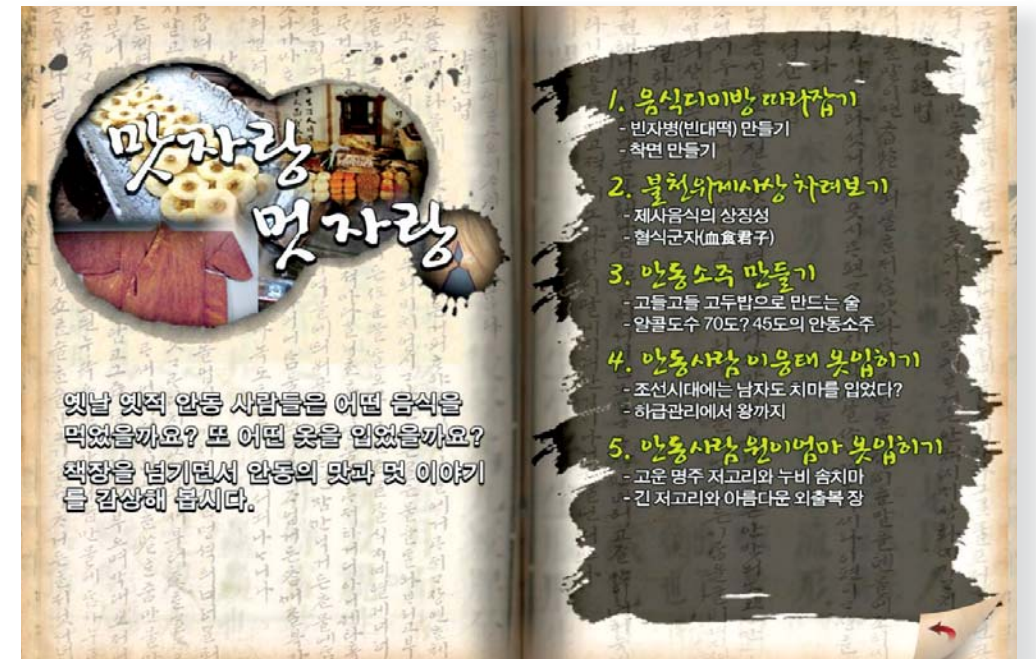
### 안동여행 내비게이션

안동의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코너로서 지역별/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100여곳의 주소/교통/길잡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메일로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 가상유물 체험전

안동의 과학기술, 군사기술, 태사묘 소장유물을 입체포인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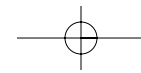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맛자랑 멋자랑

총 30페이지로 구성되어있는 디지털 e-book으로, 맛자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음식 조리서인 음식디미방, 불천위제사상 진설방법, 전통주 안동소주에 대한 내용을, 멋자랑에서는 1998년 안동시 정상동에서 미이라로 발견된 450여 년 전의 조선 양반 이응태와, 원이엄마, 그들의 유물과 생활상을 재현한다.



### 월영교 달갈볼 놀이

안동의 관광명소인 월영교와 하회 달갈볼 놀이, 복을 담은 복주머니, 사랑·성공·합격 등의 복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는 요소를 융합하여 만들어 놓은 체험코너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장원급제놀이

승경도 놀이의 형식을 차용하여 구성된 체험코너로서, 경상에 앉아 퀴즈를 풀며 서당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 퀴즈! 7층전탑과 봉정사

국보 16호 신세동 7층 전탑과 보물 55호 봉정사 대웅전에 관한 퀴즈를 풀 때마다 답이 쌓이고, 숨겨진 진경을 볼 수 있는 체험코너이다. 퍼즐을 맞추듯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름다운 영상이 기다립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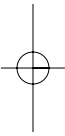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사이버 안동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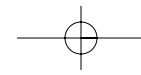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약 200년전 안동의 모습을 나타낸 안동읍도와 슬라이딩 모니터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융부관아, 안동향교, 임청각, 진남문, 영호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유교장판각

장판각의 내부 구조와 보관방식(불막음/물막음/바람길)등을 볼 수 있고, 디지털 탁본체험 메뉴에서 편지지·지도·부적·문양 등 130종의 다양한 탁본체험을 해볼 수 있다. 완성된 탁본은 RFID카드에 입력된 자신의 e-mail로 전송할 수 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스카이 안동

9대의 멀티비전으로 구성된 스카이안동 코너의 모니터 위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본 하회마을, 오천군자리 역사문화마을, 무실마을과 도산서원, 역동서원의 모습과 내부의 전통건축물을 가상체험 할 수 있다.



### 늦다리 연주놀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민속놀이인 늦다리밟기에는 흥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한 일화가 담겨있다. 음악에 맞추어 늦다리 밟기 체험도 하고, 늦다리 밟기의 유래도 알아볼 수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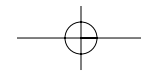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 하회탈춤 UCC

안동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 하나인 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춤사위를 직접 시연해보고, UCC를 만들 수 있다. 4개국어(한·중·일·영)가 지원된다.



### 낙동강 700리 안동물길 70리

낙동강 700리 구간 중 안동의 물길 70리에 걸쳐 있는 예안 수물지구, 영호루, 가송협 일대, 하회마을 등을 가상체험 할 수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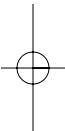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태사묘 보물각 太師廟 寶物閣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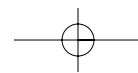
### 고창전투

『고창전투』는 고려가 후삼국 통일의 중요한 분수령이자, 『안동(安東)』지명 탄생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전투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태사묘 보물각 太師廟 寶物閣

태사묘 보물각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여 임금으로부터 사성(賜姓)받아 안동을 본으로 하는 안동김, 안동장, 안동권씨의 시조인 김선평, 권행, 장정필의 사당이 있어 매년 향사를 봉행하고 있는 곳이다.

태사묘우(太師廟宇)를 비롯하여 송보당(崇報堂), 동·서재, 경모루(景慕樓), 전사청(典祀廳), 차전각(車戰閣), 안묘당(安廟堂), 주사(廚舍) 등 10동의 건물이 기념물 제 15호로 지정되고 세명의 공신이 쓰던 유물과 공민왕이 하사한 유물은 보물 제 451호로 지정되어 보물각에 보존되어 있다.

태사묘는 고려시대의 유물을 소장하는 소규모 박물관과 같다는 점에서 유서 깊고 가치 있는 상징적 건물이다. 땅속 매장문화재나 사찰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고려시대의 유물이 대단히 드문 편인데, 태사묘에는 고려 태조와 공민왕이 하사한 유물을 포함하여 고려시대 유물이 적지 않다. 따라서 태사묘는 고려시대의 왕실문화, 지역문화, 왕실과 지역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더없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 관람시간 09:00~17:00
- ▶ 휴관일 1월1일 / 설날 / 추석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57-7638 / <http://www.tsm3.or.kr/>
- ▶ 위치 경북 안동시 북문동 24
- ▶ 찾아가는 길 안동역에서 웅부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웅부공원 정면에서 좌회전, 중앙치안센터에서 우회전(도보 10분 소요, 태사묘 내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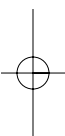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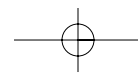
### 주칠탁잔 朱漆托盞

보물 제451-1호  
이 탁잔은 대(臺)와 잔(盞) 2부분으로 되어 있다. 대의 높이는 5.5cm 이고 둘레는 지름 14cm의 넓다란 잔이 수평으로 달려있으며, 겉면은 붉은색 안쪽은 검은색이 칠해져 있다. 잔은 대접 모양으로 아가리 지름 13.5cm, 높이 4.5cm로 안과 밖에 모두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



### 주칠탁잔 朱漆托盞 칠기함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수놓은 비단 繡段

보물 제451-2호  
문화재 지정명 - 고견포(古絹布(화견(花絹)))  
흰색의 능직 바탕에 색실로 복숭아꽃, 나라꽃, 무궁화, 모란 등의 꽃무늬를 수놓은 옷감이다.



### 고견포 무수 古絹布 無繡

보물 제451-3호  
홍화룡(紅花龍) : 홍색 능직(綾織) 바탕에 원형 등근 무늬가 은은하게 놓은 직물로서 고려 말기의 기록에 보이는 홍화룡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색비단 : 초록색 수자직(繡子織) 바탕에 작은 꽃과 보배무늬가 은은하게 놓은 직물로서 고려 말기의 문헌자료에 따르면 초록색 비단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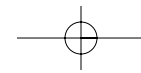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복두 幘頭

보물 제451-4호 문화재 지정명칭 - 관(冠)  
모자부분은 두 단으로 이루어지고 뒤쪽에 양 옆으로 뻗은 뿔이 달린 일종의 전각복두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공복(公服)에 사용하였던 모자 종류이다. 모자 부분은 두꺼운 종이로 형태를 만든 다음 검정색 명주를 덧발랐으며 양옆으로 뻗은 뿔에는 철사로 만든 타원형 틀에 얇은 시를 바르고 옷칠을 하였다.



### 흑피화 黑皮靴

보물 제451-5호 문화재 지정명칭 - 신  
검정색 소가죽으로 만든 장화이다.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공주의 것으로 전해져 오는 유물이지만 확인하기는 어렵다. 목이 길고 신발 코가 위로 뾰족하게 솟은 것이 특징이다. 발목 윗부분은 청색 무염으로 장식용 선을 둘러었으며 안 쪽에는 밀도가 성근 베를 붙였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부채

보물 제 451-6호 문화재 지정명칭 - 포선 가는 대나무 살을 네모나게 휘어 2개를 앞뒤로 붙이고 그 틈 사이에 부채살 없이 비단을 끼워 부채면을 만들었으며 그 한쪽에 나무 손잡이를 박았다. 자수나 그림 없이 황색 수자작의 비단으로 만든 흔하지 않은 형태의 부채이다.



### 동인 銅印

보물 제451-7호  
도장 윗면에 상(上)이라는 글자를 음각하여 상하를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밑면에는 전서체의 글씨가 양각되어 있다.  
하나는 성화(星火)라고 새겼는데 이는 운성이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급하여 재촉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추여엄(秋如嚴) 또는 '추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령이 엄하니 반드시 지키라'는 뜻이라고 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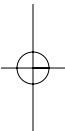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은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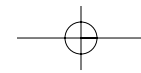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보물 제451-8호  
유물 가운데 이 은구유개함은 놋쇠로 만든 것으로 뚜껑이 달려 있는 합이다. 전체 높이 10.5cm, 아가리 지름 13.8cm로, 현재 은구는 떨어져 없어졌고 몸체의 일부도 파손되었다.



### 은수저

보물 제451-12호 문화재 지정명-동시저  
공민왕이 하사한 한 벌의 은제 수저이다. 숟가락은 음식을 담는 면이 가늘고 길며 손잡이는 제비꼬리 모양이고 손잡이가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다. 젓가락은 모두 세토막으로 남아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옥관자

보물 제451-9호  
공민왕이 하사한 한 쌍의 유물이다. 5개의 꽃  
잎을 새겨 한 송이의 매화꽃으로 표현한 의관  
자이다. 지름 4.5cm로 위에는 뚫어서 조각한 5  
개의 꽃이 있는데 다른 한개는 파손되어 2개의  
꽃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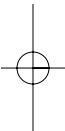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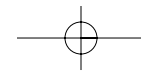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보물 제451-10호  
유물 가운데 이 혁대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42cm×6cm, 140cm×5.5cm, 172cm×5cm, 110  
cm×4cm의 4점으로 손상이 심한 편이다. 장식  
판 부분은 황동(黃銅)으로 만들었으며, 겉에는  
꽃무늬를 새기고 안에는 포도와 텅굴을 도드라  
지게 새겼다.  
4벌이 있으나 모두 손상이 많고 장식은 떨어졌  
다. 장식은 황동(黃銅)제로 화문(花文)이 양주  
(陽鑿)되었다. 크기는 142cm×6cm, 140cm×5.5  
cm, 172cm×5cm, 110cm×4cm이다.



하회동탈박물관  
>>>>







## 하회동탈박물관

하회동탈박물관은 1995년 8월에 개관한 탈 전문박물관으로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 오는 하회별신굿탈놀이에서 사용되는 하회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탈을 한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탈을 수집하여 한국 탈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240평의 전시실은 한국관, 아시아관,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90평 남짓한 제1전시실에는 들어서면 우선 선조들이 만든 우리 민족의 전통탈이 전시되어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된 13종류와 지방문화재 2종류 등 총 200여 점의 탈이 전시되어 있는데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탈, 곡식을 까불던 키로 만든 예천 청단놀음탈, 장례행렬의 맨 앞을 이끌었다는 둥그런 눈이 4개 달린 방상시탈 등 독특한 모양의 탈들이 단번에 눈길을 사로 잡는다. 제1 전시실 한국관 코너에 들어서면 다양한 신분을 가진 옛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정겨운 탈을 만날 수 있는데 하회탈과 더불어 봉산탈, 은율탈, 강령탈, 산대탈, 오광대탈 등 종류도 다양하다. 하회탈 코너에는 여유롭게 웃고 있는 양반탈, 양반을 조롱하는 초랭이탈,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속으로 삭이고 있는 각시탈, 바보스러운 이매탈 등이 흥미롭다.

제2전시실에 들어서면 아시아 지역의 전통민속탈이 전시되어 있다. 3천년전 상나라 때부터 탈놀이가 행해졌다는 중국의 나희탈을 비롯하여 기복탈, 벽사탈 등 우리와는 또다른 표정의 탈을 만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바롱댄스에 사용되는 바롱과 랑다, 몽골의 참탈, 인도의 차우댄스탈, 태국의 콘 드라마탈, 인도네시아의 토펵탈등 나름의 독특한 모습을 가진 탈이 있으며 제3전시실에는 세계의 탈이 전시되어 있는데 아프리카 일대의 여러 나라의 탈과 함께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멕시코, 베니스 등 각국의 전통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는 다양한 모습의 탈이 전시되어 있다.

▶ 관람시간 09:30~18:00

▶ 휴관일 설날 / 추석

▶ 관람료

일반(19세~64세) 2,000(30인 이상 단체 1,500원)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000원(30인 이상 단체 600원)

경로우대 1,000원(30인 이상 단체 600원)

▶ 문의 054-853-2288 / <http://www.tai.or.kr>

▶ 위치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287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예천방면 34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풍산읍 방면으로 우회전, 안교사거리에서 하회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중리삼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소요시간 35분)



### 하회별신굿탈놀이\_ 양반

국보 제 121호

하회탈은 우리나라의 탈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제121호, 병산탈 2개포함)로 지정된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물이며, 가면미술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회탈은 주지2개, 각시, 양반, 선비, 중, 백정, 초랭이, 할미, 이매, 부네, 총각, 별채, 떡다리모두 14개였으나, 총각, 별채, 떡다리 탈이 분실되면서 10종 11개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회탈은 사실적으로 제작된 조형미와 탈의 기능이 다른 탈에 비해 뛰어나다. 특히 양반, 선비, 중, 백정탈은 턱을 분리시켜 안체의 턱 구조와 같은 기능을 갖게하여 대화를 할때 실제의 입 모양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다른탈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 북청사자놀음\_ 사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15호

함경도 여러 지방에서 사자놀음을 놀았지만, 북청의 사자놀음이 가장 유명하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군 산하 11개 면과 3개 읍에 속하는 각 마을에서 음력 정월 15일 밤 세시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다. 사자놀이패는 정월 4일부터 14일까지 마을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잡귀를 물리치면서 지신(地神)밧기와 유사한 의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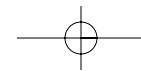
### 봉산탈춤\_ 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17호

황해도 봉산지방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놀이이다. 강령탈춤과 함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해서탈춤의 최고봉을 이루었다. 주로 5월 단오날에 크게 놀았고, 중국 사신의 영접, 신임 사포의 부임 등 행사가 있을 때도 놀았다.

봉산탈춤은 입체적이며, 의상이 화려하고, 춤사위가 활기차고 씩씩하여 대륙적인 맛이 있다.

봉산탈은 주로 종이를 사용하고, 형짚, 털, 가죽, 흙, 대나무 등의 재료도 함께 사용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강령탈춤\_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34호  
강령탈춤은 봉산탈춤과 함께 황해도의 유명한 탈놀이이다. 봉산에 비하여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 당시 유명한 기생이던 강금옥이 고향인 강령으로 돌아가자, 해주 감영의 통인청을 중심으로 집결되었던 탈놀이꾼들이 해산하면서 그 일부가 강금옥을 따라 강령으로 모여들어 탈놀이가 성행했다. 해주감영에서는 매년 단오날이면 해서탈춤 경연대회를 벌여 놀이패에게는 상을 주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탈은 얼굴에 흙이 많고 눈두덩이를 튀어나오게 만든 후 안구를 뚫었으며, 탈놀이에 사용되는 탈은 12개이다.



### 은율탈춤\_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61호  
황해도의 서쪽 평야지대의 중심지였던 은율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놀이이다. 탈은 주로 흰색과 붉은 색이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흙은 위에서부터 황색(금색), 청색, 적색, 흰색(은색), 흑색의 다섯 가지색(오방색)의 선으로 둘러져 있으며, 이것은 힘을 상징하기도 한다.



### 송파산대놀이\_포도부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401호  
송파산대놀이의 전승지인 송파나루는 오강(五江)의 하나로서, 조선 후기 전국에서 가장 큰 열다섯 향시의 하나였던 송파장이 서던 곳이다. 이 시장 상인들의 지원에 의해 송파산대놀이가 전승되었다. 연희자는 대부분 시장이나 나루터에서 막일이나 소규모의 가게, 술장사, 뱃일 등을 하던 서민층이었다. 정월 대보름, 4월 8일, 단오, 백중, 추석에 산대놀이를 놀았다.



### 양주별산대놀이\_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2호  
양주별산대놀이는 음력 3월 3일, 4월 8일, 5월 5일, 8월 15일, 9월 9일과 기우제(祈雨祭) 때 놀았다. 그리고 선달 그믐날 밤에 관아에서 나례를 거행할 때, 탈을 쓰고 동헌과 관아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잡귀를 쫓는 의식에 참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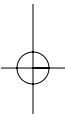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 통영오광대\_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6호  
통영오광대는 경남 통영시에서 전승되어온 탈놀이로서, 1900년 무렵 창원오광대를 본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놀이패는 정월 2일부터 14일까지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매귀(埋鬼) 즉 지신밟기를 해주고 받은 기부금으로 탈놀이를 준비해, 정월 14일 밤에 파방굿과 오광대탈놀이를 거행했다. 특히 4월 초 봄놀이에서는 사또놀음의 일부로 탈놀이를 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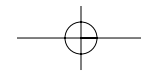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고성오광대\_말뚝이

중요무형문화재 제 7호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서, 현재와 같은 연희로 짜임새를 갖게 된 것은 1920년 무렵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성오광대에는 다른 지방의 오광대나 야류와 같이 병신춤인 문둥이과장과 정체확인형식의 영노(비비)과장이 있으며, 파계승과장의 내용이 간단하고, 할미가 죽으면 봉사가 독경을 한 후 상여소리를 부르며 상여를 내가는 등 경남 지방 탈놀이의 독자성과 향토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박물관의 도시 안동



### 가산오광대\_미알할미

중요무형문화재 제 73호  
가산오광대는 경남 사천군 축동면 가산리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로서, 조선시대에 조창(漕倉)이 있던 곳이다. 인근 7개 군의 조곡을 징수하여 서해를 거슬러 올라가 제물포까지 운반하던 항구였다. 그래서 가산오광대에 대하여 '조창오광대'라는 명칭이 생겼다. 음력 정월 2일부터 매구꾼 즉 풍물패가 풍물을 울리며 14일까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지신밟기를 해 주고, 보름날 저녁에는 조창 앞마당에서 오광대 탈놀이를 놀았다.



### 동래아류\_영노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아류는 부산 동래 지방에 전승되어온 탈놀이이다. 동래아류는 정월 대보름의 상원(上元)놀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동래아류를 공연하기에 앞서 300여 명이 참가하는 길놀이를 거행하였다. 길놀이는 세병교에서 출발하거나 인락동 쪽에서 출발하여 시장터까지 행진하였다. 놀이패가 놀이마당인 시장에 도착하면 놀이꾼뿐만 아니라 구경꾼도 함께 음악반주에 맞추어 군무를 추며 놀았다. 이때 구경꾼들은 각자 탈을 준비하였다가 착용하고 춤을 추었다.



### 수영아류\_사자

중요무형문화재 제 43호  
수영아류는 부산 남구 수영동에서 전승되어온 탈놀이로서, 약 200년 전에 좌수영 수사가 병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초계로부터 대광대패를 데려와 공연한 것을 배운 것이라는 설과, 초계에 살던 수영 사람이 초계에서 배워와 시작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다. 수영아류를 공연하기에 앞서 음력 정월 3·4일경부터 13일까지 아류계(野遊契)가 주동이 되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밟기를 해 주고, 이때 들어온 곡식으로 탈놀이의 경비를 조달하였다. 그리고 지신밟기 기간 동안에 일부 놀이꾼은 부정을 타지 않은 정결한 장소에서 탈과 도구를 제작하였다.



### 영해별신굿\_양반

지방문화재 제 3호  
동해안 일대의 풍어제로서 마을의 평안과 자손의 번영 그리고 풍어를 기원한다. 별신굿은 각 지역에 전승되어 왔으나, 오늘날 풍어제의 성격을 갖는 별신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다. 탈굿은 풍어제의 여러 굿거리 중의 하나로 탈을 쓰고 행해지는 해학적인 마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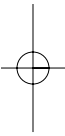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 영광우도농악\_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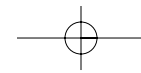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전라남도 영광에서 행해지는 걸립농악(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경비를 충당하는 농악)이다. 다른 지역 농악에 비해 다양한 놀이와 굿형식을 가지고 있다. 잡색(농악 및 놀이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등장하는 사람들의 기능이 특히 중요시되는데, 잡색들은 나무로 만든 탈을 쓰고 놀이의 흥을 돋운다. 본 농악대를 '치배'라고 하고, 잡색은 '겹겹이', 또는 '겹꾼'이라고 부르며 팽과리겹이는 '쇠꾼'이라고 부른다. 영광우도농악(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의 탈은 모두 나무탈로서 대포수, 양반, 참봉(홍백), 할미, 조리중, 비리쇠, 좌장, 우창, 흥작삼, 각시가 사용된다.



### 강릉관노가면극\_소매각시

중요무형문화재 제 13호  
강릉단오제에는 예로부터 관노(官奴)들의 탈놀이가 있었는데, 음력 5월 단오제의 주신(主神)인 대관령국사 서낭(大關嶺國師城隍)을 모셔놓은 서낭당에서 연희되었다. 강릉관노가면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농경의식(農耕儀式)과 관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다.





박물관의 도시안동 >>>



### 인도\_ 초우 댄스 가면

인도 벵갈지역의 태양신 축제에서 공연되며,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를 바탕으로 한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배우들의 활력있는 춤동작이 특징적이다.



### 태국\_ 콘 드라마 가면

태국의 대표적인 궁중가면극으로 라마키엔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백명 이상의 배우들이 등장하여 서술자의 낭송에 맞추어 연기하는 무연극이다.



### 티벳\_ 참 가면

티벳을 중심으로 부탄, 몽골 등의 라마교 사원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의식이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재앙을 쫓는 법회 가운데 연행된다.

박물관의 도시안동 >>>



### 중국\_ 나희 가면

중국의 전통적 가면극으로 역병과 잡귀를 몰아내는 나례에서 기원되었으며, 후대로 오면서 가무와 오락적 인면이 강화되어 탈을 쓴 연극형태로 발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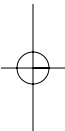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일본\_ 노 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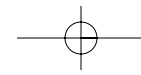
일본의 대표적 가면 악극이다. 노멘은 일본인의 표정과 이미지를 잘 묘사한 것이 특징적이다.



### 필리핀\_ 주술가면

풍농을 기원하거나 악령을 퇴치하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술제약에 사용된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파푸아뉴기니\_ 조상가면**

죽은이의 뉘를 기리거나 그 영혼을 탈을 통해 인격 화시키기도하고, 이를 사당에 안치시켜 숭배하기도 한다.



**몽골\_ 장례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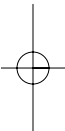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죽은이를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영혼이 저승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며,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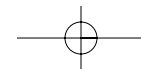
**자이르\_ 성인식 가면**

성인식에 사용되며, 왕조를 열고, 정치조직을 정비하고, 미술과 공예를 부흥시킨 문화의 선구자를 상징한다. 탈의 머리 장식은 코끼리 코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왕족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향토교육자료관 >>>>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향토교육자료관

경상북도 향토교육자료관은 93년 12월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옮겨 오면서 향토교육자료를 수집·전시하여 일선 학교의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신설된 자료관으로서 6개의 전시실과 1개의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12,000여 점에 달하는 각종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은 우리지역의 자연·문화·첨단 산업에 관한 자료를 전시한 향토 자료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교육제도와 교과서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한 교육자료실을 비롯하여 민족 자료실, 화폐 자료실, 문헌 자료실 및 최첨단시설을 갖추어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보급실 등으로 꾸며져 있으며, 야외전시장은 옛날 선조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당시의 생활모습을 재현하여 연출하였다.

- ▶ 관람시간 월~금 10:00~17:00
- ▶ 휴관일 토·일 공휴일
- ▶ 관람료 무료
- ▶ 문의 054-840-2293 / <http://www.gber.kr>
- ▶ 위치 안동시 정하동 385
- ▶ 찾아가는 길 안동시내에서 영호대교를 건너 우회전하여 100m정도 이동 후 SK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소요시간 10분)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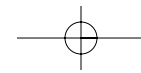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 공룡의 발자국(恐龍足跡)

중생대(中生代)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 화석



### 반달 돌 칼

지름 19.5×7.0cm



박물관의 도시 안동 >>>



11.0×10.0cm



12.0×5.0cm



13.0×5.0cm

**돌도끼**



**귀면 와당(鬼面瓦當)**

와당은 기와와 가마의 마구리를 말하며 특히 마구리 모양과 무늬는 고대 미술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4.0×24.0cm

박물관의 도시 안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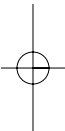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청화 백자 용무늬 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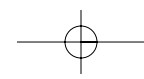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39.5cm×13.3cm×1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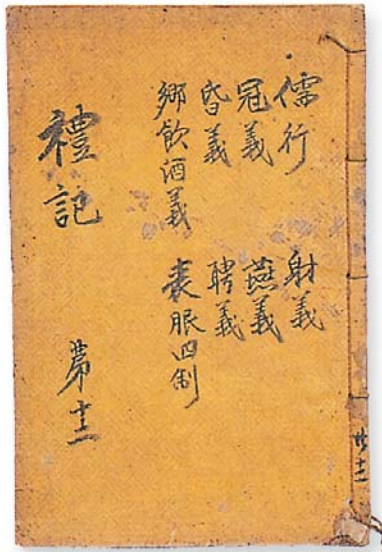
**논어 論語**

공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으로 인생의 교훈이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다. 사서(四書)의 하나이며, 유교의 근본문헌이기도 하다. 과거(科擧)의 중요한 과목으로, 선조(宣祖)때 언해본(諺解本)이 발간되었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예기 禮記

오경(五經)의 하나, 예(禮)의 이론과 실례를 기술한 책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高麗) 때 안향(安尙)이 중국(中國)에 가서 이 책을 가져온 후 학자(學者)들의 필독서(必讀書)가 되었고, 과거의 시험 과목으로 널리 익혔다.



시전언해 詩傳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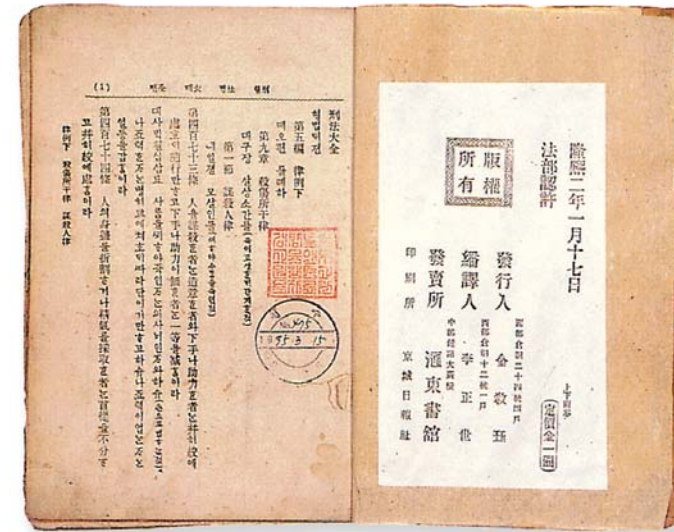
시전(詩經, 毛詩)을 한글로 번역한 책, 조선 선조 때 왕명으로 만든 칠서 언해 중의 하나로 활자본을 다시 목판으로 찍어 낸 책이다.



천자문 千字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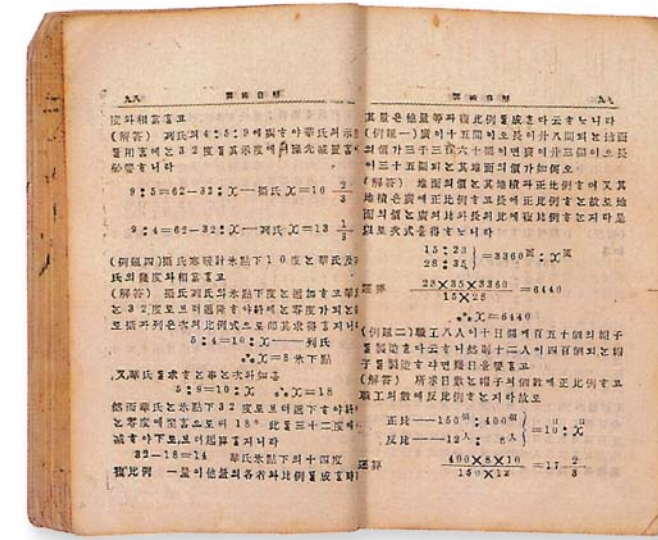
중국 양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책으로서 한문(漢文)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의 교과서. 한문 1,000자를 4자씩 서로 다른 글자를 붙여 뜻이 통하는 한 문장으로 만든 책이다.

박물관의 도시 안동 < >



현행 형법 대전 現行刑法大典

시대 : 1908년(융희 2년)  
저자 : 김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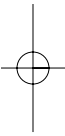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산술 자해 算術自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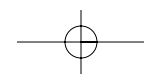
시대 : 1908년(융희 2년)  
저자 : 잔도빈  
(수학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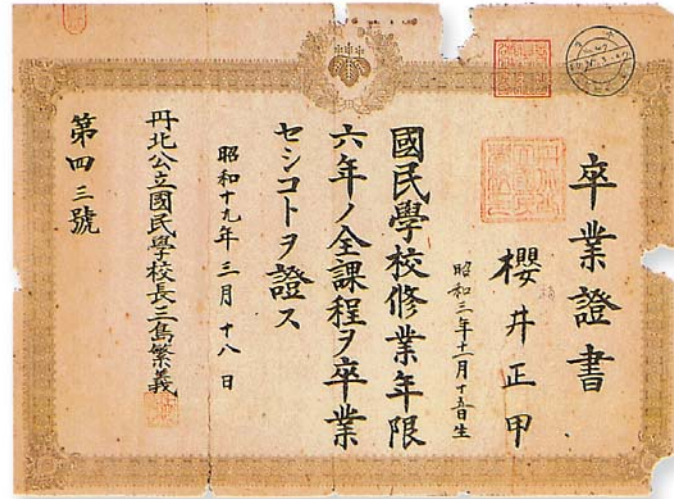
조선 지리 朝鮮地理, 1945)

학년 : 중등 교재  
공저 : 이기섭, 이부성, 정기현  
인쇄 : 정음사





박물관의 도시 안동 >>>



**졸업 증서 卒業證書**

학교 : 단북 공립 국민 학교(丹北公立國民學校)  
학년 : 제 6학년  
학생 : 조정갑(趙正甲) 창씨개명전 → 조정갑  
내용 : 6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장  
일시 : 1944년 3월 18일



**초등 셈본(1947)**

학년 : 4-1(초등)  
편저 : 문교부  
인쇄 : 조선 서적



**전과지도서(1954)**

학년 : 3-2(초등)  
저자 : 김상문  
인쇄 : 동아출판사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해동통보 海東 通報**

1102년 고려 숙종 7년 은병(銀瓶) 보조 화폐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전(銅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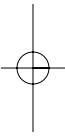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상평통보 常平 通報**

조선시대 인조때 주조하여 조선말기 현대식 화폐가 나올때까지 통용되었으며 뒷면의 구멍위에 주조한 관청의 이름을 박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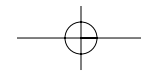


**조선은행 : 신 5원 권**

• 크기 : 123×72mm







박물관의 도시 안동 >>>



한국조폐공사 : 백원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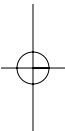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 크기 : 156×66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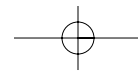


한국조폐공사 : 천원권

• 크기 : 155×65mm

개성이 살아있는 안동의 박물관 >>>>





## 개성이 살아있는 안동의 박물관

- 박물관, 전시관, 유물관을 아울러서 -

배 영 동(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박물관장)

### 1. 안동에는 왜 박물관이 많을까

박물관은 사람들이 남긴 유산과 자연이 남긴 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람들이 남긴 유산은 문화유산이고, 자연이 남긴 유산을 자연유산이라고 한다.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어떤 목적으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유물관이나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박물관은 이러한 유산을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교육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전시관은 유산을 수집, 전시, 교육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시설이고, 유물관은 전시관의 일종이지만 보존, 전시하는 데 주력하는 문화시설이다. 하지만 이 세 유형의 문화시설을 하나로 묶어서 다룰 수 있는 근거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산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편의상 이 셋을 박물관으로 통칭해도 큰 무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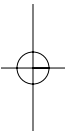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안동에는 역사문화유산이 도처에 즐비하다. 그래서 안동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안동 땅에 누대에 걸쳐 살아온 조상들의 유산이 저절로 박물관이 된 것이다. 수도 서울보다 훨씬 넓은 안동이 그 자체로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으니, 안동은 돈 들이지 않고서도 박물관을 보유한 효과를 누린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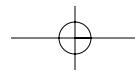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설립한 박물관도 안동에는 여럿 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하여 안동민속박물관, 경상북도 산림과학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 하회동탈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또한 경상북도향토교육자료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물문화관, 안동포전시관 등은 박물관에 준하는 전시시설이자 교육시설이다.

그 밖에도 훌륭한 인물의 유산을 보존·전시하기 위해 만든 문중 차원의 유물관이 안동에는 많다. 삼태사를 모신 태사묘의 보물각, 퇴계 이황 선생을 모신 도산서원의 옥진각, 서애 류성룡 선생 종택의 영모각, 학봉 김성일 선생 종택의 운장각, 광산김씨 문중의 승원각 등이 대표적인 유물관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소도시치고 안동만큼 많은 박물관과 그에 준하는 시설을 가진 도시는 한국에 없다. 안동에 박물관이 많은 까닭은 무엇보다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이 많은 것은 안동에는 유사이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살았고, 각 시대를 대표할만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많아서 한 시대를 주도한 문화가 융성했다는 뜻이다.

안동에 밀집해서 있는 전담은 독특한 불교사상이나 종파가 안동을 중심으로 하여 번성하였음을 말해준다. 고려시대에는 고려 태조 왕건, 충렬왕, 공민왕이 안동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안동의 역사적 문화적 지형도를 바꾸어놓았다. 태조 왕건이 930년에 후백제의 견훤과 싸울 때 삼태사(김선평, 권행, 장정필)의 활약으로 승리하였다. 이로써 당시 고창에 안동이라는 지명이 부여되었고, 승전 기념 행사가 차전놀이로 발전하였다. 충렬왕은 제2차 일본정벌을 하던 1281년에 안동에 와서 머물렀는데, 이 때 안동부사가 채봉





을 설치하고 큰 환영행사를 벌였다. 안동 소주 양조와 하회탈의 창안은 충렬왕의 안동 행차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공민왕은 홍건적을 난을 피해서 1361~2년에 안동에 와서 머물렀다. 그 인연으로 지금과 같은 낫다리밧기가 만들어졌다. 고려가 어려울 때 왕이 안동에 행차하여 고려가 안정되니 안동이 국가적으로 주목되고, 안동사람들의 중앙 정계 진출이 활발해졌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무렵에는 주자학을 신봉하던 신진유학자들이 대거 안동으로 이주하여 안동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였다. 뒤이어 퇴계 이황 선생이 수많은 제자를 길러 안동은 한국 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후 퇴계 학맥을 잇는 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명실상부한 선비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안동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과거합격자를 배출하였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말에는 안동에서 의병활동과 독립운동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토록 많은 인재가 안동에서 연이어 나오니 안동에 문화유산이 풍부해진 것이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므로, 안동에서 대대로 산 선조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문화유산의 성격과 풍부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동에 박물관이 많은 것은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이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것은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각 시대를 살아온 안동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안동에 있는 박물관은 어떤 개성이 있을까

사람들은 ‘박물관맞춤기술관진흥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흔히 박물관을 설립주체에 따라서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안동에는 법리에 꼭 맞는 의미의 국립박물관은 없고,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만이 있다. 광의의 박물관 개념에 따라서 전시관, 유물관을 포함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으로는 안동시에서 설립한 안동민속박물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이육사문학관, 안동포전시관, 경상북도에서 세운 산림과학박물관, 도교육위원회에서 세운 경상북도향토교육자료관이 있다. 그리고 법인체가 설립한 박물관으로는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있다. 대학박물관으로는 안동대학교박물관이 있다. 그 밖의 박물관은 모두 사립박물관이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공립박물관이 가장 많다. 안동에 있는 박물관을 설립취지와 취급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분류해보면 표와 같다.

분 야	해당 박물관
지역문화사	안동대학교 박물관
생 활	안동민속박물관,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 안동포전시관
자 연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안동물문화관
미술·공예	하회동탈박물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 안동한지전시관, 기와그림전시관
교 육	경상북도향토교육자료관
인 물	태사묘 보물각, 옥진각, 영모각, 운장각, 송원각
기 념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이육사문학관

지역문화사를 총체적으로 다룬 박물관은 국립안동대학교에 부설된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안동지역 최초의 박물관(협의의 박물관)으로서, 1979년 안동대학교 4년제 개교와 더불어서 개관되었으며, 2008년에 전시내용을 전면 개편하여 “안동의 역사와 문화”라는 주제로 다시 개관하였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안동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호 융합하여 전시하고 있다.

생활 분야를 취급하는 박물관은 여럿이다. 1992년에 개관한 안동민속박물관은 경북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서 안동문화권의 대표적인 유교문화 가운데서도 상층계급과 서민들의 생활문화를 일생의례, 의식주생활, 학술과 제도, 수공업, 민간신앙, 민화, 놀이 등을 함께 이해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 문을 연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안동지역의 다양한 유교문화, 민속문화, 지역사 등을 디지털 콘텐츠로 전시하고 있다. 2006년에 개관한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유교문화박물관은 안동의 유명 종가에 소장되어 온 진귀한 유물을 기탁 받아 사대부들의 유교적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민속주 안동소주가 1995년에 개관한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은 안동소주의 제조과정과 도구를 비롯하여 전통성 있는 음식과 상차림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다. 안동포전시관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안동포짜기의 중심마을인 금소리에 있는 바, 안동포의 역사와 직조법, 우수성 등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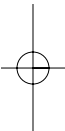
자연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으로는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 안동물문화관이 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상북도산림과학박물관은 산림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산림과 연관된 문화를 함께 전시하고 있다. 2007년에 개관한 안동물문화관은 안동댐 부속시설로서, 안동지역의 댐건설과정과 댐 주변 생태계 자료, 물과 관련한 지역사를 다루는 전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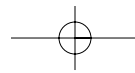
미술·공예 분야를 다루는 박물관도 제법 있다. 1996년에 하회탈 조각가가 설립한 하회동탈박물관은 한국의 탈을 비롯하여 세계의 탈을 전시하고 있다. 2007년에 개관한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 안동의 도자기, 염색, 목공예, 금속, 한지 공예 작자들의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민 문화공간이다. 2007년에 문을 연 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은 천연염색 제품과 규방공예품을 한자리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안동한지 부설 안동한지전시관은 전통한지의 제조기술과 색한지, 나염지 등의 다양한 한지와 한지로 만든 여러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체험기능을 덧붙였다. 2005년에 개관한 기와그림전시관은 불교적 의미의 그림이 있는 기와를 전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의 박물관으로는 경상북도교육연구원 부설 향토교육자료관이 있다. 1995년에 개관한 이 자료관은 교육의 도시 안동의 이미지에 맞게 교육사 관련 자료를 알차게 모아 전시하고 있다.

인물 분야의 박물관으로는 안동 출신의 훌륭한 인물들이 남긴 유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문중차원의 유물관을 들 수 있다. 태사묘 보물각은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의 시조를 모신 태사묘에 보전되어 온 고려시대 유물을 보존·전시하는 공간이다. 도산서원에 있는 옥진각은 퇴계 이황 선생의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하회마을에 있는 영모각은 서예 류성룡 선생 종택에 보존되어 오던 유물을 전시하는 시설이다. 금계마을에 있는 운장각은 학봉 김성일 선생의 종택에 전해오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오천군자리에 있는 송원각은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의 유산을 보존·전시하는 시설이다.

기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박물관에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이육사문학관이 있다. 2007년에 개관한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은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되는 안동지역의 독립운동, 안동인들의 국내외 독립운동에 관한 소중한 역사를 풍부한 자료로 전시하고 있다. 2004년에 민속시인 이육사의 고향 마을에 세워진 이육사문학관은 이육사의 문학, 독립정신에 대해서 정리하여 전시한 곳이다.





### 3. 안동지역 박물관 유물의 특성은 무엇인가

안동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 지정문화재(국가지정, 도지정)가 가장 많은 곳은 경주와 안동이다. 문화재 지정 건수는 해마다 달라지는데, 경주와 안동은 지정문화재 수량 면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지정문화재의 성격면에서 보면, 경주에는 신라문화유산이 많고, 안동에는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많다. 경주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거의 대부분 소유자가 국가이다. 반면 안동에 있는 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거의가 문중이거나 개인이다. 경주에 있는 문화재는 거의가 석조물이나 출토품인데, 안동에 있는 문화재는 거의가 목조건축물이다. 그 목조건축물은 종택, 재실, 서원, 정사, 정자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목조건축물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거나 이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례나 행사가 치러지기도 한다.

말하자면 경주에 있는 지정문화재가 형태와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보존·관리되는 것이라면, 안동에 있는 지정문화재는 전통적인 기능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화 현상인가? 안동에서는 지정문화재가 보존을 위해서 관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살아있는 문화의 전통을 제법 풍부하게 이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의 전통은 바로 조선시대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유교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민속문화, 불교문화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러한 안동문화의 배경 때문에 안동지역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도 안동문화의 개성을 반영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유물이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유교이념을 담고 있는 유물이 가장 많다. 안동민속박물관, 유교문화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 등에 있는 주요 전시내용을 보더라도 유교이념에 밀접하게 연결된 유물이 많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내용을 보더라도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이 안동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 선비들이었다. 따라서 안동지역의 박물관에 있는 특색 있는 유물은 주로 유교문화의 산물이고, 유학자의 삶과 관련된 유물이다. 앞서 보았듯이, 조선시대 안동지역에서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과거합격자를 배출했다는 것이 유물과 직결되고 있다.

안동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응태의 부인이 남긴 유물이라고 하겠다. 이 유물은 1998년 안동시 정하동 택지개발 상황에서 이장하려던 이응태의 무덤을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수습 조사한 것이다. 1586년에 이응태가 31세의 나이로 죽게 되자 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글로 쓴 편지가 생생한 상태로 무덤에서 나와서 세인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하루속히 쾌차하라는 뜻에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서 삼은 미투리도 남편의 머리맡에서 나왔다. 이 유물은 당시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할뿐만 아니라, 부덕(婦德)의 실천을 위해서 여성들이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2007년 11월호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도 소개되어 전 세계인을 감동시킨 유물이다.

그 밖에는 태사묘 보물각에 소장된 고려시대 유물, 옥진각에 있는 퇴계 선생 유물, 영모각에 소장된 서애 선생 유물, 운장각에 소장된 학봉 선생 유물,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 소장된 각 문중 기탁 유물, 안동민속박물관 소장품 등이 주목된다.

보물각에는 태조 왕건이 태사에게 하사한 것으로 전하는 주칠 탁잔, 공민왕이 안동부에 하사한 은수저와 은합, 금대(金帶), 직물이 소장되어 있어서 고려시대 왕실문화의 일단을 알게 한다. 옥진각에는 퇴계 선생의 성학십도(聖學十圖), 혼천의(渾天儀), 투호, 목제등경, 청려장, 백자타호 등이 있어서 선생의 학문활동

과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영모각에는 서애 선생의 광국원종공신록권, 투구와 어사화, 원정립(圓頂笠) 등이 보존되어 있어서 주목되며, 운장각에는 학봉 선생 유물로 전하는 안경과 사방관(四方冠), 부인에게 쓴 한글편지가 있어서 흥미를 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품으로 소장되어 있는 자료는 진귀한 것이 워낙 많다. 대표적으로 유명 인물의 초상화, 외국사신으로 갔다가 받은 하사품, 농암 이현보 선생의 『애일당 구경첩(愛日堂具慶帖)』, 『화산양로연도(花山養老燕圖)』, 안동 권씨·홍해 배씨·고성 이씨·영양 남씨·안강 노씨 문중의 덕망 있는 13인이 1478년에 결성하여 지금까지 계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우향계에 대해 기록한 『우향계안(友鄉稷案)』, 풍산 김씨 문중의 뛰어난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 등은 전문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유물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는 수만 장의 목판본(木版本)도 당시의 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없는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안동민속박물관에 소장된 상여와 감모여재도(感慕如在圖)는 전통 상제례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유물이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彫錄)』, 『대동사(大東史)』, 신간회(新幹會) 국내외 정세 보고서 등이 귀한 자료이다. 한편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현대 첨단정보사회에 맞게 박물관 전시물의 패러다임을 바꾼 유물이라 하겠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안동지역의 여러 박물관이나 유물관에는 다량의 서책과 문집이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자랑거리다.

안동지역 박물관에 소장된 여러 유물은 사실상 안동지역 문화가 빼어난 인물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안동사람들이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안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유물에 반영되어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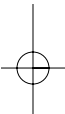
### 4. 안동지역 박물관의 전시기법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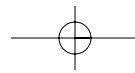
안동지역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방법을 보면, 실물전시, 패널전시, 영상전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는 오늘날 웬만한 박물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전시기법이다. 그런데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시된 내용이 다르게 보인다. 실물전시를 하더라도 실물을 보여주고 감상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는 '제시형 전시', 보여주고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설명형 전시'로 나누어진다.

제시형 전시는 설명형 전시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 단순하다는 것은 실물을 돋보이게 하여 감상할 수 있는 여백미를 살렸다는 뜻이다. 이런 전시는 일반적으로 진귀한 유물일 때 채택하는 기법이다. 제시형 전시의 표본이 될 만한 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태사묘 보물각, 옥진각, 운장각, 영모각 등이다. 이런 곳에는 모두 진귀한 유물이 많으니 보여주지만 해도 관람객들이 감동을 받게 된다.

실물전시를 하면서도 설명형 전시를 하면 실물에 대한 정보를 더 소상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요한 유물인 경우에도 유물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덧붙이면 관람객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설명이 많으면 유물에 대한 감상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안동에서 설명형 전시기법으로 실물전시를 하는 박물관으로는 안동민속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의 일부 전시영역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실물과 영상을 조합하여 전시하는 기법도 가능하다. 지금 안동에서 실물전시와 영상전시를 부





분적으로 조합하여 전시한 박물관으로는 안동대학교 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이응태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안동의 민속놀이, 안동의 관혼상제례 등을 영상전시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실물전시를 주로 하고 있다. 영상전시도 넓은 의미에서는 설명과 전시를 동시에 실현하는 기법이라고 한다면, 설명형 전시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은 패널과 영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많은 영역에서 설명패널을 주로 쓰되 중간 중간에 영상전시를 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였다. 패널은 사진, 그림, 도식, 문자 설명을 평면형으로 처리한 것인데, 무엇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시보조매체에 해당한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이런 패널전시를 많이 한 까닭은, 독립운동과 관련한 실물이 본질적으로 많을 수 없고 있어도 문서와 사진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널전시도 전달하려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넓게 보면 설명형 전시이다.

다음으로 요즘 활성화되는 전시기법으로 영상전시를 살필 수 있다. 영상전시도 있는 현상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전달하는 전시, 있는 현상을 컴퓨터 기술로 변형시키고 흥미 있는 방식의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전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앞의 영상전시는 아날로그방식의 영상전시라면, 뒤의 영상전시는 디지털방식의 영상전시이다. 오늘날 뒤의 영상전시를 디지털콘텐츠전시라고 한다. 일반 영상전시는 제법 오래 전부터 여러 박물관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디지털콘텐츠전시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 급부상하는 전시기법이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은 우리 나라 최초로 안동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시함으로써 박물관학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5. 안동지역 박물관의 미래를 향하여

자연계에서 인간만이 자기 삶의 족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길을 모색한다. 미래지향적인 삶의 방향 설정에 박물관이 참고가 된다면 박물관이야말로 고리타분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비전을 제공하는 시설이 된다.

박물관은 일정한 공간에 오랜 세월이 걸친 자료를 집적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면 시간과 공간을 압축하여 무엇인가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박물관이 갖는 최대의 장점이다. 이제 안동은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 유물관을 자원으로 삼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터야 할 것이다.

20년 전쯤 되었을까, 전국에 무수하게 흩어진 진귀한 문중유물을 기탁 받아 관리해주는 박물관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근무하던 박물관에서 어떤 문중 유물에 대해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의 위탁전시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관행상 박물관에서는 기탁보다는 기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소유자로서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기탁제도에 훨씬 더 호감이 갈수밖에 없다. 그 때는 농촌에 있는 고택에서 이따금씩 문화유산을 도난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물론 ‘무인경비장치’ 라는 것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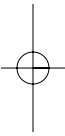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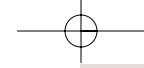
그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든 것은 농촌 마을을 조사하면서, 우리의 농촌현실을 보면서 농지 임대와 관리 실태를 생각하면서였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경작을 주니 돌아오는 것이 적고, 직접

농사를 짓자니 힘에 겨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바라는 생각이 힌트였다. 그 때 농민들이 바라던 것은, 농사일을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하면서 농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가지면서 영농의 시작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탁영농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농지소유자는 위탁영농을 하였을지언정 농민이라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임대경작을 주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웬만한 농촌에서 위탁영농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방식과 매우 근사하게 만들어진 유물관리 제도가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획기적으로 정착되었다. 위탁영농을 하면 위탁받은 농민들이 비용을 받아가지만, 한국국학진흥원은 기탁 받은 유물을 훼손 없이 전시와 교육, 연구에 활용한다는 것이 소유자로부터 받는 혜택이 되었다. 문중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유물을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서 기탁 받아 관리해주시 경북북부권의 수많은 문중이 경쟁적이라 할 정도로 진귀한 유물을 기탁해주었다. 참으로 놀라운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종래에는 문중에서조차 취급도 받지 못하던 목판본을 수 만장씩 기탁 받은 일은 박물관이 문화유산의 파수군 임무를 혁신적으로 수행했다는 뜻이다. 문화유산 소유자와 박물관이 서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러한 기획과 운영을 적극화 할 때, 박물관과 지역 주민이 더불어 발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종래에는 박물관이라 하면 진귀한 유물이 많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유물은 단 한 점도 없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도 없던 박물관이었다. 디지털콘텐츠박물관의 존재로 말미암아 박물관에 유형적인 유물이 없어도 박물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법령에 맞추어서 사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움직이는 대로 법령이 만들어져야 바람직할 때가 많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의 사례는 바로 그런 개가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지금 디지털혁명 시대에 누구나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박물관에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집적되어 관리되도록 하는 일, 그리고 영상과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한 일반인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다른 박물관에서도 적은 돈을 들이고 소유자와 이용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이 시대의 사명에 맞게 보호하고 전달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 편집 후기

'박물관의 도시 안동'을 발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21개 박물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의 인쇄를 맡아주신 청솔인쇄기획, 이 책자를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신 배영동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자가 안동의 문화를 알리는데 소중한 자료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 박물관의 도시 안동

The museum a city of Andong

초판 1쇄 인쇄 : 2009년 8월  
 초판 1쇄 발행 : 2009년 8월

발행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발행인 김휘동, 이동수  
 기획 및 편집 배영동, 전창준, 권두현, 김은정

펴낸곳 청솔인쇄기획(054-841-3750)

※ 이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